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유기영 이종찬

Basic Design for Seoul Animal Center(SAC)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 연구책임

유기영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이종찬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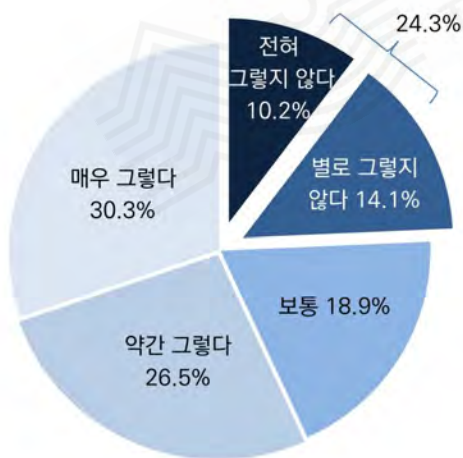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운영으로 반려동물 사육문화 근본적인 변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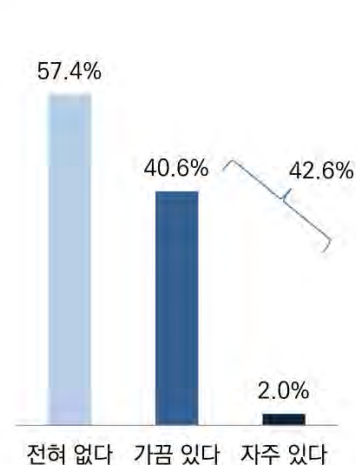
### 반려동물 사육가구 12년새 3%p 증가... 동물입양센터 운영 자치구 없어

서울의 반려동물<sup>1)</sup> 사육가구는 2016년 20.4%로 2004년 17.2%보다 3%p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장 또한 성장하여 2014년 1조 1천억 원~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육자 중 유기동물 등을 입양하여 키우는 경우는 11~17%에 불과하고 24% 정도는 사전지식이나 정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심지어 42.6%의 사육자는 사육포기나 유기에 대한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2015년 서울에서는 8,902마리의 개, 고양이가 구조되어 자치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서울의 유기율 0.8%, 일본 도쿄도 유기율 0.2%).



출처: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1] 키우기 전 반려동물 사육 정보 취득 여부



출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반려동물 포기·유기 충동 경험

<sup>1)</sup> 본 연구의 반려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한정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민간시설 또는 동물보호단체시설에 위탁하는 형태이고, 시민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기반은 전혀 없다. 조례상 자치구의 의무 중 하나인 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 또한 한 군데도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입양센터는 연간 입양동물 수가 100마리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역할이 미흡하다. 그나마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복지와 여가 기능과 시민 이용 측면에서 내세울 만하다. 2개 팀 6명의 공무원(2팀장, 4주무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동물보호조직은 그나마 탄탄한 수준이다. 정부는 2명(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자치구는 대부분 전담자(주무관) 1명만 두고 있다. 특히 자치구 담당자는 매일 2시간을 소비해야 할 정도로 연간 421~1,451건의 동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도쿄, 런던 등 외국도시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운영이 주요 특징

일본 도쿄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도쿄도가 주도하고 동물보호단체(비영리단체)는 이를 보완하며 입양, 사육자 교육 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 런던은 런던시나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반면 RSPCA(1824년 설립, 영국 왕실도 주요 후원자의 하나) 같은 오랜 역사의 비영리단체들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뉴욕시와 비영리단체들이 동일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그러나 균형 있게 수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외국 도시의 동물보호조직이나 비영리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역할은 배회동물 또는 학대동물의 구조·보호·입양,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병원 운영, 길고양이 관리, 교육 등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다. 외국의 비영리단체는 전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 도시 유기동물의 입양범위 역시 전국적이며 특히,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 도시들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활동재원도 각종 수수료, 기부금, 유산수입, 정부보조금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반해 서울은 공공부문의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교육 같은 사전예방적 기능이 없으며 자원 또한 공공부문은 공공재원에, 비영리단체는 기부금에 편중되어 있다.

## 서울시민 92.5% “서울시도 외국처럼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해야”

시민들의 향후 반려동물 사육의사와 지금까지의 증가경향 그리고 선진국의 사육현황 등을 감안할 때 서울의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29%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 충동을 느끼는 사육자(2.0%)와 실제 유기율(서울시 0.8%), 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도시의 사례, 개보다 고양이의 사육가구가 많은 EU국가들의 반려동물 선택(개 18%, 고양이 26%) 등은 반려동물 사육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서울시민들도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설문조사에서 요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외국과 같은 다양한 기능의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92.5%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매우 찬성 32.7%, 다소 찬성 59.8%).



[그림 3] 동물복지지원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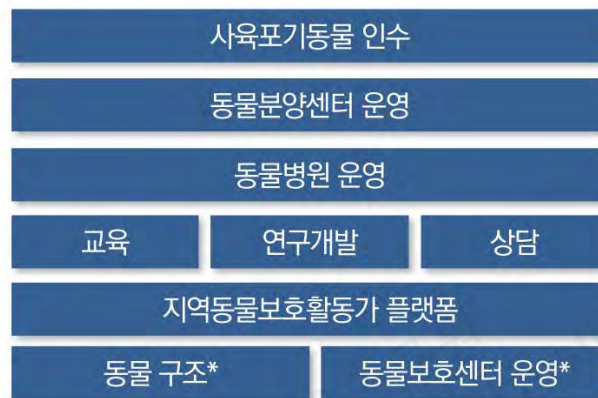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반려동물 보호·사육문화 개선에 집중 필요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여기에 시민의 요구를 더하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폭이 넓다. 그러나 자치구의 역할과 중복을 피하고, 비영리 동물보호 단체나 시장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시민의 거주지와 근접해야 하는 등의 제약요건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사육문화 개선 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 ① 사육포기동물 인수(사유가 합당한 경우만 인수하고 인수수수료 징수), ② 동물입양센터<sup>2)</sup> 운영(비영리 동

2) 본 연구의 '입양'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상(제21조) '분양'을 뜻한다.

물보호단체에 위탁), ③ 동물병원 운영(사회적 약자의 동물 및 입원동물만 치료), ④ 교육(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⑤ 연구개발, ⑥ 상담, ⑦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서울시는 이 시설의 운영을 통해 연간 63억 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 유기동물의 구조·치료 비용의 절감 350백만 원,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비용 절감 1,543백만 원, 이웃 간 소음 같은 갈등의 억제 4,396백만 원 등이다.



\* 시설입지지역 자치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림 4]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 동물복지지원시설은 거주 시민 많은 서남생활권에 1곳 먼저 확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은 일반 주거지역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확보한다. 1단계 사업으로 거주 시민이 많은 서남생활권에 1개소를 확보하고, 성과가 좋으면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생활권(동남권, 동북권, 서북권·도심권)에도 1개소씩 총 4개소의 확보를 모색한다. 시설규모는 개소당 1,000㎡ 이내가 적정하며, 사육포기동물 인수처, 입소동물 보호공간, 동물 입양처, 동물병원, 교육·세미나실, 사회화교육장, 상담실, 연구개발실, 자료실, 가족놀이터, 행정실 등의 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림 5]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대상지

## 성과평가 후 동남, 동북, 서북·도심 생활권에 1곳씩 확보 바람직

시설은 서울시(시민건강국)의 관할 사업소로 운영하며, 필요한 인원은 4팀(동물병원팀, 인수입양팀, 교육상담팀, 기획행정팀) 21명으로 예상된다. 인수입양팀과 교육홍보팀은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체제로 운영하고 교육공간 또는 유희공간은 비영리단체 또는 유관단체에 개방한다. 이동진료차량, 동물구조차량, 현장교육차량 등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운영재원은 서울시 재원을 기본으로 하되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와 입양수수료 징수, 시민의 기부금 모금 등으로 다양화한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경비를 절감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입지를 희망하는 서울시 상수도 봉천통합가압장(부지 635㎡, 건축연면적 636㎡)은 서남생활권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1단계 사업으로 적합한 장소이다. 그러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므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공사비 대략 37억 원 규모).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운영목표, 운영조직, 운영프로그램, 위탁사업, 공간활용, 시설명칭, 홍보, 제도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도 제안한다.



[그림 6] 서울시 상수도 봉천동 가압장 부지 전경



## 목차

01 서론	2
1_연구 배경 및 목적	2
2_연구 수행 방법	3
02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 및 관리 실태	8
1_반려동물 보유 실태	8
2_반려동물 관련 산업	13
3_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21
4_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제도	26
03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 사례	34
1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공공부문)	34
2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민간부문)	40
3_국외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	44
04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	70
1_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 검토	70
2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역할 설정	84
3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 평가	91
05 사업 추진 방안(1단계 사업)	94
1_시설 입지(안)	94

2_행정절차 및 용역의 필요성	96
3_추후 중점 검토 사항	99
참고문헌	101
부록	104
1_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04
2_반려동물 보유와 동물복지지원시설 수요 설문조사 결과	109
3_설문조사 문항	147
Abstract	153



## 표

[표 1-1] 반려동물 사육여부 및 사육자·비사육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방법	6
[표 2-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조사결과	8
[표 2-2]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단위 사육 마리 수	9
[표 2-3] 반려동물 보유계기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10
[표 2-4]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고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12
[표 2-5] 반려동물 관련 수의업 매출액	14
[표 2-6] 반려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매출액	15
[표 2-7]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2016년 3월 현재)	16
[표 2-8] 가구당 가계수지 중 반려동물 관련 지출규모	18
[표 2-9] 반려동물 소유가구가 응답한 가계지출	19
[표 2-10] 전국·서울시 유기동물 처리방법	22
[표 2-11] 보호기간이 20일일 때의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23
[표 2-12]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유형(2015년)	24
[표 2-13]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규와 내용	27
[표 2-14]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	29
[표 2-15] 조례에 나타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반려동물 관련 책무	31
[표 3-1]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황	38
[표 3-2] 전국 유기동물 관련 시설·단체	43
[표 3-3]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건물	44
[표 3-4]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취급동물 수	46

[표 3-5]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처리방법	46
[표 3-6]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수입지출 내역	47
[표 3-7]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소유자 반환수수료	47
[표 3-8]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	47
[표 3-9]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동물보호실적	49
[표 3-10] 사사야마 ARK의 시설내역	50
[표 3-11] 오사카 ARK의 개·고양이의 입양 실적	52
[표 3-12] ARK 수입지출 현황(2014.4~2015.3)	53
[표 3-13] 뉴욕시 동물보호센터 현황	55
[표 3-14]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동물보호실적	56
[표 3-15]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수입과 지출 내역(2015.6)	57
[표 3-16] ASPCA의 수입과 지출 내역	60
[표 3-17] 2014년도 RSPCA 수입 및 지출	64
[표 3-18] 베를린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 für Berlin) 수수료	67
[표 4-1] 서울시 가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추정	71
[표 4-2] 서울시 동물입양센터 운영실적	81
[표 4-3]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본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84
[표 4-4] 동물복지업무에 관한 공공과 비영리단체·관련업의 역할	85
[표 4-5] 주요 동물보호시설의 도심 입지 가능지역	86
[표 4-6] 서울시 토지이용 유형	86
[표 4-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안)	88
[표 4-8]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조직과 인력 예시	91
[표 5-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안	97

## 그림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5
[그림 2-1]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가구의 사육 비율	9
[그림 2-2] 반려동물 획득경로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10
[그림 2-3] 반려동물 사료(개나 고양이 소매용) 수입 현황	13
[그림 2-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매출액	14
[그림 2-5]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 추이	17
[그림 2-6]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전망	20
[그림 2-7]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량	21
[그림 2-8]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31
[그림 3-1] 서울대공원 반려동물입양센터 주요 모습	35
[그림 3-2]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문 예시	36
[그림 3-3]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인력 현황	37
[그림 3-4]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38
[그림 3-5]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40
[그림 3-6] 카라 더블어 슝	41
[그림 3-7]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42
[그림 3-8]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보호소 내 동물사육시설	48
[그림 3-9] 오사카 ARK의 동물보호소 내부 사진	51
[그림 3-10] Manhattan ACC 건물과 접수창구	55
[그림 3-11] Manhattan ACC의 고양이 보호공간	56
[그림 3-12] 뉴욕시 맨해튼의 ASPCA 본사	58

[그림 3-13] 미국 ASPCA 동물보호활동	59
[그림 3-14] RSPCA 본부 건물(Horsham)	63
[그림 3-15] RSPCA의 조사관과 지위에 따른 회장	65
[그림 4-1] 가구구성원 수와 반려동물 보유율	71
[그림 4-2] 가구소득과 반려동물 보유율	71
[그림 4-3] 반려동물 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72
[그림 4-4] 반려동물 비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72
[그림 4-5] 서울시 반려동물(개, 고양이) 보유비율	73
[그림 4-6] 세계 주요 국가·도시 반려동물 사육률	73
[그림 4-7] 정부는 국민복지관점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74
[그림 4-8]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	74
[그림 4-9] 정부/서울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	75
[그림 4-10] 정부의 반려동물 사육요령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75
[그림 4-11] 외국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75
[그림 4-12]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담당할 업무	76
[그림 4-13]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사육포기 및 유기 충동 경험에 대한 응답	77
[그림 4-14]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개·고양이 사육비율 변화	78
[그림 4-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	80
[그림 4-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사육자의 노력 유형	81
[그림 4-17] 동물병원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87
[그림 4-18] 가축시설(동물보호센터 등)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87
[그림 4-19] 서울시 생활권 분류 및 1·2단계 사업지 구분	89
[그림 5-1] 1단계 사업 시설 입지 예정부지	94
[그림 5-2] 1단계 사업 후보지의 기존 시설물 내부모습	96

# 01

---

## 서론

1\_연구 배경 및 목적

2\_연구 수행 방법

# 01 | 서론

## 1\_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반려동물 사육의 꾸준한 증가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 전국 22%, 서울시 20% 수준이며, 1~2인 가구, 1세대 가구, 노령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반려동물 사육의 증가와 관련하여 사료시장, 용품시장, 장묘서비스, 보호서비스 등의 산업이 이미 연간 1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 5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사육증가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비례하여 증가
  - 반려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반려동물 상해나 동물 학대, 반려동물의 구입·치료·미용 등 사육과정에서 사육자와 비사육자, 사육자와 영업자 사이의 소송이나 소비자 피해구제 요구 증가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이웃의 환경피해(소음 등) 신고, 배회동물 포획, 학대동물 신고 등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공공자원이 투입됨
- 반려동물을 바르게 기르고 보호하기 위한 공적 기반은 턱없이 부족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사육자가 현실에 맞게 반려동물을 선택하고, 바르게 키우고(동물 존중, 타인에 대한 피해 예방), 이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치료, 교육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해소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사회는 반려동물의 사육기반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특히 사육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바른 사육을 위한 정보 제공,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



고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제공·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공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

## 2) 연구 목적

- 시민의 반려동물 사육 및 자치구의 반려동물 관리업무를 지원할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가칭)의 기능을 검토하고 가치를 평가함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추진절차와 추진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를 제안함

## 2\_연구 수행 방법

### 1) 주요 연구내용

- 국내 반려동물 관리체계
  - 반려동물 보유 실태 : 보유가구 수, 보유 마리 수, 보유 사유 등
  - 반려동물 관련 산업 : 관련 용품, 수의, 사료, 장묘, 보험 등의 시장규모 및 변화 동향 등
  -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 개인 간 갈등, 유기동물 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수요 등
-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례
  - 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 서울시, 전국 지자체
  - 국외 동물복지지원시설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
  - 반려동물 추세 측면 :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 예측
  - 자치구와 서울시 역할분담 측면 : 자치구와 중복되는 역할 배제
  - 시장(市場)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측면 : 시장과 중복되는 역할 배제

- 도시 입지 측면 : 시민과 근접할 수 있는 기능 선정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효과 : 유기동물 발생 억제, 행정 업무부담 완화, 이웃과의 갈등 해소 등
- 향후 과제
  - 핵심 검토사항 : 시설 운영목표, 운영 프로그램, 운영 조례 등
  - 사업추진 절차 :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
  - 법제도 개선 사항 : 시설 운영에 필요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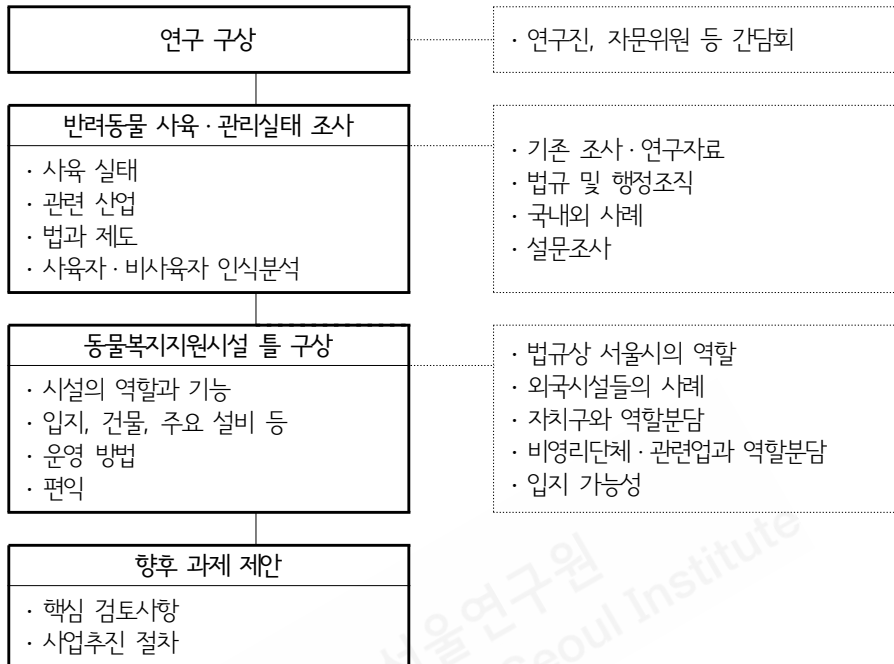
## 2) 연구방법 및 절차

- 사례 조사
  - 국내 동물복지지원 관련 시설 : 시설 기능, 조직, 재원조달 등
  - 국외 동물복지지원 관련 시설 : 시설 기능, 조직, 재원조달 등
- 의견 조사
  - 시민 의견조사 : 설문조사(총표본 2,567, 사육자·비사육자 인식조사 표본 각각 507)<sup>3)</sup> [표 1-1] 참조
  - 행정 당국자 의견조사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 비영리단체 및 관련업 의견조사 : 시민토론회
- 법규 검토
  - 동물보호 관련 법률, 조례 등 : 동물보호법,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자치구 동물보호조례 등
  - 시설입지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

<sup>3)</sup> 설문조사는 '리서치플러스'가 담당하고 조사결과는 <부록>에 수록

## ○ 연구절차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표 1-1] 반려동물 사육여부 및 사육자·비사육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방법**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li> <li>- 반려동물 사육자 및 비사육자</li> </ul>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구성의 틀 : 2015년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분포</li> <li>· 표본추출 방법 : 모집단 인구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할당 : 반려동물 사육여부에 따른 균등할당</li> <li>- 기타 할당 : 성, 연령, 거주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비례할당</li> </ul> </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병행</li> <li>-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분포에 따라 구축된 서울지역 조사전문패널을 대상으로 진행 : 온라인 조사전문기관 '마켓링크' 보유 패널 활용</li> <li>- 50대 후반 연령대는 개별면접조사 병행 : 총 56표본(전체표본의 5.5%)</li> </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자와 비사육자 파악을 위한 예비표본 : 2,567</li> </ul>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자와 비사육자 인식조사를 위한 유효표본 : 1,014</li> <li>- 사육자와 비사육자 표본 : 각각 507</li> <li>- 95% 신뢰구간에서 최대 허용오차 <math>\pm 3.1</math></li> </ul>
조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3월 25일 ~ 4월 4일(11일간)</li> </ul>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경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경험, 사육 반려동물(개, 고양이) 종류, 반려동물 사육 계기/배경, (반려동물 비사육자) 반려동물 사육 중단이유 / 사육경험이 없는 이유, (반려동물 비사육자)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li> </ul> </li> <li>· 반려동물 사육자 사육 실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반려동물 유기 충동 경험,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li> </ul> </li> <li>·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서울시/자치구 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인지정도, 외국이나 비영리단체와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역할이나 입장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방향,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시업, 주변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시 태도</li> </ul> </li> <li>· 표본 특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연령, 거주 지역,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득 수준, 학력, 직업, 가족 구성원 수 등</li> </ul> </li> </ul>

# 02

---

##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 및 관리 실태

- 1\_반려동물 보유 실태
- 2\_반려동물 관련 산업
- 3\_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 4\_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제도

## 02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 및 관리 실태

### 1\_반려동물 보유 실태

#### 1) 반려동물 보유 현황

- 반려동물 보유가구 : 서울시민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20.4%
  -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보유가구는 16.3~22.6%이며,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
  - 같은 기간에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도 17.2~27.0%이며, 2012년의 27.0%를 제외하면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23% 수준
  - 고양이보다 개를 기르는 가구가 더 많음

[표 2-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조사결과

연도	보유가구(%)		출처
	서울	전국	
2016	20.4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2015	21.5	21.8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18.0	19.0	한국갤럽,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	22.5	엠브레인, 2015,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2013	16.7	-	서울시, 2014,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2012	27.0 21.7*	17.9	농림수산물검역본부, 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10	20.1	17.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6	22.9	2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4	17.2	-	유기영, 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02	-	16.3	한국갤럽,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1997	-	17.0	한국갤럽,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 수도권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임



출처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N=507)

[그림 2-1]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가구의 사육 비율

- 가구당 보유 마리 수 : 고양이의 경우 증가 경향
  - 개의 경우 보유가구당 1.3마리, 고양이의 경우 보유 1.8마리 수준
  - 개의 경우 가구당 보유 마리 수에 변화가 없으나 고양이의 경우 가구당 보유 마리 수가 증가하는 경향

[표 2-2]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단위 사육 마리 수

연도	보유 마리/가구		출처
	개	고양이	
2015	1.27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2012	1.28	1.3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10	1.20	1.4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4	1.30	1.00	유기영, 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반려동물 보유계기 : 50% 정도가 자신이 좋아서 반려동물을 보유
  - 동물에 대한 선호로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조사에서 40~65%로 가장 높음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외롭거나 가족이 필요하여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수요(단수응답 7~13%)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음
  - 우연한 계기나 지인의 권유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경우(17~33%, 단수응답)는 바른 사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표 2-3] 반려동물 보유계기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단위 : %)

구분	본 연구 (2016, 단수응답)	엠브레인 (2015, 복수응답)	서울연구원 (2014, 단수응답)
예쁘고 귀여워서/동물을 좋아해서	53.3	64.9	39.8
우연히 생겨서/지인이 권해서	17.0	14.2	31.7
외로워서/가족이 필요해서	12.8	44.5	6.8
자녀 교육 목적으로	14.8	23.8	3.4
기타	2.1	-	18.3

출처 :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엠브레인, 2015,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 반려동물 획득경로 : 50% 정도가 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획득
  - 반려동물의 획득경로는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52~54%로 가장 많음
  - 동물병원을 포함한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26~27%이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7% 정도로 이 두 유형의 경로가 33~34%를 차지
  - 유기동물이나 배회동물을 입양하여 기르는 경우는 합쳐서 11% 또는 1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3-21호, 한국소비자원

[그림 2-2] 반려동물 획득경로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 2) 반려동물 사육의 어려움

- 반려동물을 사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 경제적인 문제(약 31%)가 가장 주된 고충
  - 57%의 반려동물 보유자가 반려동물의 사육방법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서 반려동물을 확보한 반면에 24%의 사육자는 관련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을 사육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동물진료비 27.3%, 경제적 문제 3.6% 등 약 31%)이며,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발생(13.3%), 반려동물을 돌봐줄 시간 부족(12.7%), 반려동물의 위생문제(12.2%) 등도 비중 있는 고충으로 응답
  -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부재와 같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없는 경우로(장기간 부재 25.9%, 개인적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 발생 11.6% 등 37.5%), 경제적인 문제(11.6%), 이웃 피해(8.2%), 위생 문제(6.2%) 등보다 비중이 매우 높음
  - 소유를 포기해야 할 상황일 때 반려동물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처분방법은 지인·가족에게 부탁(41.6%), 입양자를 찾아 양도(40.6%) 등이 절대적으로 많음. 동물보호소에 위탁, 야외방사같이 환경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는 6% 정도로 나타남

[표 2-4]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고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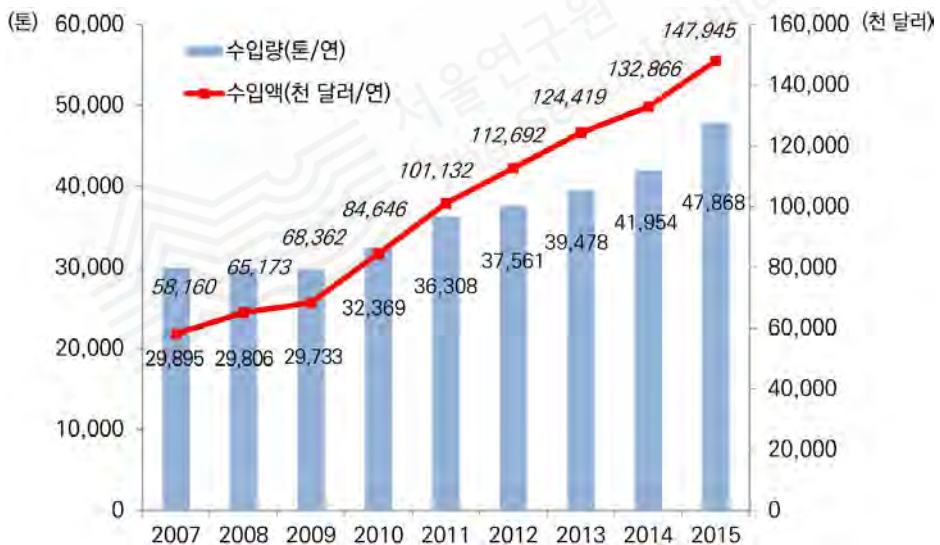
질문내용	응답내용	응답빈도(%)
키우기 전에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정보 취득 여부	계	100
	매우 그렇다	30.3
	약간 그렇다	26.5
	보통	18.9
	별로 그렇지 않다	14.1
	전혀 그렇지 않다	10.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	계	100
	동물 진료비	27.3
	이웃 피해	13.3
	사육시간 부족	12.7
	위생상 문제	12.2
	기타	10.6
	동물시설 부족	8
	거주공간 문제	7
	경제적 문제	3.6
	동물 이상행동	3.4
	가족 반대	1.8
	무응답	0.2
반려동물의 소유 포기를 유발한 상황	계	100
	장기간 부재	25.9
	기타	20.7
	경제적 문제	11.6
	개인적 사정	11.6
	이웃 피해	8.2
	거주공간 문제	6.4
	위생 관련	6.2
	가족 반대	3.8
	동물 이상행동	3.2
	생활 불편	2.2
	무응답	0.4
반려동물의 소유를 포기해야 할 경우 염 두에 둔 처리방법	계	100
	지인·가족에게 부탁	41.6
	입양자를 찾아서 양도	40.6
	기타	11.8
	동물보호소에 위탁	5.6
	야외에 방사	0.4

출처 :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 2\_반려동물 관련 산업

### 1) 관련 사업과 규모

- 반려동물 사료시장 : 연 2천 500억 ~ 3천 200억 원<sup>4)</sup> 규모이며, 외국제품이 주류를 차지
  - 주로 다국적기업의 제품이 시장을 점유 : 네슬레(Nestle), 마스(Mars), 뉴트로(Nutro), 유카누바(Eukanuba), 캐나데(Canidae) 등
  - 국내 사료업체도 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고품질 사료의 공급을 위해 노력 중 : 제일사료, 이레본, OSP 등
  - 수입사료의 양과 수입액은 매해 증가 경향 : 2014년 1,462억 원, 2015년 1,627억 원 수준(1USD=1,100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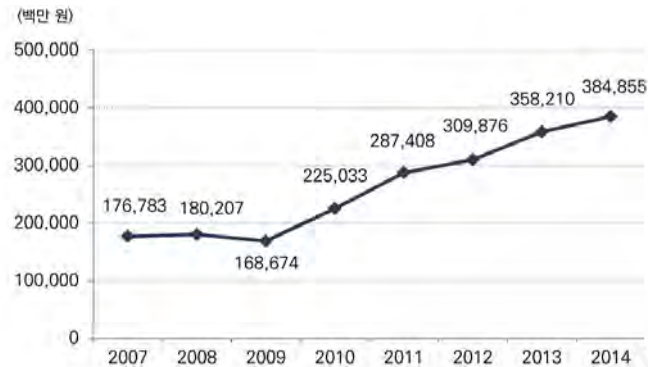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그림 2-3] 반려동물 사료(개나 고양이 소매용) 수입 현황

4) 황명철·김태성(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소매가 2,500억 원(도매가 기준 1,500억 원, 40% 마진을 반영) 규모이고 같은 기간 황지나(2015)에 따르면 2,970억 원 규모이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규모로는, 서울경제 김태성(2011)의 3,400억 원, 연합뉴스 전준상(2015)의 3,200억 원이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 가능한 수입 반려동물 사료 규모를 2015년 기준 약 1,600억 원으로 보면, 위 자료들에 언급된 국내 사료브랜드 시장 점유율(30~50%)을 고려했을 때 전체 사료시장 규모를 최대 3,200억 원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매출액 : 연 3,900억 원 규모(사료 포함)
  - 반려동물(열대어 등 포함) 소매, 반려동물용 사료, 애견 소품·용품 소매 등
  - 반려동물·관련 용품 소매업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
  - 2014년 기준 반려동물 용품 매출 규모는 3,849억 원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

[그림 2-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매출액

- 반려동물 수의업 : 연 6,500억 원 규모
  - 수의업은 축산동물 및 반려동물의 예방주사, 검진, 치료 등의 업종
  - 2016년 4월 6일 현재 등록된 동물병원은 전국에 4,307개소(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
  - 전체 수의업 매출이 느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관련 매출 비중이 증가 추세
  - 2014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수의업 매출액은 6,551억 원(전체 수의업 매출액의 83%)

[표 2-5] 반려동물 관련 수의업 매출액

(단위 : 백만 원/연)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매출액	248,444	328,925	342,229	450,182	464,547	594,185	697,646	785,464
반려동물								
매출액	-	-	-	-	354,913	480,695	579,046	655,076
비중	-	-	-	-	76.4%	80.9%	83.0%	83.4%

주 : 반려동물 분야 수의업 매출액은 수의업 총매출액에 반려동물 분야 점유량을 반영하여 산정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http://kosis.kr>

- 반려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 연 300억 원 규모의 신규시장
  - 반려동물미용서비스·미용실,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훈련소, 반려동물목욕서비스, 반려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화장터 운영, 반려동물보호센터 등이 이 업종에 해당
  - 반려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의 규모는 매해 증가추세
  - 2014년 시장규모가 338억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신규시장이라 할 수 있음

[표 2-6] 반려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매출액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백만 원)	4,964	6,682	8,024	11,836	16,761	19,075	25,396	33,848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http://kosis.kr>

- 금융상품 : 보험, 카드, 예금·적금 등이며 미정착 시장
  - 보험, 카드, 예금·적금으로 구분
  - 보험은 삼성화재보험(삼성화재 애견보험), 롯데손해보험(롯데마이펍보험)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대해상(하이펍 애견건강보험), 메리츠화재(튼튼애견보험)는 실적이 저조하여 상품판매 또는 신규판매를 중단함
  -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는 동물병원, 미용, 카페, 호텔, 훈련소 등의 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카드를 운영
  - HK저축은행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예금과 적금 상품을 운영
  - 향후 반려동물시장이 성장하고 동물등록제가 확산되는 등 사육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음<sup>5)</sup>

<sup>5)</sup> 황원경, 2015, "국내의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23호 KB경영연구소

[표 2-7]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2016년 3월 현재)

구분		내용
보험	삼성화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패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li> <li>· 가입대상 : 만 6세 이하 개</li> <li>· 납입방법/보험기간 : 연납/월납, 1년(순수보장성)</li> <li>· 보장내용 : 반려견의 상해·질병치료비는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li> </ul>
	롯데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롯데마이펫보험</li> <li>· 가입대상 : 개와 고양이, 신규(7세 이하) 갱신(11세까지)</li> <li>· 납입방법/보험기간 : 연납/분기납/월납, 1년(순수보장성)</li> <li>· 보장내용 : 상해·질병치료비를 수술·입원·통원으로 구분하여 50% 또는 70%를 지급함. 상한액과 횟수의 제한이 있음</li> </ul>
카드	IBK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참! 좋은 내사랑 PET카드</li> <li>· 혜택 : 동물병원, 미용서비스, 카페, 호텔, 훈련소 등 애완동물 업종으로 등록된 4,500여 개 가맹점에서 10% 할인</li> </ul>
	KB국민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KB국민 반려애(愛) 카드</li> <li>· 혜택 : 동물병원, 애견샵, 동물검사소·동물 장례업체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이용 시 10%를 할인</li> </ul>
	하나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MY PET 생활의 달인</li> <li>· 혜택 : 한국애견협회 준회원 혜택을 제공해 애견 관련 훈련 및 위탁, 동물병원, 미용학원, 스튜디오 및 펜션, 장례 및 법률상담 등 전국 30여 개 제휴 가맹점에서 5~10% 현장할인 또는 2% 포인트 적립</li> </ul>
예·적금	HK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마이펫예적금</li> <li>· 내용 : 반려동물 보유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정기예금의 금리는 최고 연 2.5%, 마이펫 정기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3.1%</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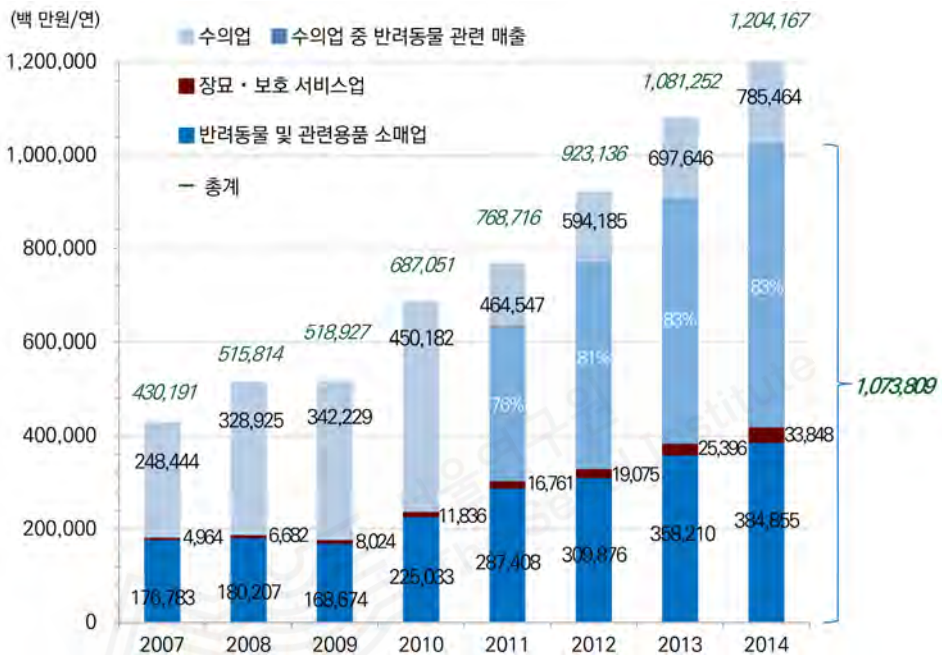
자료 : 김민수 기자, 펫팸족 1000만 돌파...반려동물 금융상품 붐, 대한금융신문, 2016.3.27.  
(재편집 및 일부내용 수정)

○ 관련 산업의 규모 : 연 1조 1천억 원 시장으로 추정

-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사료 및 관련 용품(3,849억 원, 2014년), 수의업(6,551억 원, 2014년), 장묘·보호 서비스업(338억 원, 2014년) 등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총 1조 738억 원으로 추정 가능
- 그러나 2011년도 업계 추산은 1조 2천억,<sup>6)</sup> 농촌진흥청의 추산은 1조 8천억 원

<sup>6)</sup> 서울경제, 김태성 기자, [중소현장] 급성장하는 애완동물 용품 산업, 2011.4.7.

에 달하고<sup>가)</sup> 세부적으로도 사료·식품 시장을 이미 5천억 원 가까운 규모로 추정하는 등 자료마다 편차가 있고,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 역시 정확한 시장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통계상의 합산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http://kosis.kr>

[그림 2-5]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 추이

## 2) 반려동물과 가계지출

- 반려동물 관련 가계지출 규모 : 연 1조 2천억 원
  - 정부(통계청, 2006년도 이후 각 연도)가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당 반려동물 관련 지출규모는 월 4,587원(사료 등 용품 관련 2,692원, 수의 등 서비스 관련 1,895원(회회서비스가 포함된 액수))

가) 지상윤·문홍길, 2011, “견우시대 반려견산업 다시 보기”, 『RDA Interrobang』, 43호, 농촌진흥청

- 1인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 지출액은 3,777원, 2인 이상 가구는 4,841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지출규모가 더 큼(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지출 규모 차이는 소득규모의 차이에 영향을 받음)
- 2015년 우리나라 가구 수는 21,011,152가구<sup>8)</sup>이고, [표 2-8]에서 확인 가능한 전체 가구당 반려동물 관련 월 지출액은 4,587원, 이를 활용하여 산정한 2015년 반려동물과 관련된 총 가계지출액은 1조 1,565억 원 규모<sup>9)</sup>

[표 2-8] 가구당 가계수지 중 반려동물 관련 지출규모

(단위 : 원/월)

가구원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소득	3,235,990	3,289,388	3,399,814	3,413,210	3,432,829	3,439,392
	지출	2,038,065	2,040,048	2,059,336	2,046,126	2,049,518	2,025,372
	애완동물 관련 물품	1,698	1,849	2,120	2,146	2,412	2,692
	애완동물서비스 등	1,195	1,266	1,204	1,576	1,466	1,895
1인	소득	1,458,635	1,436,703	1,453,314	1,471,075	1,473,920	1,603,418
	지출	914,403	932,404	934,977	928,813	950,291	992,549
	애완동물 관련 물품	1,612	1,427	1,718	1,655	2,185	2,256
	애완동물서비스 등	1,534	1,366	677	1,597	1,559	1,519
2인 이상	소득	3,670,142	3,743,910	3,882,921	3,903,897	3,975,595	4,011,352
	지출	2,312,540	2,311,788	2,338,394	2,328,419	2,354,087	2,347,126
	애완동물 관련 물품	1,719	1,952	2,220	2,270	2,475	2,829
	애완동물서비스 등	1,112	1,241	1,334	1,571	1,440	2,012

주 : 애완동물서비스 등은 통계목상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로서, 품목별 분류표 설명에 따르면 이 항목은 애완동물 관련 서비스를 말함

자료 :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실질), <http://kosis.kr>

<sup>8)</sup>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6.4.10 현재, [rcps.egov.go.kr:8081](http://rcps.egov.go.kr:8081)

<sup>9)</sup> 21,011,152가구 × 4,587원/월 × 12개월 = 1조 1,565억 원. 여기서 4,587원/월은 애완동물 관련 물품(2,692원) 및 애완동물 서비스 등(1,895원)의 합



- 반려동물 보유자가 응답한 가계지출 규모 : 연 3조 원 ~ 8조 원으로 추정
  -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응답한 가계지출액은 가구당 월 68,601원 ~ 135,632원이며, 사료구입에 가장 많이 지출
  - 2015년 우리나라의 가구 수 21,011,152가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년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가구 비율 21.8%<sup>10)</sup>, 반려동물 보유자가 응답한 가계지출 규모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관련 총지출규모는 연간 3조 7,431억 원 ~ 7조 4,550억 원으로 추정<sup>11)</sup>
  -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자의 가계지출 조사가 주로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해석한 시장 규모 연 3조 원 ~ 8조 원은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높음

[표 2-9] 반려동물 소유가구가 응답한 가계지출

(단위 : 원/월)

구분	엠브레인 (2009년 기준)		김선희 (2013년 기준)		엠브레인 (2015년 기준)	
계	99,000	100%	135,632	100%	68,601	100%
사료	43,000	43.4%	57,493	42.4%	45,316	66.1%
용품	-		35,528	26.2%	-	
의료	31,000	31.3%	42,611	31.4%	14,022	20.4%
미용	24,000	24.2%			9,263	13.5%

출처 : 엠브레인, 2009, 「2009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조사」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3-21호, 한국소비자원

엠브레인, 2015,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10)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11)  $21,011,152\text{가구} \times 21.8\% \text{ 사육가구} \times 68,601\text{원/월} \times 12\text{개월} = 3\text{조 } 7,706\text{억 원}$  |  $21,011,152\text{가구} \times 21.8\% \text{ 사육가구} \times 135,632\text{원/월} \times 12\text{개월} = 7\text{조 } 4,551\text{억 원}$

### 3) 반려동물 시장전망

-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관련 용품, 수의업, 장묘·보호 서비스업 등의 2014년 기준 시장규모는 1조 738억 원
- 가계수지 통계를 따를 경우 시장규모는 1조 1,565억 원, 반려동물 보유자의 설문 조사에 따를 경우 시장규모는 3조 7,706억 원 ~ 7조 4,551억 원
- 황명철·김태성(2013)도 2014년 국내 반려동물의 시장규모를 1조 4,300억 원 정도로 예상
- 결국 분야별 매출액, 통계청 가계수치를 활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와 황명철·김태성(2013)의 연구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1조 2천억 원 ~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보임
- 또한 황명철·김태성(2013)은 2020년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를 5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 이 추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3~4년 내에 3배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sup>12)</sup>



출처 : 황명철·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리포트』, 215호, 농협경제연구소

[그림 2-6]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전망

<sup>12)</sup> 황원경, 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23호, KB경영연구소 재인용

### 3\_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 1) 유기동물 발생

- 유기동물 수 :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5년 약 9천 마리 발생(유기율 0.8%)
  - 서울의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보호동물)의 수는 2015년 8,902마리
  - 유기동물 수는 2010년 18,624마리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음. 2013년부터 도입된 동물등록제 등의 영향이자 효과로 보임
  - 서울의 유기율(% , 전체 반려동물의 수 대비 유기동물의 수)은 2015년의 경우 0.8%<sup>13)</sup>로 2004년의 0.9%보다 다소 감소. 한편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유기율은 일본 도쿄 0.2%(사육포기동물 0.04% 포함)<sup>14)</sup>, 미국 4.6%(유기동물 2.6% 포함)<sup>15)</sup> 등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동물보호과 내부자료

[그림 2-기]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량

- 유기동물 처리방법 : 인도와 입양 등이 증가하나 여전히 안락사 비중이 높음(25%)
  - 구조되거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은 서울시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51개소의

<sup>13)</sup> 반려동물 사육 마리 수(개) : 4,189,948가구(2015년) × 20.4%(반려동물 보유가구, 본 연구의 조사결과) × 1.27마리(가구당 개 사육 마리 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 1,085,532마리 | 2015년 유기동물 수 : 8,902마리 ÷ 1,085,532마리 × 100 = 0.8%

<sup>14)</sup> 보호동물 수 : 3,420마리(보호동물 수, 사육포기동물+유기동물) ÷ 1,650,000마리(반려동물 수) × 100 = 0.2% | 617마리(보호동물 수, 사육포기동물) ÷ 1,650,000마리(반려동물 수) × 100 = 0.04%. 출처 :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http://nbakki.hatenablog.com/entry/2014/04/11/223538>, <http://nbakki.hatenablog.com/entry/2013/11/21/000000>

<sup>15)</sup> 보호동물 수 : 7.3백만 마리 ÷ 160백만 마리 × 100 = 4.6% | 유기동물 수 : 4.1백만 마리 ÷ 160백만 마리 × 100 = 2.6%. 출처 : ASPCA, Shelter Intake and Surrender, [www.aspc.org/animal-homelessness](http://www.aspc.org/animal-homelessness), 2016.4.12. 검색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계약을 맺은 자치구가 다수 있어 실제 조직은 33개소)<sup>16)</sup>에서 일정기간 보호됨

-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동물(또는 유기동물)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sup>17)</sup>이기 때문에 최소 이 기간 동안 보호시설은 반입동물의 보호가 필요하고, 10일 이상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동물의 소유권이 자치구로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면<sup>18)</sup> 동물보호센터의 실제 보호기간은 10일 이상
- 서울시 자치구들이 실제로 보호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13~15일(전국은 19~23일)<sup>19)</sup>
- 서울시 보호동물들은 해가 갈수록 주인에게 인도(2011년 12% → 2015년 25.3%)되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2011년 24.8% → 2015년 27.5%)되는 등 긍정적인 방향의 처리가 늘고 있으나 안락사(2011년 25.9% → 2015년 31.8%) 등 지양해야 할 방법을 통한 처리 또한 줄지 않고 있음

[표 2-10] 전국·서울시 유기동물 처리방법

(단위 : %)

처리방법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주인에게 인도	7.6	12.0	8.8	13.7	10.3	18.6	13.0	23.2	14.6	25.3
새 주인에게 입양	26.1	24.8	27.4	29.6	28.1	27.1	31.4	28.2	32.0	27.5
적격시설에 기증	1.6	2.7	1.5	3.2	0.6	0.4	1.0	0.7	1.2	0.5
보호기간 중 자연사	19.5	24.1	23.2	24.9	22.8	17.2	23.0	14.3	22.7	14.3
안락사 처리	26.6	25.9	24.5	27.0	24.6	36.7	22.7	33.6	20.0	31.8
TNR*	12.5	0.5	9.6	1.6	9.1	-	1.0	-	1.3	0.0
기타 보호 중	6.1	-	4.9	-	4.5	-	7.9	-	8.2	0.6

\*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하는 개체수 조절 방법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연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동물보호과 내부자료

16)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2016.4.13. 검색

17) 동물보호법 17조(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8)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9)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연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각 자치구는 보호동물 1마리당 보호·관리에 84,000원~94,00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전체 유기동물 처리에 2008년 13억 원, 2014년 9억 원, 2015년 8억 원의 비용을 지출<sup>20)</sup>
- 2016년 1월, 서울시는 동물보호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림. 이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비용은 보호동물 1마리당 16만 원(기타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14만 원)으로 증가
- 유기동물로 인한 구조·보호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 중인 동물은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 주인 혹은 적격시설에 입양·기증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비용을 줄려면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적절하고 까다로운 조건하의 사육포기동물 인수와 상담 등을 통해 유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함

[표 2-11] 보호기간이 20일일 때의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단위 : 원/마리)

구분	계	구조·포획	보호	진료	안락사	사체처리	기타
재료비	37,822	4,458	22,200	4,000	444	6,720	-
노무비	102,394	26,812	71,499	4,083	-	-	-
계	162,368	31,270	93,699	8,083	444	6,720	22,152

출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내부자료

## 2) 행정 업무부담 증가

-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 : 길고양이 관련(38%), 동물분실 및 구조요구(35%)가 가장 많음
  - 2015년의 경우 자치구당 442~1,451건의 민원이 접수됨
  - 길고양이 관련 불만사항(38%), 동물분실·배회동물 처리(35%)의 민원형태가 가장 많음

<sup>20)</sup>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100만 마리 시대!!!, 보도자료, 2016.5.10.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 가시적 효과 나타나, 보도자료, 2015.5.8.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9, 2008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등

- 이웃이나 타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17%), 동물학대자를 고발하는(10%) 민원도 다수

[표 2-12]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유형(2015년)

(단위 : 건)

구분	계	길고양이 관련	동물분실/배회동물 구조요청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동물학대 금지 요구 등 기타
계	6,115	2,351	2,149	1,018	597
	100%	38.4%	35.1%	16.6%	9.8%
강동구	680	333	293	38	16
강북구	642	282	187	100	73
강서구	442	147	141	130	24
금천구	531	280	177	51	23
동대문구	592	171	148	151	122
동작구	1,451	603	489	140	219
서대문구	692	244	298	77	73
종랑구	1,085	291	416	331	47

출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내부자료

- 민원처리에 행정인력 투입

- 대부분의 자치구는 1인의 담당인력이 반려동물 관련 업무 및 동물 관련 영업자의 인허가업무를 담당
-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1일 약 2시간을 투입<sup>21)</sup>

### 3) 사회적 갈등의 증가

- 반려동물로 인한 소송 증가

- 국내 가구 22%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상황에서 상해, 교통사고, 두려움, 동물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정다툼이 급증<sup>22)</sup>

21) 강북구, 구로구, 광진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한 구두조사 결과임

22) 조백건 기자, "개가 원치않는 임신했다"며 소송戰, 조선일보, 2016.4.6.

### 반려동물 관련 소송 예

- 사례1 : 2015년 3월 19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황 모 씨가 기르던 진돗개가 담장을 넘어 옆집 애완견 시추의 배와 엉덩이를 물었다. 시추는 치료를 받다 보름 후 죽었다. 옆집 부부는 애완견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황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씨는 “옆집 개가 발정이 나 우리 개가 총동적으로 담을 넘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맞섰지만, 수원지법은 황 씨에게 11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 사례2 : 권 모 씨는 2014년 9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뛰어드는 요크셔테리어를 치었다. 개 주인은 9년 키운 애완견의 장례식을 치른 뒤 권 씨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보험사가 “개 목줄이 풀려 발생한 사고”라고 항소하면서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다. 2015년 12월 2심은 “보험사는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 사례3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5년 1월 한 애견 호텔 주인이 낸 고소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각하(却下) 결정했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개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돌아와 보니 애완견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병까지 앓고 있었다. 주인은 “호텔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버텼고 업체 측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 사례4 : 서울 타워팰리스 주민이 ‘체중 30kg이 넘는 이웃집 골든 레트리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떨린다’며 사육 금지 가치분 신청을 낸 적이 있다.
- 사례5 : 김 모 씨는 2015년 1월 애완견 비용을 애견 미용실에 맡겼다. 몇 시간 뒤 그는 “(애완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용사를 겁주고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 사례6 :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 모 씨는 2015년 5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의 목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화가 덜 풀린 그는 주변에 놓인 의자로 주민의 승용차 문과 범퍼를 부셨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례7 : 전남 여수에 사는 한 모 씨는 2015년 8월 담을 넘어가 평소 자신을 보고 자주 짖던 이웃집 개를 각목으로 내려쳤다. 애완견 눈 주위에 각목 파편이 박혀 있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한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조백건 기자, “개가 원치않는 임신했다”며 소송戰, 조선일보, 2016.4.6.

## 4\_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제도

### 1) 반려동물 관련 법규

- 법규 : ‘동물보호법’이 근간이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과 세부규정은 조례에 규정됨
  -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법규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 서울시의 동물보호조례, 자치구의 동물보호조례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동물보호 기본원칙, 국가동물복지 계획 수립, 정부와 국민의 책무, 사육·관리방법<sup>23)</sup>, 등록, 유기·유실·학대 동물의 보호, 영업자의 관리 등을 다룸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는 시장의 책무,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록, 동물 구조·보호, 관련 시설 운영, 길고양이 관리, 서울시의 지원 등을 다루며 시설운영, 수수료 책정 및 감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자치구 동물보호조례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와 유사하게 구청장의 책무, 등록, 동물 구조·보호, 관련 시설 운영, 길고양이 관리, 자치구의 지원 등을 다루며 시설운영, 수수료 책정 및 감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sup>23)</sup> 세부내용은 <부록>에 수록



[표 2-13]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규와 내용

구분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조례(구로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의 기본원칙</li> <li>·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li> <li>· 동물복지위원회 운영</li> <li>· 적절한 동물 사육 및 관리</li> <li>· 동물학대 등의 금지: 살해·상해·체액채취·사행·영상물판매</li> <li>· 동물의 운송 및 운송방법</li> <li>· 동물의 도살</li> <li>· 동물의 수술</li> <li>· 등록대상동물의 등록</li> <li>· 등록대상동물의 관리</li> <li>· 동물의 구조·보호</li> <li>·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시설기준·국가의 설치·운영비지원·위탁기관·위탁비용 지급·센터 운영위원회·센터 운영기준 등</li> <li>· 유실·유기·배회·학대 신고 등</li> <li>· 보호동물 공고·반환·보호비용 부담·소유권 취득</li> <li>· 보호동물 분양기증·인도적 처리 등</li> <li>· 출입검사 등</li> <li>· 동물보호감시원</li> <li>· 동물보호명예감시원</li> <li>· 등록 등 수수료</li> <li>·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의무</li> <li>· 동물복지계획 수립</li> <li>·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li> <li>·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신고 등</li> <li>·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감독 등</li> <li>· 동물의 구조·보호</li> <li>· 보호동물의 공고·반환 등</li> <li>· 보호동물의 관리</li> <li>· 피학대동물 보호·관리</li> <li>· 소요경비의 징수: &lt;별표1&gt;</li> <li>· 동물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li> <li>· 길고양이 관리 등</li> <li>· 출입검사 등</li> <li>·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li> <li>·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li> <li>· 등록수수료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장의 의무</li> <li>· 동물복지계획 수립</li> <li>·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li> <li>· 등록대상동물의 등록</li> <li>·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감독 역할 등</li> <li>· 보호동물의 관리·반환</li> <li>· 피학대동물 보호·관리</li> <li>· 동물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li> <li>· 반려동물 등 책임성 강화 교육·홍보</li> <li>· 명예감시원 위촉</li> <li>· 길고양이 관리 등</li> <li>· 출입검사 등</li> <li>·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li> <li>·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경비지원 등</li> </ul>

-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주요규정: 사육방법, 동물학대 금지, 배회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sup>24)</sup>, 동물분양센터 운영 등
-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핵심규정은 동물 사육관리방법, 동물학대 금지, 유기·

24) 세부내용은 <부록>에 수록

- 유실·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분양센터 운영 등
- 동물 사육관리방법(동물보호법 제7조 등)은 동물 사육방법, 동물 치료방법, 이동 및 적응 방법 등을 다루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 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 등)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학대행위, 유기행위 등을 금함
- 유기·유실·학대동물의 구조·보호(동물보호법 제14조 등)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구조해야 할 동물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
-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 제15조 등)는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할 보호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대행기관의 지정방법 등을 규정함. 특히 보호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와 별표5(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서 상세 규정
- 동물분양센터(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유기·유실·학대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
- 동물복지 실태조사(동물보호법 제45조, 서울시 및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제4조)는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기타 동물복지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규정
- 교육·홍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제23조)는 시장, 구청장,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명예감시원이 행할 교육·홍보·지도·경비지원 등을 규정

[표 2-14]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

구분	내용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 보장</li> <li>-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행</li> <li>- 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이행</li> </ul> </li> <li>· 기타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제3조[별표1]</li> </ul>
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li> <li>-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li> <li>-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li> </ul> </li> <li>· 학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li>-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 채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li> <li>-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li> </ul> </li> <li>· 유기·유실동물 또는 주인 없이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li> <li>- 알선·구매하는 행위</li> </ul> </li> <li>· 소유자 등의 동물 유기 행위</li> <li>· 이상의 내용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li> </ul>
유기·유실·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3·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구조·보호해야 할 반려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li> <li>- 학대를 받은 동물(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li> <li>-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li> </ul> </li> <li>·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시행규칙 제14조)</li> <li>·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로서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제외</li> </ul>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5~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할 동물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 시행규칙 15조[별표4]</li> <li>- 국가는 시장이 설치하는 센터의 설치·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li> </ul> </li> <li>· [별표4]를 만족하는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li> <li>- 시장은 지정 센터의 구조·보호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li> <li>-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 시행규칙 19조[별표5]</li> <li>- 연 2회 이상 [별표4]의 기준 및 [별표5]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li> </ul> </li> </ul>

[표 2-14 계속]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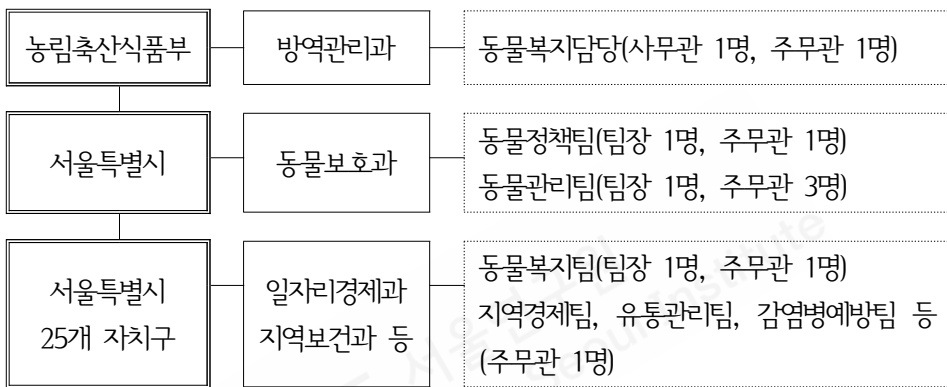
구분	내용
동물분양센터 (동물보호법 21조, 시행령 9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기증이나 분양 가능(동물보호법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원, 동물 애호자, 민간단체 등으로 제한</li> </ul> </li> <li>· 기증이나 분양이 가능한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li>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li> <li>-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조건 전문훈련기관</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ul> </li> <li>·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서울시 동물보호조례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li> </ul> </li> </ul>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보호법 45조, 서울시 및 구로구 조례 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할 사항(동물보호법 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li> <li>-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li> <li>-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li> <li>-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li> </ul> </li> <li>·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서울시조례 4조)</li> <li>·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구로구조례 4조)</li> </ul>
교육·홍보 (동물보호법 시행령 14조, 서울시 조례 22조, 구로구 조례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동물보호법 시행령 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li> </ul> </li> <li>· 동물명예감시원의 직무(동물보호법 시행령 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li> </ul> </li> <li>· 시장 또는 구청장 책무(서울시 조례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경비 지원</li> </ul> </li> <li>· 구청장의 책무(구로구 조례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li> </ul> </li> </ul>

## 2) 반려동물 관련 행정조직

### ○ 행정조직

- 정부는 농림수산축산부 방역관리과의 동물복지담당(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등 2명)이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 이들의 업무는 복지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 등임

-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1명)과 동물관리팀(팀장 1명, 주무관 3명)이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 주요업무는 복지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동물복지 실태조사,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자치구 등에 대한 지원 등
- 서울시 자치구는 일자리경제과/지역보건과 동물복지팀, 지역경제팀 등에서 주무관 1명이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 주요업무는 동물복지 실태조사, 유기동물 등의 보호·구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역단체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 등



[그림 2-8]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표 2-15] 조례에 나타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반려동물 관련 책무

구분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으로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증진, 관련 시책 추진, 시민참여 보장</li> <li>·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복지 실태조사</li> <li>·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li> <li>·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li> <li>·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li> <li>· 길고양이의 관리</li> <li>· 출입·검사</li> <li>·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li> <li>· 동물보호업무의 지원(구청사업, 보호센터, 영업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으로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증진, 관련 시책 추진, 시민참여 보장</li> <li>·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등록대상동물의 등록</li> <li>·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감독</li> <li>· 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li> <li>·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반환</li> <li>·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li> <li>· 길고양이의 관리</li> <li>· 출입·검사</li> <li>·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li> <li>· 동물보호업무의 지원(교육·홍보·위원회 등)</li> </ul>

# 03

---

##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 사례

- 1\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공공부문)
- 2\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민간부문)
- 3\_국외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

## 03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 사례

### 1\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공공부문)

#### 1) 서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 목적 :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구조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일반시민의 가정에 입양함으로써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추진하는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배경 : 유기동물 발생 시 대부분 자치구와 계약한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 양주시 상수리 소재)로 옮겨져서 일정기간 보호·공고기간을 거친 후 살처분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인 민원제기
- 위치 :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1층
- 개소 : 2012년 10월 15일
- 규모 : 175m<sup>2</sup>
- 주요시설
  - 전시실 : 투명유리를 통하여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동물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등 설치,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는 암수 구분하여 전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유지)
  - 미용실 : 센터에 인수 동물의 목욕 및 미용 실시
  - 놀이방 : 개를 훈련시키거나 입양될 동물이 입양자와 만나는 장소
  - 맞이방 : 입양상담, 동물관람, 홍보 및 교육
  - 사무실 : 직원 행정업무 및 서류보관
  - 계류실 : 검역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동물을 계류시키는 장소
  - 검역실 : 동물구조협회에서 이송된 동물을 임시 계류



[그림 3-1] 서울대공원 반려동물입양센터 주요 모습

## 2)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 개장 : 2013년 7월 31일
  - 규모 : 747㎡
  - 기능 :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반려견 배변 장소 등
-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 개장 : 2014년 4월 30일
  - 규모 : 1,638㎡
  - 기능 :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파라솔, 테이블 등



-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 개장 : 2016년 4월 23일
  - 규모 : 1,300m<sup>2</sup>
  - 기능 :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50m 질주공간, 음수대, 반려견 배변 장소, 놀이시설 등

### 〈 반려견 놀이터 이용안내 〉

반려동물을 아끼는 여러분의 상원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이용하는 성숙된 문화가 「반려견 놀이터」 추가설치 등 동물보호 환경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함에 있어 아래의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쾌적한 반려견 놀이터 이용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 놀이터에는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13세 이상 견주가 입장하여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셔야 합니다.>
2. 놀이터 출입 시 배변봉투와 목줄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다른 반려견들과의 마찰(싸움)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고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4. 사나운 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6.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7. 놀이터 이용은 수요일~일요일(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림 3-2]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문 예시

3) 고양시 동물보호센터<sup>25)</sup>

- 개소 : 2014년 1월 20일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 규모 및 연간 예산 : 2개 층 629m<sup>2</sup>, 약 4억 원
- 수용 마리 수 : 150마리(개 100, 고양이 50)
- 주요 장비 : 차량 2대
- 목적 :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 생명존중 의식 고취 및 공중위생에 기여
- 기능 : ①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사업, ② 응급한 유실·유기동물 진료사업, ③ 동물보호 견학·체험장 제공사업, ④ 반려동물 문화의식 고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⑤ 동물학대 행위 감시 및 구조를 위한 민간단체 교육 개발사업, ⑥ 그 밖의 동물복지 관련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설 : 대형견 대기실, 중소형견 대기실, 고양이 대기실, 사무실,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미용실, 회의실, 봉사자 대기실, 세탁실, 창고 등



출처 :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부자료

**[그림 3-3]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인력 현황**<sup>25)</sup> [http://agr.goyang.go.kr/about/mainFacility\\_13.jsp](http://agr.goyang.go.kr/about/mainFacility_13.jsp)



건물 외부

개 대기실

고양이 대기실

회복실

[그림 3-4]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표 3-1]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황

구분	명칭	용도	면적(㎡)
1층	대형견 대기실	대형견 보호실	42.1
	중·소형견 대기실	중·소형견 보호실	35.3
	그루밍실	미용(털깎기 등)	13.2
	사무실	입양상담 및 사무공간	18.7
	진료실	진료실	12.2
	수술실	수술실	20.3
	회복실1	수술 및 처치 후 회복실	13.1
	회복실2	격리 치료	8.8
	당직실	당직실	9.9
	기계실	기계실	28.9
	기타시설	복도, 방풍실 등	150.04
	계		352.54
2층	고양이 대기실1	성묘 대기실	22.5
	고양이 대기실2	자묘 대기실	22.5
	고양시 대기실3	입양대기묘 대기실	22.5
	대회의실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43.6
	봉사자 대기실	자원봉사자 대기실	8.9
	회복실	TNR 실시 및 회복실	18.6
	그루밍실	미용(털깎기 등)	13.7
	세탁실	세탁실	9
	사료창고	사료저장	9
	창고	기자재 창고	7.8
	기타시설	복도, 화장실 등	98.68
	계		276.78
총계			629.32

출처 :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부자료

#### 4) 건립 추진 중인 시설

- 경기도(여주시) : 39만 1,522㎡ 부지에 ‘경기도반려동물에듀파크’를 조성, 2018년 10월 완공 예정(반려동물보호구역 4만 6,200㎡에 유기견 보호시설, 동물병원, 관리동 등 입지, 연계산업클러스터구역 2만 6,400㎡에 애견박물관, 애견가게, 애견체험관, 장묘시설, 애견학교 등 입지)<sup>26)</sup>
- 경상북도 : 반려동물 문화시설, 병원, 교육시설 등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sup>27)</sup>
- 광주광역시 : 유기동물훈련공간, 반려동물친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도우미견 희망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1년 설립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반려견을 대상으로 훈련 및 분양 예정<sup>28)</sup>
- 대전광역시 : 협소한 기존 동물보호센터 이전계획 수립<sup>29)</sup>,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플랜더스파크’(반려공원, 애견행동교정센터, 추모공원, 펫박물관, 펫호텔, 펫체험관, 펫전문점, 동물병원) 사업 계획 추진<sup>30)</sup>
- 용인시 : 복지·장묘복합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만 건립 추진 중<sup>31)</sup>
- 울산시 : 반려동물 교육 기능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추진, 2017년 12월 준공 예정<sup>32)</sup>
- 청주시 : 유기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중<sup>33)</sup>, 현재 잠정 중단

26) 남명우 기자, 경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시에 들어선다, 뉴시스, 2015.9.9.

27) 진식 기자, 경북에 반려동물의 유토피아 만든다, 영남일보, 2015.3.25.

28) 신대희 기자, 광주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 들어서나?, 뉴시스, 2016.3.2.

29) 양승민 기자, 유기동물 포화상태 이른 대전동물보호센터 이전 추진한다, 충청투데이, 2015.12.14.

30) 김지유 기자, 대전시, 파트라슈 뛰노는 ‘플랜더스 파크’ 조성 추진, 뉴스1, 2014.11.30.

31) 이정하 기자, 용인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난관…대체부지 주변도 반발, 뉴시스, 2015.10.25.

32) 이상현 기자, 울산시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 2017년 건립, 연합뉴스, 2015.2.28.

33) 오상우 기자, 청주시 유기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대전일보, 2016.4.7.

## 2\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민간부문)

### 1)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sup>34)</sup>

- 개소 : 2013년 10월 26일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148-2
- 규모 및 연간 예산
  - 토지 3,305.8㎡, 본 건물(지하 1층 ~ 지상 3층으로 총 4개 층) 793.4㎡, 창고건사, 주택건사, 사택 각각 지상 1층으로 99.2㎡, 그 외의 토지는 모두 운동장으로 활용
  - 연간 예산은 대략 5억 원(인건비가 3억 원 정도 비중을 차지)
- 인력 현황
  - 총 17명으로, 사무국 4명(총괄 1인, 동물학과와 구조 1인, 동물입양·1:1 결연 등 사무 2인), 동물병원 1명, 동물훈련 1명, 동물관리팀 11명으로 구성
  - 센터 시설은 사택 근무자 3명이 관리·담당
- 주요 업무 : 동물학대 사건 처리 및 동물구조, 동물 관련 시민상담(월 600건 이상), 동물관리, 동물입양, 1:1 결연, 자원봉사, 교육, 캠페인 등
- 교육과 자원봉사를 연계한 교육봉사 월평균 4회 진행
- 300마리 이상 상시 보호, 연평균 100마리 구조, 80~100마리 입양 진행



[그림 3-5]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sup>34)</sup> <http://www.animals.or.kr/newmain/07welfare/welfare01.asp>

## 2) 카라 더불어 숨<sup>35)</sup>

- 개소 : 2014년 8월 13일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5-5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5층으로 총 6개 층. 교육장, 입양카페, 동물병원, 도서관, 사무실, 회의실, 옥상 반려동물 놀이터 등
  -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사무실로도 함께 쓰이고 있음
- 인력 현황
  - 교육과 정책 등 사단법인 활동과 관련된 인력을 제외하면, 입양카페 3인(입양상담, 동물케어), 동물병원 5인(수의사, 테크니션), 도서관 2인(도서관리, 공연·전시·북콘서트 등 기획)
- 주요 업무 : 동물 구조·보호·입양, 도서관 및 문화캠페인 행사, 교육 등



[그림 3-6] 카라 더불어 숨

<sup>35)</sup> <https://ekara.org/kara/breathCenter>

### 3)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sup>36)</sup>

- 개소 및 위치
  - 퇴계로 제1입양센터 : 2012년 7월 7일, 서울 중구 동호로 320-28
  - 답십리 제2입양센터 : 2013년 5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43
- 운영 경비 : 퇴계로점 월 1천만 원, 답십리점 월 2천5백만 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443번지에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 시민 접근이 용이한 서울 시내의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추구
- 주요 업무 : 동물 구조·보호·입양.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 참여(보호동물 산책, 청소, 미용, 목욕 등)



퇴계로점

답십리점

[그림 3-기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sup>36)</sup> <http://fromcare01.cafe24.com/>

[표 3-2] 전국 유기동물 관련 시설·단체

권역	이름	인터넷 주소
전국	APMS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동물보호센터	www.angel.or.kr
	KARA 카라	www.ekara.org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동물보호센터 네이버카페	cafe.naver.com/forangels
	동물사랑실천협회	www.fromcare.org
	유사모	cafe.naver.com/lovedogcafe
	동물보호센터 다음카페	cafe.daum.net/forangels
	바른 애(愛) 반려동물 바른사랑 실천하기	balenae.cyworld.com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야생.com
	인터넷 유기견 보호소	cafe.daum.net/dbtlrusqhgth
수도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www.karama.or.kr
	인천시 동물사랑방	pet.incheon.go.kr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	cafe.daum.net/dooc77
	행복한 유기견세상	cafe.daum.net/ccchappydog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cafe.daum.net/jesushappydog
	♡유기동물 사랑나누기	cafe.daum.net/behappydog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동물보호협회	koreananimals.or.kr
	포항시 유기동물 사랑모임	cafe.daum.net/Dogroom
	경북 유사모	cafe.naver.com/dogroomcafe
	대구 유사모	cafe.naver.com/dogsophanna
	김천동물사랑실천협회	cafe.naver.com/kimcheonpetlove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www.dog119.org
	해피도그	cafe.naver.com/ssnnn1
	길천사들의 쉼터	cafe.naver.com/lifeforangels
	동물학대방지연합 부산지부	www.animallife.or.kr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동물보호소	www.kcanimal.or.kr
	광주전남 동물보듬이	cafe.daum.net/bodumi
	광주동물사랑	cafe.daum.net/pinkdog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	djani.daejeon.go.kr
	대전 동물보호소 봉사자모임	cafe.daum.net/djanimal
	대전 유기견 사랑뜰	cafe.naver.com/animalgarden
	대전 유기견 사랑쉼터	cafe.naver.com/animalgarden
	도그레오	cafe.daum.net/Dogleo
	청양보호소	cafe.daum.net/pairhouse
충청북도	한결동물보호소	cafe.daum.net/hankyulST
	한국동물보호협회	koreananimals.or.kr
강원도	강원도 유기동물 사랑방	cafe.daum.net/animalismyfrien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유기동물보호	cafe.daum.net/jeju-ugdongmul

출처 : 대한민국 동물찾기 네트워크, angel.or.kr/network



### 3\_국외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sup>37)</sup>

#### 1) 일본

##### (1) 일본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sup>38)</sup>

###### ○ 시설 개요

- 도쿄도청에서 운영하는 직영시설(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환경보건위생과 산하)
- 1974년 개소한 동물애호상담센터는 도쿄도 23개 특별구(도시부)를 담당하며, 타마지소(多摩支所)는 23개 특별구를 제외한 24개 시, 3개 정(町), 1개 촌(村)의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함
- 동물애호상담센터 산하의 조우난지마출장소(城南島出張所)는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전용소각시설임

[표 3-3]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건물

구분	본부	조우난지마출장소	타마지소
면적(m <sup>2</sup> )	1,021.92	4,000.07	2,810.91
업무동(m <sup>2</sup> )	445.91(1974년)	1,123.52(1983년)	504.00(1984년)
행정동(m <sup>2</sup> )	360.00(1990년)	642.98(1983년)	296.00(1984년)
만남의 광장(m <sup>2</sup> )	105.00(1990년)	320.00(1995년)	240.00(1984년)
외관			

37) 조운주 교수(서정대 애완동물학과)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는 가필이 이루어졌다.

38)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douso/shisetsu>

○ 설치근거

-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73년 10월 1일 법률 제105호)
- 동경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6년 3월 6일 동경도 조례 제4호)

○ 역할 및 기능

- 동물보호 및 관리 : 배회동물 및 학대동물의 구조·보호·반환·입양·처분, 사육포기동물 인수<sup>39)</sup>
- 교육홍보 : 학생대상 동물교실 운영, 동물애호주간(9월 20일~28일) 이벤트 참여, 시설견학, 소유자대상 강습회 등
- 동물취급업 관리 : 등록, 책임자 교육, 특정동물 사육허가
- 길거리 고양이 공생사업 추진 : 고양이 사육법 교육 등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조사

○ 운영

- 운영시간 : 창구업무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업무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45분
- 인력 : 본부 28명(수의사 17명), 타마지소 23명(수의사 15명), 조우난지마출장소 12명(수의사 7명)
- 성과 : 취급동물 수가 1985년 58,762마리에서 2014년 1,804마리로 급감
- 보호동물 처리 : 2014년의 경우 주인에게 반환 12%,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 35%, 안락사 53%

<sup>39)</sup> 소유자 사망, 이사, 알려지 유발, 동물의 공격성 등이 인정될 때만 인수

[표 3-4]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취급동물 수

(단위 : 마리)

연도	성견	자견	성묘	자묘	토끼 등	합계
1985	12,387	10,552	4,247	31,569	7	58,762
1990	7,275	4,142	2,065	17,495	30	31,007
1995	5,644	1,021	1,453	13,056	24	21,198
2000	4,989	286	1,437	10,451	19	17,182
2005	2,879	77	922	5,264	10	9,152
2010	1,242	9	695	2,093	6	4,045
2011	956	2	594	1,736	7	3,295
2012	783	6	660	1,629	6	3,084
2013	696	11	512	1,127	0	2,346
2014	464	11	447	880	2	1,804

[표 3-5]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처리방법

(2014년 기준, 단위 : 마리)

구분	개	고양이	토끼 등	합계
센터에서 주인에게 반환	179	19	0	198
포획현장에서 주인에게 반환	18	0	0	18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	252	384	0	636
안락사	52	927	2	981
합계	501	1330	2	1,833

○ 재원 확보

- 지출규모는 200억 엔~300억 엔 규모임
- 각종 수수료 수입(동물취급업 등록비, 소유자 반환수수료,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 등)에 의한 지출액 총당규모는 2011년 27%, 2012년 17% 수준임

[표 3-6]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엔)

구분		2012년		2011년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44,445,000	39,627,000	50,844,875	48,946,144
	제수입		4,818,000		1,898,731
지출	생활 환경비	261,908,000	261,908,000	198,624,762	198,624,762
	기타		0		0

[표 3-7]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소유자 반환수수료

(단위 : 엔)

수용기간	당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수수료	3,200	3,880	4,560	5,240	5,920	6,600	7,280

[표 3-8]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

(단위 : 엔)

구분	분류		인수수수료(마리당)
개	생후 91일 이상	체중 50kg 이상	5,800
		체중 50kg 미만	3,000
	생후 91일 미만		600
고양이	생후 91일 이상		3,000
	생후 91일 미만		600

(2)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犬猫孤兒救助隊)<sup>40)</sup>

## ○ 조직의 개요

- NPO(비영리) 법인
-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인락사에 반대하여 평생사육을 지향
- 히로시마시와 나스시오바라시에 평생사육 시설이 있음
- 평생사육 시설에는 600마리가 넘는 고양이 수용 중

<sup>40)</sup> 犬猫みなしご救援隊, Dogs and cats orphan rescue party, <http://www.minashigo.jp/info/index.html>



[그림 3-8]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보호소 내 동물사육시설

○ 역할 및 기능

-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 개와 고양이를 인수하여 평생사육
- 재개발지역이나 자연재해현장에서 발생한 배회동물 구조
- 보호동물 입양
- 지역고양이사업 추진 : 중성화수술, 먹이 제공,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 설득 등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강연 교육
- 고령자 반려동물 케어서비스 : 고령자의 고민, 미래 불안 등 상담

○ 운영성과<sup>41)</sup>

- 2015년에 개와 고양이 1,237마리를 인수하고 886마리를 입양했으며, 고양이 1,059마리의 TNR을 시행함
- 인수, 입양, TNR 동물의 수가 매해 증가하는 경향임

<sup>41)</sup> 犬猫みなしご救援隊, Dogs and cats orphan rescue party, <http://www.minashigo.jp/hogo/index.html>

[표 3-9]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동물보호실적

(단위 : 마리)

구분		인수	입양	TNR
2012	개	100	73	-
	고양이	43	14	861
	계	143	87	861
2013	개	19	13	-
	고양이	428	153	415
	계	437	166	415
2014	개	10	25	-
	고양이	1,248	644	785
	계	1,258	669	785
2015	개	39	43	-
	고양이	1,196	843	1,059
	계	1,235	886	1,059

## ○ 재원확보

-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
- 회원 모집 : 일반 회원 연회비 3,000엔, 프리미엄 회원 연회비 10,000엔
- 봉사자 모집 : 월~토 오전 9시~오후 7시, 일회성 봉사보다 장기적으로 봉사가 가능한 봉사자를 선호함
- 용품 기부 : 쓰지 않는 반려동물 용품을 기부받음

## ○ 지자체와 협력사업

-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 개와 고양이를 인수하여 평생사육
- 재개발지역이나 자연재해현장에서 발생한 배회동물 구조
- 지자체와 지역고양이사업 추진 : TNR, 먹이 주기 등

(3) Animal Refuge Kansai(ARK)<sup>42)</sup>

## ○ 조직의 개요

- 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sup>42)</sup>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

-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1999년 8월 등록)이자 회원제 단체
- 1990년 현재의 대표인 엘리자베스 올리버가 설립
- 2008년 일본 최초로 RSPCA(영국 왕립 동물 학대 방지 협회) 회원으로 인정
- 2008년 사사야마 동물복지센터 토지 매입
- 30명의 전담직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
- 사사야마 ARK, 오사카 ARK, 도쿄 ARK가 있음
- 사사야마 ARK는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보호시설이며, 견사(200마리 수용), 고양이사(32개 사육장), 교육시설, 운동장(2,000m<sup>2</sup>), 창고 등을 갖춘
- 오사카 ARK는 개 200마리, 고양이 150마리 수용 가능
- 도쿄 ARK는 입양, 임시보호 등의 기능을 하고 동물보호소의 기능은 없음

[표 3-10] 사사야마 ARK의 시설내역

시설	규모 및 내용
견사	200마리 수용 스테인리스 재질 사육장 바닥 난방 설치 큰 채광창 사용
고양이사	32개 사육장(단독, 2마리, 3마리 이상 사육장) 스테인리스 재질 사육장 바닥 난방 설치(예정) 큰 채광창 사용 외부 놀이터(식물원) 설치
교육시설	전체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 단열성 중시
독랜드(Dog land)	면적 2,000m <sup>2</sup> 개 운동장 겸 행사장 228m 울타리 설치 탈출 방지를 위해 이중문으로 제작
창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문으로 제작 경수를 저장하는 공간 마련



사무실



산책길



직원 휴식공간



켄넬1



켄넬2



치료 보호실



식사준비실



그루밍실



보호소 지도

[그림 3-9] 오사카 ARK의 동물보호소 내부 사진

### ○ 역할 및 기능

- 동물보호소 운영 :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 입양 : 큰 개와 고양이 입양 노력, 입양자 적격성 검토, 사전만남 등
- 개와 고양이 중성화수술 장려
- 반려동물 사육자에게 올바른 사육방법 전달 : ZASSHU BEAUTY 캠페인, 뉴스레터 발간
- 일반시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 ○ 운영실적<sup>43)</sup>

- 오사카 ARK의 경우 2015년에 개 131마리, 고양이 101마리 등 232마리를 입양



- 2011년 개 293마리, 고양이 111마리 등 총 404마리의 입양을 정점으로 이 후 감소 추세

[표 3-11] 오사카 ARK의 개·고양이의 입양 실적

(단위 : 마리)

연 도	개	고양이
1991	5	1
1992	83	18
1993	77	17
1994	59	12
1995	197	61
1996	101	52
1997	67	27
1998	78	28
1999	126	33
2000	161	50
2001	153	71
2002	148	60
2003	110	36
2004	167	44
2005	177	47
2006	196	97
2007	194	107
2008	184	100
2009	199	101
2010	204	116
2011	293	111
2012	148	105
2013	147	96
2014	122	99
2015	131	101
합계	3,527	1,590

○ 재원 확보<sup>44)</sup>

- 수입의 64%를 회원 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
- 보호시설 운영수수료, 달력 판매, 제품 판매 등 다양한 재원 구축

<sup>43)</sup> <http://www.arkbark.net/?q=ja/node/47>

<sup>44)</sup> [http://shop.arkbark.net/sites/default/files/NL98\\_0803.pdf](http://shop.arkbark.net/sites/default/files/NL98_0803.pdf)

- 회원 모집 : 다이아몬드(120,000엔/연), 루비(60,000엔/연), 사파이어(36,000엔/연), 진주(12,000엔/연), 가족회원(10,000엔/연), 개인회원(3,000엔/연) 등
- 후원자 모집 : 스폰서 1(36,000엔/연, 사료비), 스폰서 2(54,000엔/연, 사료비+의료비), 스폰서 3(72,000엔/연, 사료비+의료비+유지비), 스폰서 4(150,000엔/연, 사료비+의료비+유지비+인건비)
- 입양수수료 징수 : 3,000엔(10km까지 기본요금 + 1,000엔/추가 3km)

[표 3-12] ARK 수입지출 현황(2014.4~2015.3)

수입		지출	
항목	규모(엔)	항목	규모(엔)
책임자 회비	100,000	인건비	63,509,740
회원 회비/기부	115,211,475	여행경비	7,461,776
도쿄 지진 구조 기부	1,332,200	전화/우편/택배	1,320,183
보호시설	39,073,550	인쇄/사무실용품	1,022,819
달력 판매비	16,511,485	일반적인 공급품	295,504
기타 제품 판매비	2,985,149	유지/수리비	2,642,031
기타 수입	4,217,784	연료	1,588,160
계	179,431,643	수도/전기세	3,438,322
		렌트	8,441,822
		보험	747,920
		수수료	2,001,838
		자문료	1,177,200
		전산 유지/보안	1,463,280
		세금	2,472,966
		이송비용	875,241
		치료비	11,476,995
		사료비	1,654,888
		케이지 공급	1,971,002
		구조 활동자금(도쿄)	2,853,100
		홍보/이벤트	4,088,058
		뉴스레터 제작비	7,840,732
		달력 제작비	3,240,909
		기타 제품 제작비	1,251,193
		감가상각비	11,210,461
		기타잡비	4,489,886
		계	148,566,036
결산	남은 금액	30,865,607(179,431,643 - 148,566,036)	
	이월 금액	407,127,447	
	합계	437,993,054	

○ 설치근거

- 2014년 11월 13일, 제1종동물취급업에서 제2종동물취급업으로 변경됨
- 제2종동물취급업
  - 비영리로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물을 입양, 보관, 대여, 훈련, 전시하는 경우(동물보호소, 무료 공원 전시 등)
  - 일정 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할 경우 신고신청이 필요(대형동물 3마리 이상, 중형동물 10마리 이상, 소형동물 50마리 이상)

## 2) 미국

### (1) 뉴욕시 동물보호센터(Animal Care Centers of NYC, ACC)

○ 시설 개요

-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 1995년부터 뉴욕시 동물보호센터로 선정되어 뉴욕시의 업무를 대행
- 고양이, 개, 토끼, 작은 포유류, 파충류, 조류, 가축과 야생 동물 등 유실·유기되었거나 질병·상해를 입은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함
- 뉴욕시 5개 구에 하나씩 총 5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며, Queens와 Bronx 시설은 입소시설만 운영하고 입양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기능 및 역할

- 동물보호 : 포획, 구조, 사육포기동물 인수, 입양동물 재입소 등
- 보호동물 입양 : 엄격한 입양조건, 이동입양센터 운영, 입양혜택 부여(무료 검진, 등록비 면제, 중성화수술, 백신 접종 등)
- 사체 수거 및 처리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표 3-13] 뉴욕시 동물보호센터 현황

구분	내용
Manhattan A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구조물</li> <li>· 326 East 110th Street(between 1st and 2nd Ave.), New York, NY 10029</li> <li>· 보호센터 운영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li> <li>· 입양시간 : 월~금 낮 12시~오후 8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6시</li> <li>· 입소시간 : 24시간. 공휴일, 교육일 등은 휴관</li> </ul>
Brooklyn A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36 Linden Boulevard, Brooklyn, NY 11208</li> <li>· 보호센터 운영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li> <li>· 입양시간 : 월~금 낮 12시~오후 8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6시</li> </ul>
Staten Island A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39 Veterans Road West, Staten Island, NY 10309</li> <li>· 보호센터 운영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li> <li>· 입양시간 : 월~금 오후 12시~오후 8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6시</li> </ul>
Queens 입소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29 Queens Boulevard, Rego Park, NY 11374</li> <li>· 입소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li> <li>· 입양과 관련된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으며 Brooklyn Animal Care Center로 연결해주고 있음</li> </ul>
Bronx 입소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64 East Fordham Road, Bronx, NY 10458</li> <li>· 입소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주 7일</li> <li>· 입양과 관련된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으며 Manhattan Animal Care Center로 연결해주고 있음</li> </ul>



[그림 3-10] Manhattan ACC 건물과 접수창구



[그림 3-11] Manhattan ACC의 고양이 보호공간

○ 운영실적

- 2015년에 뉴욕시 ACC에는 30,521마리의 동물이 입소하였으며, 62%는 포획한 배회동물, 31%는 인수한 사육포기동물
- 입소한 동물은 52%가 관내기관으로 이전, 25%가 입양, 18%가 안락사되고, 304마리는 보호소 내에서 폐사함

[표 3-14]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동물보호실적

(2015년, 단위 : 마리)

연번	구분	개	고양이	계
1	입소	9,443	19,756	29,199
	배회동물 포획	5,085	13,689	18,774
	사육포기동물 인수	3,783	5,609	9,392
	학대동물 등 구조	243	182	425
	입양동물 재입소	332	276	608
2	소유자가 안락사를 요청	815	507	1,322
3	전체 입소(1+2)	10,258	20,263	30,521
4	입양	2,917	4,241	7,158
5	관내 기관으로 이전	3,617	11,518	15,135
6	관외 기관으로 이전	584	112	696
7	소유자에게 반환	1,345	494	1,839
8	안락사	1,759	3,596	5,355
9	소계(4+5+6+7+8)	9,414	19,459	28,873
10	보호소 내 폐사	36	268	304
11	합계(9+10)	9,450	19,727	29,177

○ 재원조달

- 2015년 뉴욕시 ACC의 수입은 1,682만 달러, 지출은 1,650만 달러
- 주요 수입원은 뉴욕시 지원금으로 전체 수입의 79%에 달하고, 기부금에 의한 총당액은 10% 수준
- 뉴욕시 ACC는 보호동물을 입양할 때 다양한 형태의 입양수수료를 징수함
  - 개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는 \$150, 7개월~6세는 \$75, 7세 이상은 \$50
  - 고양이의 경우 생후 6개월까지는 \$75, 7개월~6세는 \$50, 7세 이상은 \$25
  - 토끼는 \$50, 한 쌍은 \$75
  - 군인에게는 무료로 분양을 해주거나 15파운드(약 6.8kg) 이상의 고양이를 입양할 경우 \$25에서 초과한 무게만큼 입양비용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입양률을 높이하고자 노력

[표 3-15]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수입과 지출 내역(2015.6)

(단위 : 미국 달러)

구분	규모
총자산	2,134,231
유동 자산	1,716,678
고정 자산	417,553
수입	16,820,951
뉴욕시 지원금	13,306,040
보호소 수익	806,812
기부	1,576,204
현물 기부	371,290
직장인 급여로부터 기부	679,843
투자 이익	347
기타 잡수입	80,415
지출	16,502,817
프로그램 운영비	14,606,768
운영비	1,896,049

## (2)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ASPCA)

### ○ 조직 개요

-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 1866년 4월 10일 북미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의 단체
- ASPCA 본사는 맨해튼 도심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호텔과 아파트, 놀이터가 있음 : 424 E. 92nd St. Manhattan, New York City, 10128
- ASPCA 본사는 입양센터, 동물병원, 수의법의학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
- ASPCA Onyx & Breezy Shefts 입양센터는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15m<sup>2</sup>, 수용능력은 약 300마리(개, 고양이)
- 지하 1층 동물실(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된 동물 등 새로 반입된 동물이 3일간 머뭄)
- 1층 입양사무실, 동물실
- 2층 동물병원
- 3층 사무실
- 4층 진료실 및 사육실
- 5층 행동평가실



[그림 3-12] 뉴욕시 맨해튼의 ASPCA 본사

○ 기능 및 역할

- 동물구조 : 동물학대자, 투견, 동물번식자 등으로부터 동물구조
- 동물병원
- 타 시설로 동물이전 : 보호여건 개선, 입양 촉진
- 보호동물 입양 : 이동입양센터 운영, 반려동물 선물카드<sup>45)</sup>, Meet your match<sup>46)</sup>
- 동물행동교정 : 행동교정센터
- 중성화수술 : 중성화수술 동물 운송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 중성화수술클리닉
- 연구개발 : 프로그램 개발, 법률 및 정책 연구, 정보 취합
- 수의사 실습처 제공



동물병원 치료실



동물구조차량



중성화 수술실



이동 중성화클리닉 무료이용쿠폰



이동 중성화클리닉 외관



이동 중성화클리닉 내부

[그림 3-13] 미국 ASPCA 동물보호활동

<sup>45)</sup> Gift-a-Pet Certificate

<sup>46)</sup> 성격이 유사한 동물과 사람을 입양대상으로 맺어주는 프로그램



○ 운영실적

- 2014년 한 해 동안 17,261명의 입양 희망자가 방문했고 947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줌
- 2014년 3,800마리, 2015년 4,601마리가 센터를 통해 입양됨
- 2014년 1,415마리의 동물이 임시소유자(foster program)를 통해 상처 치유에 도움을 받았으며 입양 전에 반려동물로서 적응훈련을 마침
- 2014년 이상행동을 하는 개를 행동교정센터에서 교육하여 89마리 입양 성공
- 뉴욕경찰과 협약을 맺고 구출한 피학대동물은 2014년 425마리, 2015년 677마리
- 2015년 중성화수술은 77,339건 시행

○ 재원 확보

- 미국 ASPCA의 2014년 수입규모는 1억 9천만 달러 수준
- 주 수입원은 기부금으로 전체 수입금의 73%를 차지
- 동물병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8%

[표 3-16] ASPCA의 수입과 지출 내역

(2014년, 단위 : 미국 달러)

구분	규모
수입	187,827,176
기부금	136,827,329
동물병원 수입	14,585,922
유증, 신탁	26,710,253
저작권 등	4,431,672
투자이익	5,272,000
지출	175,190,199
프로그램 운영비	130,578,397
동물 치료비용	36,325,919
시민 교육 및 홍보	33,606,739
학대방지 프로그램	22,399,770
지역 봉사	22,800,090
지원금 투자	15,445,879
운영비	44,611,802
회원 모집 및 기금 모금	35,542,646
관리비	9,069,156

- 뉴욕시와의 관계
  - 뉴욕시 이동입양센터 차량 지원
  - 뉴욕시 동물보호소 공간부족 시 ASPCA 시설 공간 제공

### 3) 영국

#### (1) 영국 런던의 동물 관리

- 런던의 동물관리 개요
  -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8주령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내장형 인식표 삽입 의무화
  - 반려동물 관리는 런던시 또는 자치구보다 민간단체가 주도함
    - 녹색당이 동물관리를 위해 33개 자치구에 동물보호부서를 설치하고 런던 시청에도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런던시청이나 33개 자치구의 역할은 크지 않음<sup>47)</sup>
    - 런던 자치구도 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담당함. 그러나 보호시설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일부 자치구는 해당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 시설동물들의 건강관리와 수의치료는 City of London의 동물건강복지팀 (Animal Health and Welfare Team)이 33개 자치구와 계약을 맺고 수행함<sup>48)</sup>
    - City of London의 동물건강복지팀이 담당하는 시설 및 대상은 반려동물 판매소, 동물원, 개 번식시설, 개와 고양이 사육시설, 서커스시설, 승마시설, 공연동물, 위험한 야생동물 등
-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역할<sup>49)</sup>
  - 반려동물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는 The Blue Cross,

47) London Green Party, 2016, London 2016 Green Party Manifesto for Animals

48) City of London, Animal Health, <https://www.cityoflondon.gov.uk/services/animal-health-welfare/>

49) Mayor of London, 2004, Caring for Animals in London : Free and subsidized veterinary care for London's pets

Cats Protection, Celia Hammond Animal Trust, Dogs Trust, The Free Neutering for Cats Scheme, The Mayhew Animal Home, The 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PDS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RSPCA) 등임

- 역할
  -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병들거나 다친 동물 치료
  - 길거리동물의 중성화수술
  - 개체 인식표 달아주기
  -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및 입양
  - 반려동물 사육 및 행동교정과 관련된 상담
- 재원 : 주로 기부, 유산소득이고 일부 런던시의 지원, 진료비, 수수료 등

## (2)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RSPCA)

- 단체 개요
  - 1824년에 SPCA로 설립하여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의 후원을 받음. 현재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후원하고 있음
  - 1840년 왕실(royal)이라는 명칭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지금의 RSPCA로 개칭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됨(Charity number 219099, 잉글랜드와 웨일스)
  - 동물학대 감시 권한(동물보호법)을 가진 동물보호감시관을 운영
  - 영국 내에 166개소의 지부를 운영하며, 7개의 병원과 43개의 진료소 보유
    - 본부 위치 : Horsham, West Sussex, UK
    - 2001년에 완공된 RSPCA 본부는 건물 가치가 9,500,000유로에 해당하며 폐수 재활용 시스템과 채광이 잘 되는 구조, 에너지 효율이 높도록 설계
    - 동부 RSPCA Bedfordshire North Branch 외 30개소
    - 북부 RSPCA Barnsley & District Branch 외 49개소
    - 남동부 RSPCA Balham & Tooting Branch 외 52개소

- 남부 및 남서부 RSPCA Basingstoke & Andover Branch 외 33개소
- 북부 RSPCA Aberconwy Branch 외 40개소
- 4개 영역(반려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으로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
- 인력 : 2011년 기준 1,667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330명의 조사관, 30명의 과학자, 180명의 동물복지사가 활동함



[그림 3-14] RSPCA 본부 건물(Horsham)

○ 기능 및 역할

- 동물학대 조사 및 감시 : 330명의 조사관, 전국규모 콜센터
- 동물구조 : 배회동물, 재난 피해 동물
- 동물보호소 운영 : 입소동물 개체인식기 삽입 및 중성화수술, 사육포기동물 인수(포기수수료 없음)
- 동물보호소 입소동물 입양
- 고양이 중성화수술 장려
- 동물보호 교육 : 초등학생 체험교육, 전문교육(학생, 교수, 사회복지사 등)
- 동물보호 활동 : 법령 제정
- 반려동물 보험상품 개발 :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일정금액이 RSPCA의 후원금으로 활용
- 퍼트니 동물병원 운영 : 동물보호소 입소 부상동물 치료, 저소득층 반려동물 저가 치료, 개체인식기 장착 등

- 운영실적(2014)
  - 159,831건의 동물학대를 조사하여 2,419건의 유죄판결 유도
  - 128,209마리 동물구조
  - 입소동물 개체인식기 삽입 및 중성화수술 320,128마리
  - 53,263마리 입양
- 재원확보<sup>50)</sup>
  - 영국 RSPCA의 2014년 수입규모는 1억 2,590만 파운드
  - 주요 수입원은 유산에 기반한 수입 51%, 기부금 34% 등

[표 3-17] 2014년도 RSPCA 수입 및 지출

(단위 : 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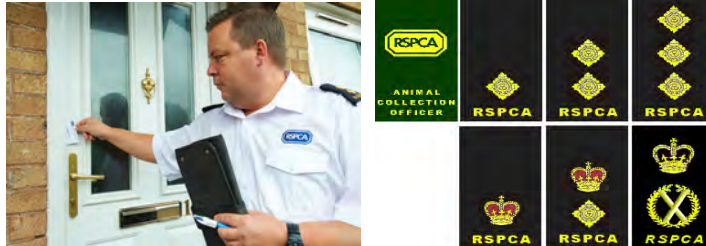
수입	규모	지출	규모
총수입	125,900,000	총지출	119,700,000
유산에 수반된 수입	63,700,000	동물병원 및 동물센터	37,800,000
기부금	43,100,000	조사	36,200,000
기타 수입	4,600,000	동물복지 고소비용	4,800,000
자선 활동 수입*	8,800,000	소득창출 비용	21,200,000
투자 수익	5,200,000	지점 지원금	7,500,000
회원 구독료	500,000	소송 비용	4,600,000
		홍보, 보도	2,800,000
		연구비	1,800,000
		교육비	1,400,000
		국제동물보호	700,000
		거버넌스 비용	900,000

\* 동물병원 수익, 입양비용, 광고료 등

- 정부와의 관계
  - RSPCA 동물보호조사관은 Animal Welfare Act 2006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기소권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sup>50)</sup> RSPCA, 2015, At the heart of animal welfare : Annual review 2014

- RSPCA 조사관은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는데, 전문성을 부여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sup>51)</sup>



[그림 3-15] RSPCA의 조사관과 지위에 따른 휘장

#### 4) 독일

##### (1) 독일의 동물관리

###### ○ 독일의 동물관리체계

- 최초의 독일 동물보호법은 사회주의 시절인 1933년 제정, 현재 동물보호법은 1972년에 제정
- 2002년 독일 기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가 국가 존립목적 중 하나로 규정에 삽입되어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 운영 중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호하도록 함
  -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일반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동물의 신체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수술행위 및 동물 간의 싸움 금지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일 경우에는 마취 후 행하도록 함
  - 동물실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담당관을 임명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sup>51)</sup> <http://myjobsearch.com/careers/animal-welfare-inspector.html>

<http://www.yourdog.co.uk/The-Your-Dog-Blog/your-dog-careers-a-day-in-the-life-of-a-rspca-inspector.html>

## (2) 독일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 ○ 단체 개요

- 1841년에 최초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TierschutzVerein)
- 운영시간
  - 동물보호소 및 입양소 : 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동물 입소 : 매일 오전 8시~오후 4시
  - 동물병원 : 화~금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토~일 오전 11시~오후 4시, 월 오전 11시~오후 1시(응급진료)
- 운영인력 : 50여 명
- 연간 약 12,00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함(평균 1,400마리 항시 보호)

### ○ 기능 및 역할

- 동물보호소 : 모든 동물 수용, 사육포기동물 인수<sup>52)</sup>, 보호동물 입양 등
- 동물병원 : 동물보호소 입소동물 치료, 수의과 전공자 실습교육
- 교육 : 청소년대상 체험교육, 양로원 방문교육, 수의보조 및 동물원 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
- 시민 자원봉사 기회제공 : 동물보호소 운영의 핵심
- 반려동물추모시설 운영
- 기타 동물보호활동 : 고양이 증성화수술 장려, 3명의 동물복지 상담사를 통한 사육 및 습성 안내, 수의학 및 야생동물에 관한 상담 등

### ○ 재원확보

- 연간 800만 유로의 기금을 운영, 15,000명의 회원 및 10,000명의 기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

<sup>52)</sup> 사육포기동물 인수조건 : 1)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이사, 알려지, 시간 부족 등), 2) 동물학대자, 3) 경찰이 구조한 경우, 4) 검역이 안 된 야생동물 등

- 사육포기동물은 인수수수료를 징수<sup>53)</sup>
- 입양동물은 입양수수료를 징수<sup>54)</sup>

[표 3-18] 베를린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 für Berlin) 수수료

(단위 : 유로)

구분		내용				
인수수료	동물종	개	고양이	소형동물	조류	특수동물
	수수료	60~115	20~85	5~30	15~50	20~30
입양수수료	동물종	개	고양이	토끼	친칠라	조류
	수수료	250 이상	60~100	20~30	40~50	20~30

53)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http://www.tierschutz-berlin.de/tierheim/tierabgabe.html>

54) 베를린 동물보호협회, <http://www.tierschutz-berlin.de/tierheim/tiervermittlung.html>



# 04

---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

- 1\_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 검토
- 2\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역할 설정
- 3\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평가

## 04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

### 1\_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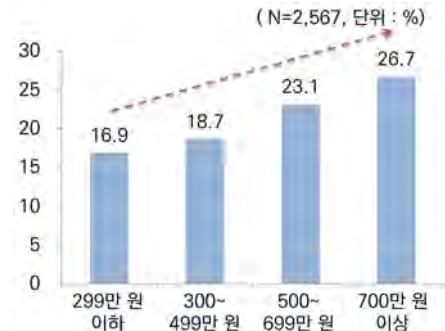
#### 1)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 변화

-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감 여부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함
  -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보유가구 비율 산정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구 구성원 수와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을 활용해 산정함. 통계청의 가구 구성원 수 추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려동물 보유의사를 반영한 보유가구 비율 산정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사육자와 비사육자의 최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유가구 비율 산정 : 18.0%
  - 가구구성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반려동물 보유율이 증가함
    - 1인 가구 18.2% 보유, 5인 이상 가구 24.3% 보유
    - 가구구성원과 가구소득은 비례관계를 보이며, 가구소득은 반려동물의 사육과 정(+)의 관계가 드러남
  - 장래에는 1~2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됨(2015년 51.7% → 2035년 63.2%)<sup>55)</sup>
  -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16년 20.4%에서 2035년 18.0%로 감소할 전망

<sup>55)</sup> 서울시 1~2인 가구 비중,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그림 4-1] 가구구성원 수와 반려동물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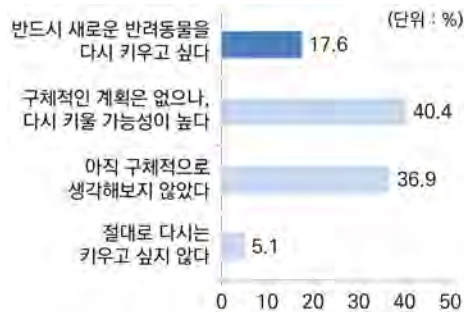
[그림 4-2] 가구소득과 반려동물 보유율

[표 4-1] 서울시 가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추정

(단위 : %)

구분	2016		2020		2025		2030		2035	
	가구 비중	보유 가구 비중	가구 비중	보유 가구 비중	가구 비중	보유 가구 비중	가구 비중	보유 가구 비중	가구 비중	보유 가구 비중
전체	100	20.4	100	19.5	100	18.8	100	18.3	100	18.0
1인 가구	27.0	18.9	28.9	20	29.8	21	30.1	21	30.8	22
2인 가구	24.7	20.6	26.9	22	29.0	24	31.0	26	32.4	27
3인 가구	22.7	20.0	22.9	20	23.0	20	23.1	20	22.9	20
4인 가구	19.6	20.4	16.7	17	14.4	15	12.3	13	11.3	12
5인 이상	6.0	22.7	4.7	18	3.7	14	3.1	12	2.6	10

- 반려동물 보유의사를 반영한 보유가구 비율 산정 : 28.8%
  - 반려동물 보유가구 중 사육중단 의사가 있는 경우는 5.1%
    -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20.4%
  - 반려동물 비보유가구 중 향후 보유를 매우 희망하는 가구는 11.8%
    -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비보유가구는 79.6%
  - 사육중단이나 보유희망의사를 반영하면, 향후 보유가구 비율은 28.8%로 증가할 전망
    - (현재 사육가구 비율×향후 사육지속가구 비율)+(현재 비사육가구 비율×향후 사육희망 가구 비율) = {20.4%×(100%-5.1%)}+(79.6%×11.8%)



[그림 4-3] 반려동물 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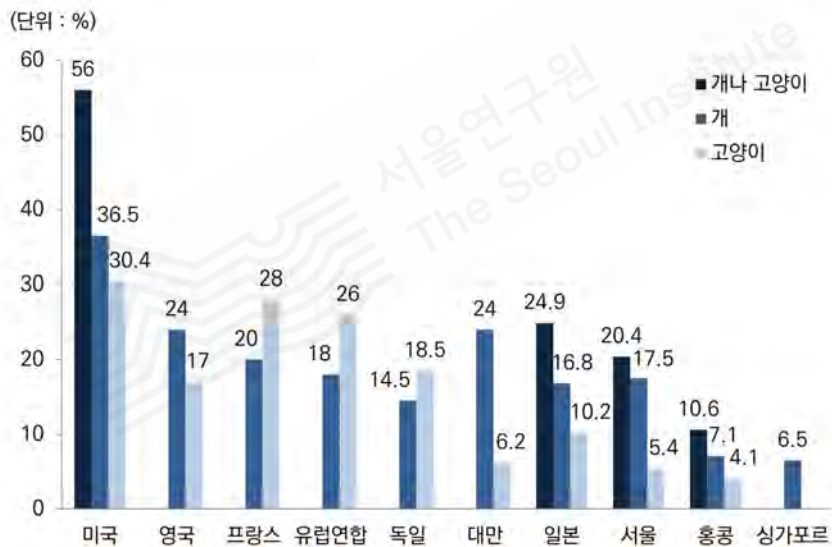
[그림 4-4] 반려동물 비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 서울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예측 : 29% 이내 예상

- 지금까지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해왔고 서울시민의 반려동물 보유의사로 부터 보유가구 비율을 추정한 결과(28.8%)를 볼 때, 향후 보유가구는 지금 보다 늘어날 전망
- 미국, 유럽, 일본의 보유가구 비율 현황도 서울의 향후 보유가구 비율이 지금보다 감소하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함. 다만 서울의 공동주택 중심의 거주환경, 경기침체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가둔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보유가구 비율이 29% 이내가 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초고밀도시인 홍콩, 싱가포르의 등의 반려동물 사육률은 매우 낮음
- 외국의 보유동향은 향후 고양이, 소형동물, 반려식물 등 사육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반려동물 보유가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유가구의 증가로 정부의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임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사육자,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는 시민, 그리고 잠재적 사육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정실무자들의 상호 접촉점이 될 수 있음



[그림 4-5] 서울시 반려동물(개, 고양이) 보유비율



출처 : 미국(AVMA), 영국(pfma), 유럽국가(FEDIAF), 일본(Japan Pet Food Association), 대만(行政院農業委員會), 홍콩(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싱가포르(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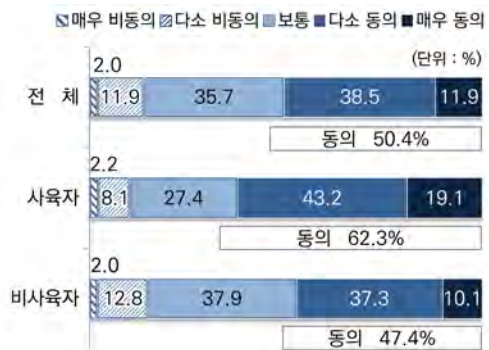
[그림 4-6] 세계 주요 국가·도시 반려동물 사육률

## 2)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여부 및 기능에 관한 시민의견

- 정부역할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반려동물은 간접복지의 하나이며(55%),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60%)
  -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시민복지의 하나이며 따라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
    - 전체시민 55%의 응답결과(반려동물 사육자의 71%, 비사육자의 51%)
  -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정부역할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이 50%에 이룸
    - 반려동물 사육자의 62%, 비사육자의 47%가 동일하게 응답함
  -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동물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더불어, 교육과 갈등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
    -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전체시민의 60%가 지지(반려동물 사육자의 71%, 비사육자의 57%)
    - 교육과 갈등조정의 역할에 대해 전체시민의 80.9%가 긍정적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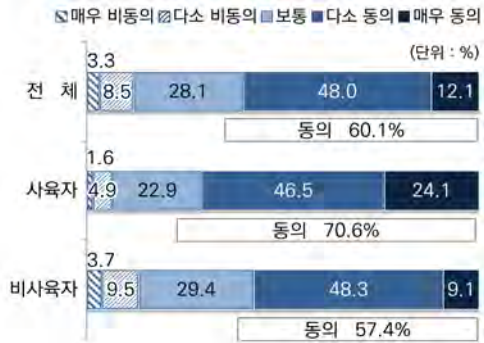


[그림 4-7] 정부는 국민복지관점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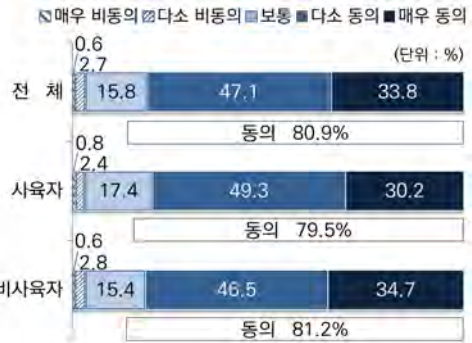


[그림 4-8]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

\*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서울시민 응답결과(N=1,014, 사육자와 비사육자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산출)



[그림 4-9] 정부/서울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



[그림 4-10] 정부의 반려동물 사육요령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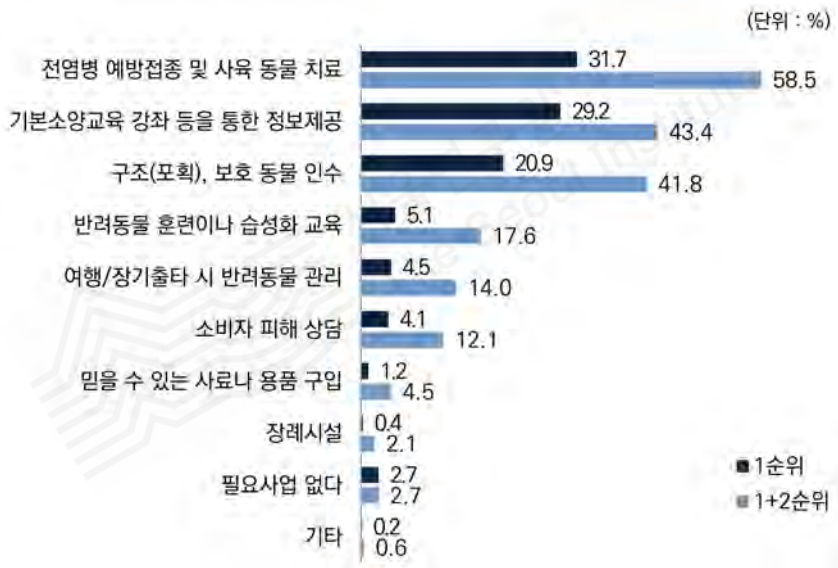
\*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서울시민 응답결과(N=1,014, 사육자와 비사육자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산출)

-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의견 : 전체시민 93%가 찬성하며, 동물치료, 교육, 유기동물 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응답
  - 서울시가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93%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함
    - 반려동물 사육자의 96%가 찬성
    - 반려동물 비사육자의 92%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직접 운영에 찬성



[그림 4-11] 외국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시민이 추천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염병 예방  
접종 및 동물 치료”(1+2순위 59%)
- “동물사육에 관한 소양교육 및 정보제공”, “배회동물 구조·포획·보호·  
인수”도 중요한 업무로 추천함(1+2순위 각각 43%, 42%)
- 기타 추천업무로는 반려동물 사회화교육(1+2순위 18%), 장기출타 시 임시  
보호(1+2순위 14%), 소비자 피해 상담(1+2순위 12%), 사료 및 용품 판  
매(1+2순위 5%) 등
- 장례시설 등 도심에 입지하기 어려운 기능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낮음(1+2  
순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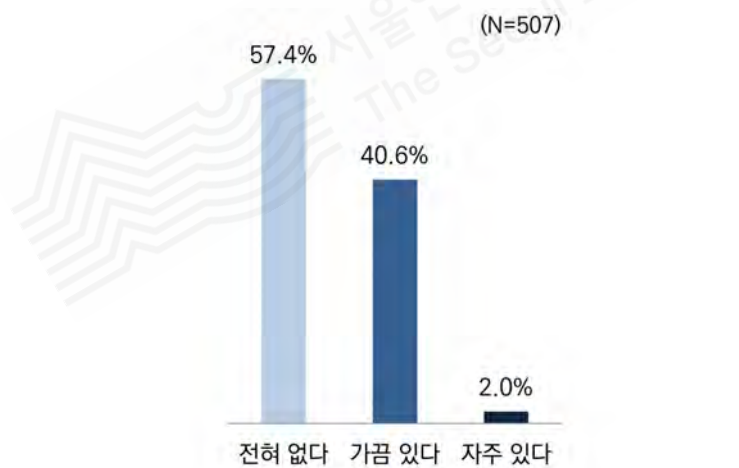
[그림 4-12]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담당할 업무

### 3) 정책환경의 변화

- 사육포기동물 인수 : 외국사례와 순기능 면에서 정부 역할로 지정될 가능성이 큼
  -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는 외국의 경우 동물보호시설의 핵심 업무 중 하나
  - 도쿄동물애호센터는 지자체의 법적 의무사업으로 시행 중



-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모든 공립 및 비영리단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프로그램에 해당(3장 참조)<sup>56)</sup>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중 사육포기나 유기에 충동을 느끼는 가구를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반려동물 유기율은 미국과 유사한 2.0% 이내로 증가할 수 있음
- 2015년 서울의 반려동물(개) 유기율은 0.8%임(2장 참조)
-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육포기 또는 유기에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가구는 2.0%
- 외국 유기율은 일본 도쿄 1.0%, 미국 2.6%임(2장 참조)
-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를 공공의 업무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도 이 업무를 공공의 역할로 이미 검토한 바 있음(일명 동물인수제도)<sup>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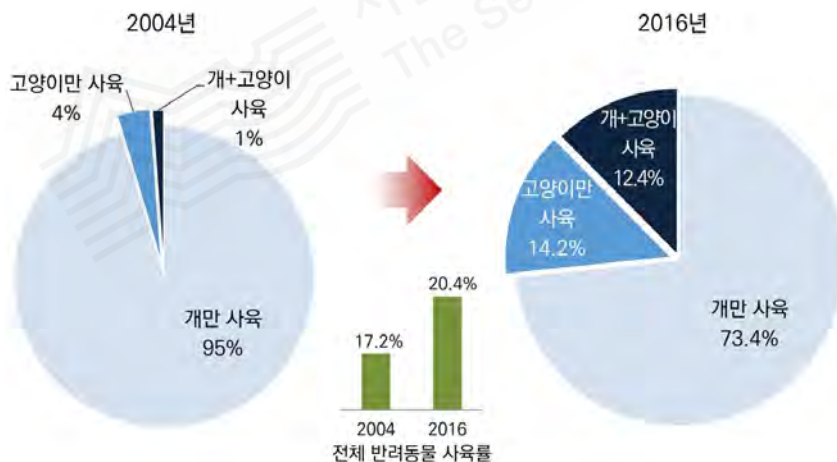


[그림 4-13]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사육포기 및 유기 충동 경험에 대한 응답

<sup>56)</sup> 인수조건(사육포기를 원하는 사육자의 여건, 인수수수료 징수여부 등)은 도시, 시설에 따라 다름

<sup>57)</sup> 정부는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발의.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소유권 포기동물을 포함하고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 원하는 사도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사육자의 반려동물 선택 : 사육여건을 감안해야 하며,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 필요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고양이의 사육가구가 2004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
    - 2004년 개 보유가구 비율 16.4%, 고양이 보유가구 비율 0.6%, 개+고양이 보유가구 비율 0.2%<sup>58)</sup>
    - 2016년 개 보유가구 비율 15.0%, 고양이 보유가구 비율 2.5%, 개+고양이 보유가구 비율 2.9%<sup>59)</sup>
  -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을 선택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등 반려생물로 관심 영역 확대
  - 이러한 현상은 유기동물의 감소, 이웃과 갈등 감소, 사육자의 반려동물 사육부담 감소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에서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4]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개·고양이 사육비율 변화

58) 유기영, 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59)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 손 타는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바쁜 싱글족들 물만 주면 되는 선인장 키우며 외로움 달래, 이름 붙여주고 SNS에 사진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 박한민(28) 씨는 한 달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2,000원을 주고 '트리안'이라는 식물을 주문해 집에서 키우고 있다. '푸르미'란 이름도 붙여줬다. 덩굴식물인 트리안은 일주일에 물을 한두 번만 주면 집 안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 인기가 있다. 박 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려 했지만 돌볼 자신이 없어 식물을 샀다"면서 "날마다 대화를 나눌 친구가 생긴 느낌"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박씨처럼 '반려동물' 대신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선인장 화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관리가 쉬운 수경재배식물도 작년보다 22%가 더 팔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506만 가구로, 30년 전(약 66만 가구)에 비해 8배로 증가했다.

식물을 인테리어용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반려식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직장인 박슬록(23) 씨는 작년부터 자취방에 다육식물(선인장처럼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하나씩 사 모으고 있다. 그렇게 모은 식물이 벌써 10종류다. 박 씨는 "아기 장화나 고무신, 커피잔 등을 산 뒤 여기에 흙을 채워 화분을 만든다"며 "밖에서 미니 화분으로 쓸 수 있는 예쁜 그릇을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다육식물) 생각이 난다"고 했다. 애완동물처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이 기르는 식물 사진을 올리는 것도 유행이 됐다. 식물을 파는 가게들도 이런 수요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꽃집에서 일하는 김미양(28) 씨는 "예전엔 생화(生花)를 주로 팔았는데 선인장같이 키우기 쉬운 식물을 찾는 자취생 손님이 많아져 미니 화분과 다육식물 상품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화초 가게 '슬로우 파마씨'는 손님의 성격과 생활 습관에 맞춰 식물을 추천해 준다. 이 가게 대표 이구름(28) 씨는 "주말 손님이 300명쯤 되는데, 식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는 20~30대 싱글족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젊은 세대만 반려식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관내 독거 노인 160가구에 반려식물을 나눠줬다. 사당1동 주민센터 조재영 주무관은 "1년 동안 정성껏 키워놨으니 보러 오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반려식물이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백수진 기자, 손 타는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조선일보, 2016.4.20.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육자의 노력 필요
  -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털 날림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털 날림 등의 피해를 경험한 시민이 각각 44%, 40%, 37%에 이름
    - 냄새, 다중이용시설 출입, 위협이나 상해의 경험도 20~30% 범위
    - 피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시민은 16% 정도이며 80% 이내의 시민은 어떤 종류든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사육자의 노력이 필요
    - 반려동물 사육자의 대부분은 예방접종, 질병치료, 목욕, 운동 등을 신경 쓰며 반려동물을 관리(70% 이상이 실천한다고 응답)
    - 그러나 소음 억제, 사회화 훈련, 균형 잡힌 먹이 제공, 올바른 사육에 관한 정보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실천한다는 응답은 45~54% 수준)



[그림 4-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



[그림 4-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사육자의 노력 유형

- 조례에서 정한 역할의 수행 :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발이 필요
  -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시설운영정보를 제외한 기타정보의 확보는 부족한 상황
    -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
    -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제4조)
  - 동물입양센터의 운영을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성과가 미흡
    -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에 동물입양센터를 운영 중이나 입양실적이 저조함(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
    - 25개 자치구 중 동물입양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는 전무

[표 4-2] 서울시 동물입양센터 운영실적

기간	① 서울시 유기동물 수	②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동물 수		③ 동물입양센터 입양동물 수	
	마리	마리	②/① 비율	마리	③/① (③/②) 비율
2012~2013년	24,951	7,100	28.5%	123	0.5% (1.7%)
2014년	9,551	2,693	28.2%	90	0.9% (3.3%)
2015년	8,902	2,448	27.5%	80	0.9% (3.3%)

- 동물보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황과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초조사가 필요함
- 미국의 ASPCA, 영국 RSPCA 등은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도 동물보호분야의 R&D 사업을 구상 중(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 동물보호·복지 표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복지분야 중장기 R&D 기본방향 설정 등

#### 4)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 배회동물·유기동물·학대동물 구조·보호
  - 시장 또는 구청장의 책무 : 동물보호법 14조 등
  - 외국 공립·비영리법인 동물보호시설의 역할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 : 1+2순위 41.8%
- 사육포기동물 인수
  - 외국 공립·비영리법인 동물보호시설의 역할
  - 정부에서 지자체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
  - 사육포기동물의 정부 인수정책에 대해 사육자의 74.1%, 비사육자의 64.1%가 긍정적<sup>60)</sup>
- 동물입양센터
  - 시장 또는 구청장의 책무 : 동물보호법 21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21조 등
  - 서울시 동물입양센터(1개소) 운영 중이나 성과 미흡
- 동물병원
  - 수의사법 제2조, 제17조 등에 의한 영업
  - 외국 공립·비영리법인 동물보호시설의 기능 중 하나 : 보호 중 동물 치료,

<sup>60)</sup>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안락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저소득층 반려동물 치료 등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책임임(서울시 동물보호조례 등)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가 가장 많음 : 1+2순위 59%

○ 동물호텔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 : 1+2순위 14%

○ 장례

- 동물보호법(32조)에서 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 일본 도쿄도, 일부 외국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는 매우 적음 : 1+2순위 2.1%

○ 교육

- 외국 공립·비영리법인 동물보호시설의 역할

-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명예감시원의 직무 : 동물보호법 시행령 14조 등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 : 1+2순위 43.4%

○ 연구개발

- 미국의 ASPCA, 영국 RSPCA 등의 주요 역할 : 법 개정, 보험개발 등

-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 확보

- 정부에서 R&D 사업 추진 구상 중

○ 사육정보에 관한 상담

- 외국 공립·비영리법인 동물보호시설의 역할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지지한 시민 수 : 1+2순위 43.4%

○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지역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 시민토론회(2016년 5월 10일 개최)에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로 제안됨

## 2\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역할 설정

### 1) 제약요건을 고려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 자치구와 서울시 역할분담 측면에서 본 역할
  - 역할분담 기준 : 현장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자치구가 담당하고, 집중화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량이 적은 업무는 서울시가 담당
  - 서울시의 역할 :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입양센터 운영, 교육, 연구개발, 상담
  - 자치구의 역할 : 동물 구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 4-3]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본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구분	서울시 역할	자치구 역할	비고
동물 구조	-	✓	· 자치구 업무로 운영 중이며 47개소의 비영리법인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 · 서울시 조려에 자치구 업무로 명시 · 시간적으로 자치구 대응이 효과적
동물보호업무	-	✓	· 자치구 시설로 운영 중이며, 47개소의 비영리법인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 · 서울시 조려에 자치구 업무로 명시 · 시간적으로 자치구 대응이 효과적
사육포기동물 인수	✓	-	· 시간을 가지고 대응 가능 · 전문성을 감안하면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보호동물입양	✓	-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이며, 서울시 통합시설로 운영이 효과적
교육	✓	-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연구개발	✓	-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상담	✓	-	· 전문성과 집중화 필요 · 서울시 통합시설이 효과적

- 공공부문과 비영리단체·관련업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본 역할
  - 역할분담 기준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은 관련업에서 담당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나 수익성이 없는 영역은 공공에서 담당. 또한 공공과



시장 모두 참여가 바람직한 영역은 비영리단체의 역량 활용. 수행할 영역도 노하우가 축적된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영역별 위탁

- 공공부문의 역할 : 사육포기동물 인수, 동물입양센터 운영, 교육, 연구개발, 상담,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등

※ 동물입양센터 운영, 교육 등을 공공부문에서 맡을 경우 비영리단체의 전문성 활용

- 비영리단체·관련업의 역할 : 동물입양센터 운영, 동물병원 운영, 동물호텔 운영, 장례업, 교육, 연구개발, 상담 등

[표 4-4] 동물복지업무에 관한 공공과 비영리단체·관련업의 역할

구분	공공부문 역할	비영리단체· 관련업 역할	비고
사육포기동물 인수	✓	✓	· 외국에서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단체가 수행 · 국내 일부 비영리단체 수행 중 · 유기동물 억제 측면에서 공공 수행 필요
보호동물입양	✓	✓	· 외국에서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단체가 수행 · 서울시 시설로 운영 중이고 국내 일부 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반 구축 · 공공에서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단체와 협력
동물병원 운영	✓	✓	·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서울에 846개소 있음 · 외국의 경우 저소득층 동물 무료 진료 · 국내의 경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개인동물병원에서 회피 · 특정 영역을 수행하는 공공의 동물병원 필요
동물호텔 운영	-	✓	· 이미 시장이 형성됨 · 수익성이 있어 공공부문 참여 불필요
장례업	-	✓	· 이미 시장이 형성됨(전국 15개소) · 수익성이 있어 공공부문 참여 불필요
교육	✓	✓	·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 공공부문 참여 시 비영리단체와 협력 필요
연구개발	✓	✓	·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상담	✓	✓	·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에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바람직
지역 동물보호 활동가 플랫폼	✓	-	·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인 상황 · 공공부문에서 플랫폼 제공 필요

○ 도심 입지 가능성

-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시민과 근접하려면 주거지역에 입지 필요
- 동물보호센터, 동물입양센터의 기능은 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하고, 특히 장례업은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만 입지 가능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주거지역에 인접하려면 동물병원 기능 필요

[표 4-5] 주요 동물보호시설의 도심 입지 가능지역

구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동물병원 운영	○	○	○	○	○
동물인수센터 운영	×	×	○	○	○
동물입양센터 운영	×	×	○	○	○
장례업	×	×	×	○	○

[표 4-6] 서울시 토지이용 유형

토지이용유형	면적	
	m <sup>2</sup>	%
주택지	118,853,767	19.5
상업 및 업무시설지	35,928,608	5.9
혼합지	77,752,590	12.8
공업지	6,074,006	1.0
공공용도지	32,786,912	5.4
교통시설지	66,056,422	10.9
도시부양시설지	6,739,591	1.1
나지	12,240,195	2.0
특수지역	14,490,734	2.4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188,179,176	30.9
하천 및 호소	49,216,759	8.1
계	608,318,759	100



[그림 4-17] 동물병원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그림 4-18] 가축시설(동물보호센터 등)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 2)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틀 구상

###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 사육포기동물 인수 : 더 이상 사육할 수 없는 여건의 소유자로부터 반려동물을 인수
- 동물병원 운영 : 저소득층 반려동물, 입소동물, 길고양이(중성화수술) 등 치료
- 동물입양센터 운영 : 사육포기동물, 유기동물, 보호동물 등 입양 보내기
- 교육 : 반려동물(사회화), 어린이, 신규 입양자, 사육자, 법상 의무교육자 등
- 연구개발 : 기초조사, 법제도, 교재개발 등
- 상담 : 반려동물 선택, 바른 사육방법, 관련기관 연락처 등
-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등 : 목록관리, 정보제공,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시설 소재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기능 : 배회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 4-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안)

구분	내용
사육포기동물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li> <li>- 사육자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경우</li> <li>- 외국이나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li> <li>- 파산하여 적절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li> <li>- 알려지, 공격성 등으로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li> <li>※ 사육자의 사망이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수수료 징수</li> </ul>
동물입양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입양촉진 사업 추진</li> <li>- 동물보호주간 행사, 온라인 입양 정보 페이지 운영</li> </ul>
동물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치료(무상)</li> <li>※ 사회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li> <li>· 입원동물의 치료</li> <li>· 길고양이 TNR(중성화수술)</li> <li>· 모든 입원동물의 개체인식표 삽입</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자 및 입양자에게 바른 사육방법 교육</li> <li>· 동물보호교육</li> <li>· 어린이 대상 체험교육</li> <li>· 법상 의무교육대상자 교육</li> <li>·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li> </ul>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기초조사</li> <li>· 법·제도</li> </ul>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자에게 맞는 반려동물 선택</li> <li>· 사육방법</li> <li>· 소비자 분쟁 대처 방법</li> </ul>
지역 동물보호활동가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교류 및 활동 지원사업</li> <li>· 교육 및 정보 제공</li> <li>· 커뮤니티 공간 제공</li> </ul>

주 : 동물 포획·구조, 동물보호센터 기능은 관내 자치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행 고려

#### ○ 시설 확보

- 입지 :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확보
- 개소 수<sup>61)</sup>
  - 1단계 사업 :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서남생활권에 1개소를 확보·운영

61)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영천, 노원, 강남, 마포), 물재생센터(종량, 난지, 서남, 탄천) 등도 대략 권역을 감안하여 4개소씩 확보하고 있음

- 2단계 사업 : 1단계 사업 효과 평가 후,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생활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도심권)에 1개소씩 총 3개소 추가 확보
- 시설면적 : 개소당 1,000㎡ 이내
- 주요공간 : 사육포기동물인수처, 입소동물보호공간, 동물입양처, 동물병원, 교육·세미나실, 반려동물 사회화교육장, 상담실, 연구개발실, 자료실, 가족 봉사지원실<sup>62)</sup>, 행정실 등



[그림 4-19] 서울시 생활권 분류 및 1·2단계 사업지 구분

- 시설 운영
  - 운영조직 : 서울시 직영
    -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할 사업소로 운영
  - 조직구성 : 4팀, 21인
    - 동물병원팀, 인수입양팀, 교육상담팀, 기획행정팀으로 구성
    - 팀당 4~5인의 인력 소요

<sup>62)</sup> 2016년 5월 10일 시민토론회에서 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안 반영

- 비영리단체의 전문성과 열의를 시설운영에 적극 활용
  - 인수입양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입양 업무)를 위탁
  - 교육상담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교육 업무)를 위탁
- 교육공간 또는 유희공간을 비영리단체 또는 유관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하여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의 장 마련
-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
  - 가족놀이터 등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설립목적 극대화
  - 이동진료차량, 동물구조차량, 현장교육차량 등 운영
- 재원확보 : 서울시 예산,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 입양수수료 등
  - 시민의 기부금 모금 적극 검토
  -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운영경비 절감
-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이용자 수 추정
  - 동물병원 이용 : 50,302명(가구)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46,580명<sup>63)</sup> ×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 20.4%<sup>64)</sup> = 50,302명(가구)
  - 사육포기동물 상담 : 1,710가구
    - 서울시 가구 4,189,948가구<sup>65)</sup> ×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 20.4%<sup>66)</sup> × 반려동물 사육포기 충동 경험자 2.0%<sup>67)</sup> = 1,710가구
  - 교육이나 상담 참여 : 사육자의 30.2%<sup>68)</sup>

63) 2015년 기준, 시설 거주자 12,866인 제외(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

64)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65) 2015년 기준(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

66)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67)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사육 포기/유기 충동 경험자 “자주 있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

68)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

[표 4-8]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조직과 인력 예시

구분	업무	인력(인)	비고
시설장(1인)	· 시설 대표	1	
동물병원팀(5인)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1	
	· 동물 건강관리 및 치료	(수의사) 1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수의사) 1	
	· 구조보호	(구조1, 보호1) 2	
인수입양팀(5인)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1	전부 또는 일부 위탁
	· 인수	2	
	· 입양	2	
교육상담팀(4인)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1	전부 또는 일부 위탁
	· 교육	1	
	· 상담	2	
기획행정팀(5인)	· 팀업무 총괄기획, 관리	1	
	· 행정·재무	2	
	· 청사관리	1	
	· 연구기획	1	
계		20	

### 3\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 평가

- 유기동물 처리비용 절감 : 연 350백만 원으로 추정

효과 : 1) 사육포기동물 인수로 유기동물 감소 ※ 구조과정 불필요  
2) 유기동물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진료비 절감

- 관련 비용 : 포획비용 31,270원/마리, 진료비용 8,083원/마리, 계 39,353원/마리  
(2장 참조)
- 2015년 유기동물 수 : 8,902마리(2장 참조)
- 비용절감 : 350백만 원 = 39,353원/마리 × 8,902마리

- 행정 업무부담 완화 : 1,543백만 원으로 추정

효과 : 1) 유기 등의 감소로 관련 행정업무 감소  
2) 바른 사육의 증가로 동물학대 등의 관련 민원 감소

- 자치구당 동물 관련 민원(2015년) : 764건(2장 참조)
- 자치구 담당자의 관련 업무량 : 2시간/일(서울시 분석자료, 2장 참조)
- 6급 주무관 보수 : 2,706,100원/월, 16,913원/시간
- 비용절감 : 1,543백만 원 = 16,913원/시간 × 2시간/일 × 5일 × 365일/7일 × 25개 자치구
- 소음 등 환경분쟁의 억제 : 4,396백만 원으로 추정
 

효과 : 1) 바른 사육의 증가로 소음 관련 민원 감소  
2) 환경분쟁 발생 시 쟁송에 관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사육하는 개의 마리 수 : 1,085,532마리(주로 개에 의해 민원 발생)
  - 개 사회화교육 희망자 비율 : 16.2%(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sup>69)</sup>
  - 개의 평균 수명 : 12년
  - 환경분쟁(소음) 전문가 감정수당 : 300,000원/건<sup>70)</su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문의에 대한 응답결과)
  - 비용절감 : 4,396백만 원 = 1,085,532마리 × 16.2% × 300,000원/건 ÷ 12년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 : 6,289백만 원/연으로 추정됨
  - 총편익 : 유기동물 처리비용 절감 + 행정 업무부담 완화 + 소음 등 환경분쟁의 억제 = 350백만 원 + 1,543백만 원 + 4,396백만 원 = 6,289백만 원
- 기타 편익
  - 반려동물 유기억제로 동물보호 실천
  -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 보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 지원
  - 선진 도시들에 버금가는 품격의 서울시 동물복지시설 보유
  -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반려동물 종합타운 운영
  - 건전한 반려동물 미래 사육자 육성
  - 지역 동물보호활동의 플랫폼, 허브 역할 등

<sup>69)</sup>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우선 담당사업 “반려동물 훈련/사회화교육” 1, 2순위 응답 합산

<sup>70)</sup>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전문가 수당(2016년 기준) : 현지 확인비용 150,000원, 의견서 작성비용 150,000원



# 05

---

## 사업 추진 방안 (1단계 사업)

- 1\_시설 입지(안)
- 2\_행정절차 및 용역의 필요성
- 3\_추후 중점 검토 사항

## 05 사업 추진 방안(1단계 사업)

### 1 시설 입지(안)

#### 1) 권역 및 입지 개요

- 권역 : 서남생활권
  - 서남권 :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 인구 : 약 300만 명
- 입지 개요<sup>71)</sup>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95-13
  - 부지 : 635m<sup>2</sup>
  - 용도 : 서울시 상수도 봉천통합가압장(2009년 12월 14일 용도폐지)
  - 도시계획 : 주거지역
    - 봉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의 일부이나 사업시행이 불분명하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주변여건 : 왕복 4차선도로와 연결되는 6m 소도의 초입으로 4차선 도로방향은 상가, 반대방향은 주택가와 인접함



[그림 5-1] 1단계 사업 시설 입지 예정부지

71)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해당시설물을 발굴해 동물복지지원시설로 활용을 검토 중

## 2) 기존 시설물 및 추정 공사비

### ○ 기존 시설물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상 1층, 지하 1층, 슬라브 구조)
- 건물설치 : 1976년
- 건물규모 : 건축면적 636㎡(지하 354㎡, 지상 282㎡)
- 건물형태 : 1층 바닥의 절반이 지하와 개방된 상태이며, 펌프시설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붕이 높음(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었음)
- 현재용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남부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

### ○ 추정 공사비

- 공사방법 : 기존 건물 리모델링
- 공사내용 : 1층 슬라브 설치, 1층의 복층화를 위한 중간 슬라브 설치, 벽 설치, 마감공사, 집기구비 등
- 공사규모 : 354㎡(건축면적 지하층) + 282㎡(지상 1층) × 2(지상 1층 복층화) = 918㎡(바닥면적)
- 추정 공사비 : 3,523,344천 원(약 36억 원)
  - 건물 리모델링 : 1,698,667천 원 = 2,313천 원/㎡<sup>72)</sup> × 80%(용도변경 리모델링) × 918㎡(바닥면적)
  - 설계비 등(감리비, 부대비용 포함) : 169,867천 원 = 1,698,667천 원 × 10%
  - 부지매입비 : 1,654,810천 원 = 2,606천 원/㎡(공시지가)<sup>73)</sup> × 635㎡(부지면적)

<sup>72)</sup> 공공업무사무소용 건물 적용(1,500~5,000㎡)(출처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201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sup>73)</sup> 공시지가 2,606천 원, 공시일자 2015년 5월 29일(출처 :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그림 5-2] 1단계 사업 후보지의 기존 시설물 내부모습

## 2\_행정절차 및 용역의 필요성

### ○ 필수 행정절차

-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필수 행정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사업예산 편성, 공사수행방식 결정, 설계 및 공사 등
- 「사업계획 수립」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본 연구(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를 “기본구상용역”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여 동물보호과가 작성함
-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구상용역” 및 별도로 수행한 “타당성조사용역” 또는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동물보호과가 작성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36억 원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이며 “기본구상용역” 및 별도로 수행한 “타당성조사용역” 또는 “기본계획용역” 등을 토대로 동물보호과가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재정담당관의 주관하에 추진됨
-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예산담당관 주관하에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짐
- 동물보호과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공사 등의 과정을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를 통하거나 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

○ 용역의 필요성

- “기본구상용역”은 서울연구원이 본 연구를 통해 이미 추진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사업계획수립」 등에 활용하면 됨
- 본 사업은 36억 원 규모로,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비의무사업.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감안하면 “타당성조사용역” 또는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함
  - “타당성조사용역”이나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사업 구체화가 가능함
  - 특히 “기본계획용역”은 공사방법, 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세자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함

[표 5-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안

용역 절차	행정 절차	내용 <sup>74)</sup>	주관부서	비고
기본 구상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필요성</li> <li>·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li> <li>·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공사의 기대효과 등</li> </ul>	서울연구원 ↓ 동물보호과	· 서울연구원 보고서(본 연구)로 같음
↓	사업계획 수립	· 시장, 부시장 또는 시민건강국의 내부결재	동물보호과	· 서울연구원 보고서(본 연구)를 활용하여 작성
타당성 조사		<p>[의무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용청사 100억 원 이상</li> </ul>	동물보호과 ↓ 재정담당관	· 본 사업(36억 원)은 타당성조사 비의무사업

74)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2014), 건설공사 매뉴얼 : 건설공사 계획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에서 필요부분 발췌

[표 5-1 계속]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안

용역 절차	행정 절차	내용	주관부서	비고
타당성 조사 (계속)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평가,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li> <li>· 사업 실현방법에 있어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 최적안을 선정해 기본설계에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 작성</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분리하여 수행</li> </ul>	동물보호과 ↓ 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36억 원)은 타당성조사 비의무사업</li> <li>· 사업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둘 중 하나 이상 수행하는 것이 유리</li> </ul>
	⇓			
기본 계획		<p>[의무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용청사 100억 원 이상</li> </ul>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 공사비 및 자원조달계획</li> <li>·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시 사무 vs 민간 사무</li> <li>- 2단계 : 직영 vs 민간 위탁</li> </ul> </li> <li>· 환경보전계획 등</li> </ul>	용역업체 ↓ 동물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36억 원)은 타당성조사 비의무사업</li> <li>· 사업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둘 중 하나 이상 수행하는 것이 유리</li> </ul>
		기본계획 수립	재정담당관 /용역업체 ↓ 동물보호과	“서울연구원 보고서(본 연구)”,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용역” 등을 토대로 내부에서 작성
	⇓			
	⇓	투자심사	동물보호과 ↓ 재정담당관	

[표 5-1 계속]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안

용역 절차	행정 절차	내용	주관부서	비고
	↓			
	사업예산 편성	· 지출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담당관	
	↓			
↓	공사수행 방식 결정	· 공사 수행 방식 결정	동물보호과	
	↓			
설계 부터	설계·발 주·공사	· 설계 발주 공사	관련 부서	

### 3\_추후 중점 검토 사항

#### 1) 목표와 조직

- 시설의 운영목표
  - 입양 동물 수(마리)
  - 사육포기동물 인수 수(마리)
  - 저소득층이 보유한 동물의 무료진료 실적(마리)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실적(마리)
  - 방문객 수(명)
  - 재정자립도(%) 등
- 운영조직
  - 형태 : 직영, 직영+부분 위탁, 위탁 등
  -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형태
  -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형태 등

#### 2) 위탁 범위 및 운영 프로그램

- 부분위탁의 범위

- 교육사업
- 입양사업
- 사육포기동물 인수
- 상담
- 연구 등
- 운영 프로그램
  - 동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입양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교육사업(내부, 현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 공간 활용
  - 관련단체를 위한 공간배정
  - 관련업을 위한 공간배정
  - 시민(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 3) 홍보 및 운영 조례

- 명칭
  - 국문 명칭, 영문 명칭
  - 명칭공모 방법
- 홍보
  - 사업 준비 중 홍보
  - 공사 중 홍보
  - 운영 중 홍보 등
- 운영조례
  -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 등



## 참고문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9, 「2008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13-21호, 한국소비자원.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2015.5.8, 동물보호정책 가시적 효과 나타나,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5.16, 동물복지 의식 높아지고 있다,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서울시, 2014, 「201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 서울연구원, 2014, 「사육포기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건설공사 매뉴얼 : 건설공사 계획수립부터 유지관리까지」.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 엠브레인, 2009, 「2009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조사」.
- 엠브레인, 2015,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 유기영, 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지상운 · 문홍길, 2011, “견우시대 반려견산업 다시 보기”, 「RDA Interrobang」, 43호, 농촌진흥청.
- 한국갤럽,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 황명철 · 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I리포트」, 215호, 농협경제연구소.
- 황원경, 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23호, KB경영연구소.
- 황지나, 2015, “점점 확대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 「KISTI MIRIAN REPORT」, 5-2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London Green Party, 2016, *London 2016 Green Party Manifesto for Animals*.
- Mayor of London, 2004, *Caring for Animals in London : Free and subsidized veterinary care for*

*London's pets.*

RSPCA, 2015, *At the heart of animal welfare : Annual review 2014.*

김민수 기자, 펫팸족 1000만 돌파...반려동물 금융상품 붐물, 대한금융신문, 2016.3.27.

김지유 기자, 대전시, 파트라슈 뛰노는 '플랜더스 파크' 조성 추진, 뉴스1, 2014.11.30.

김태성 기자, [中企현장] 급성장하는 애완동물 용품 산업, 서울경제, 2011.8.14.

남명우 기자, 경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시에 들어선다, 뉴시스, 2015.9.9.

백수진 기자, 손 타는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 조선일보, 2016.4.20.

신대희 기자, 광주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 들어서나?, 뉴시스, 2016.3.2.

양승민 기자, 유기동물 포화상태 이른 대전동물보호센터 이전 추진한다, 충청투데이, 2015.12.14.

전준상 기자, 불황 모르는 애완동물 시장...5년만 80% 성장, 연합뉴스, 2015.5.10.

조백건 기자, “개가 원치않는 임신했다”며 소송戰, 조선일보, 2016.4.6.

진식 기자, 경북에 반려동물의 유토피아 만든다, 영남일보, 2015.3.25.

오상우 기자, 청주시 유기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 대전일보, 2016.4.7.

이상현 기자, 울산시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 2017년 건립, 연합뉴스, 2015.2.28.

이정하 기자, 용인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난관...대체부지 주변도 반발, 뉴시스, 2015.10.25.

[http://agr.goyang.go.kr/about/mainFacility\\_13.jsp](http://agr.goyang.go.kr/about/mainFacility_13.jsp)(고양시동물보호센터)

<http://angel.or.kr/network>(대한민국 동물찾기 네트워크)

<http://customs.go.kr/stats>(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ekara.org/kara/breathCenter>(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더불어 숨 센터)

<http://fromcare01.cafe24.com>(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공시지가열람,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myjobsearch.com/careers/animal-welfare-inspector.html>(RSPCA 조사관)

<http://nbakki.hatenablog.com/archive/category/Animal>

<http://nbakki.hatenablog.com/entry/2014/04/11/223538>(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자료)

<http://rcps.egov.go.kr:8081>(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hop.arkbark.net/sites/default/files/NL98\\_0803.pdf](http://shop.arkbark.net/sites/default/files/NL98_0803.pdf)

<http://www.animal.go.kr>(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s.or.kr/newmain/07welfare/welfare01.asp>(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http://www.arkbark.net>(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sPCA.org/animal-homelessness>(ASPCA, Shelter Intake and Surrender)

<http://www.cityoflondon.gov.uk/services/animal-health-welfare>(City of London, Animal Health)

<http://www.elis.go.kr>(자치법규검색, 자치법규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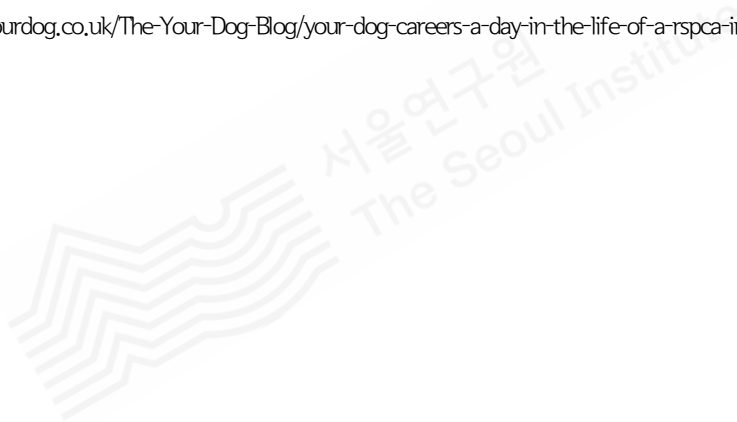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douso/shisetsu>(일본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http://www.law.go.kr>(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inashigo.jp>(犬猫みなご救援隊, Dogs and cats orphan rescue party)

<http://www.tierschutz-berlin.de>(베를린 동물보호협회)

<http://www.yourdog.co.uk/The-Your-Dog-Blog/your-dog-careers-a-day-in-the-life-of-a-rspca-inspector.html>



## 부록

### 1\_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sup>75)</sup>

#####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2) 개별기준

##### 가. 사육환경

- ①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 나. 건강관리

- 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②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sup>75)</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2)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sup>76)</sup>

### (1) 일반사항

-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 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 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개별사항

-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 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sup>76)</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5

한다.

-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3)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sup>77)</sup>

#### ① 일반기준

-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sup>77)</sup>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4

## ②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소형견(5kg 미만) :  $50 \times 70 \times 60(\text{cm})$
  -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  $70 \times 100 \times 80(\text{cm})$
  - 다) 대형견(15kg 이상) :  $100 \times 150 \times 100(\text{cm})$
  - 라) 고양이 :  $50 \times 70 \times 60(\text{cm})$
-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

격이어야 한다.

-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2\_반려동물 보유와 동물복지지원시설 수요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동물학대 증가, 유기동물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시민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
- 본 과업은 서울시민(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 동기 및 실태,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등 일반적 현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과 기능, 공공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부록 표 1] 조사 목적

조사대상	주요 획득 정보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일반 성인</li> <li>-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li> <li>- 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사육 계기 및 현황</li> <li>·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li> <li>·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 인지도</li> <li>·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태도(우선 필요 사업 등)</li> <li>·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li> <li>· 표본 특성 정보 : 성, 연령, 지역, 직업,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 규모, 소득수준, 가족 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와 차별적 역할 및 기능 분담 방향 제시</li> <li>·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의 공익과 시민 편익에 대한 가치 평가</li> </ul>

##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등 정책 입안 관련 반려동물 사육자 및 비사육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육자와 비사육자의 표본 구성을 균등하게 함. 표본 추출은 성별 및 연령, 거주 지역 등의 서울시 모집단 분포(서울시 주민등록현황 분포(통계청, 2015. 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반려동물 사육자를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하였으므로 서울시 인구비례 분포와는 차이를 보임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Web 설문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온라인조사로는 표본 확보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함(개별면접조사 표본 수 : 56표본, 5.5% 비중)  
총 유효표본 수는 1,014명이고, 반려동물 사육자 507명, 비사육자 507명으로 균등 할당함(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범위는  $\pm 3.1$ )

[부록 표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반려동물 사육자 및 비사육자
표본추출	· 표본구성의 틀 : 2015년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분포 · 표본추출방법 : 모집단 인구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기본할당 :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균등할당 - 기타할당 : 성, 연령, 거주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비례 표본 할당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병행 -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 분포에 따라 구축된 서울지역 조사 전문패널 - 50대 후반 연령대에서 개별 면접조사 병행(총 56 표본, 5.5% 비중)
표본크기 및 표본오차	· 표본크기 : 1,014표본(유효표본 기준)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1\%$ - 표본오차 산출 공식(95% 신뢰구간) : $\pm 1.96 \times \sqrt{p(1-p)/n}$ ※ n=표본크기, P=모집단에서 표본 비율이 될 확률(0.5)
조사시점	· 2016년 3월 25일 ~ 4월 4일(11일간)

## ① 모집단 분포

- 서울시 자치구별로 성, 연령에 따른 인구 분포는 아래와 같으며, 표본 구성의 기준이 됨(자료 :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부록 표 3] 서울시 모집단 분포

구 분		연령별 분포(단위 : 백 명)					구 분		연령별 분포(단위 : 백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서울시 전체	계	14,500	17,195	17,004	24,996	73,695	서대문구	계	460	488	519	769	2,238
	남	7,244	8,649	8,472	12,039	36,404		남	230	246	259	363	1,099
	여	7,256	8,546	8,532	12,957	37,291		여	231	242	260	406	1,139
종로구	계	232	225	267	401	1,125	마포구	계	569	727	650	849	2,794
	남	118	113	132	198	561		남	270	355	327	397	1,350
	여	114	112	135	203	564		여	298	372	323	452	1,445
중구	계	180	213	206	343	942	양천구	계	652	709	922	1,193	3,476
	남	91	109	108	171	480		남	332	349	443	596	1,720
	여	88	104	98	172	462		여	320	360	480	596	1,756
용산구	계	312	408	398	567	1,685	강서구	계	818	1,052	927	1,443	4,240
	남	153	202	201	271	827		남	404	533	459	689	2,086
	여	159	206	197	295	858		여	414	518	468	754	2,154
성동구	계	432	524	502	726	2,185	구로구	계	572	795	681	1,080	3,128
	남	219	265	258	358	1,100		남	287	409	353	525	1,573
	여	213	259	244	368	1,085		여	285	386	329	555	1,555
광진구	계	596	649	615	872	2,731	금천구	계	346	392	403	643	1,784
	남	291	326	303	423	1,344		남	183	213	207	320	923
	여	305	323	311	449	1,387		여	163	179	196	322	861
동대문구	계	539	599	581	937	2,655	영등포구	계	546	697	620	966	2,829
	남	281	310	301	455	1,347		남	269	358	322	476	1,425
	여	258	289	280	482	1,308		여	277	338	298	491	1,404
종량구	계	595	675	696	1,126	3,092	동작구	계	641	751	634	996	3,023
	남	299	352	353	553	1,556		남	320	383	321	465	1,488
	여	297	323	343	573	1,536		여	322	368	314	532	1,535
성북구	계	665	764	805	1,152	3,385	관악구	계	932	1,025	775	1,216	3,948
	남	330	384	409	549	1,671		남	469	559	409	572	2,010
	여	335	380	396	603	1,714		여	463	466	366	644	1,938
강북구	계	435	529	560	906	2,430	서초구	계	599	779	790	1,015	3,182
	남	221	275	283	425	1,203		남	287	363	383	482	1,515
	여	214	255	277	481	1,227		여	311	416	407	532	1,667
도봉구	계	485	523	602	955	2,566	강남구	계	837	997	1,008	1,310	4,152
	남	250	265	293	462	1,270		남	399	460	471	626	1,955
	여	236	258	309	493	1,296		여	438	537	537	685	2,197
노원구	계	781	874	1,069	1,405	4,127	송파구	계	950	1,166	1,139	1,612	4,867
	남	401	431	513	674	2,019		남	468	563	554	782	2,367
	여	379	442	556	731	2,108		여	482	603	584	830	2,499
은평구	계	647	831	847	1,259	3,584	강동구	계	678	805	788	1,255	3,526
	남	322	417	422	595	1,757		남	350	408	390	611	1,759
	여	325	413	425	664	1,827		여	328	396	399	645	1,767

자료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현황(통계청, 2015년 12월 말 기준)

## ② 표본 구성

- 본 조사의 총 표본은 유효표본 기준으로 1,014표본이며, 반려동물 사육자 507명, 비사육자 507명으로 구성함
-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은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인구비례에 따른 분포를 기본 할당기준으로 하여 반려동물 사육자를 무작위로 추출(Random Sampling)한 결과로, 30대 이하 연령대 및 동남권 및 도심권 거주자, 주택규모가 큰 가구,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사육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4]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

구 분		표본 수	반려동물 사육 여부(단위 : %)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1,014	50.0	50.0
성별	남성	503	53.3	46.7
	여성	511	46.8	53.2
연령	20대	245	57.1	42.9
	30대	283	53.4	46.6
	40대	266	42.5	57.5
	50대 이상	220	46.8	53.2
권역	도심권	68	63.2	36.8
	동북권	309	48.2	51.8
	서북권	131	45.0	55.0
	서남권	292	48.6	51.4
	동남권	214	53.3	46.7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6.4	53.6
	2~3인	450	49.6	50.4
	4인	390	50.0	50.0
	5인 이상	90	55.6	44.4
주택형태	아파트	545	49.9	50.1
	단독/다가구	139	56.8	43.2
	연립/빌라	320	47.2	52.8
	기타	10	50.0	50.0
주택규모	20평(66㎡) 미만	246	41.9	58.1
	20~30평(99㎡) 미만	322	48.8	51.2
	30~40평(132㎡) 미만	318	53.8	46.2
	40평(132㎡) 이상	128	59.4	40.6
가구소득 (월평균)	299만 원 이하	256	44.1	55.9
	300~499만 원	332	47.3	52.7
	500~699만 원	276	54.0	46.0
	700만 원 이상	150	58.7	41.3

## (3) 조사 진행

## ①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 표본에 대한 대표성 및 신뢰도를 높였음

[부록 표 5]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구분	내용
Sampling 계획 수립 (표본 설계)	· 자치구별 Sampling 계획 수립
Sampling 계획에 따른 Panelist 추출	· Sampling 계획에 따른 각 Cell별로 온라인 Panelist 구분 · 자치구별 거주자 대상 Panelist 추출(온라인조사 예비대상으로 선정)
Panel Sampling	· 온라인 Panel 회원 중 조사대상에 적합한 리스트 선별 및 랜덤 추출 · 최근 3개월 내 유사 조사 참여자 배제(조사 참여일, 참여 조사 종류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Panel 추출을 위한 기초 Filtering 자료로 활용)
Web 설문 개발	· 온라인 특성에 맞는 설문 디자인 및 pilot test를 통해 설문의 완성도 제고 · 추출된 Panel의 1/10에게 먼저 E-mail을 보내고 오류 유무 확인,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1차 완성된 Web 설문에 대한 Client Test 후 최종 확정 · 온라인 설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구현(2일 이내)
E-mail 발송 및 자료 수집	· 최종 표본으로 추출된 Panel 대상으로 매일 1/3씩 3회에 걸쳐 Web 설문 E-mail 발송 · 설문진행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효율적 일정관리
응답 Data Cleaning 및 검증	· 전체 응답 항목 대비 응답 시간 확인 - 응답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긴 응답자는 불성실 응답으로 규정하고 유효샘플에서 제외 · Logic Error 및 Outliner 확인(발생 불가한 사항 및 Outliner의 경우 자료처리에서 제외) · 무응답 표본 관리(주요문항에서 무응답, 무응답 비중이 높은 표본은 유효 표본에서 제외)

## ② 온라인 조사 패널(Panel) 특성

- 온라인 패널(Panel)은 특정한 채널에서 다량 모집 방식이 아닌 1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서울시 온라인 조사 패널(Panel)은 Active Panel 기준으로 160,495건으로,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함

[부록 표 6] 서울시 온라인 조사 패널(Panel) 구축 현황

구분	설명
온라인 모집채널	· 키워드 AD(총 4개 채널) : 네이버, 다음, 오버쳐어 · 배너 Display AD(총 50여 개 채널) : 페이스북, 교보문고, 이베이 · 타겟 E-mail AD(총 50여 개 채널) : KCP, Maxxcard, HEZOUN
모바일 모집채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D(총 10개 채널) : STARPL, goldenax, HEZOUN
오프라인 모집채널	편의점 Display AD / Free Note AD(총 5개 채널)



서울시 응답자 패널 : 160,495명						
성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여자	80,729		49.7		
	남자	79,766		50.3		
연령별	19세 이하	12,519		7.8		
	20~29	35,951		22.4		
	30~39	42,371		26.4		
	40~49	39,963		24.9		
	50~59	23,111		14.4		
	60세 이상	6,580		4.1		
자치구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구분	패널 수	구성비(%)
	종로구	3,370	2.1	마포구	6,580	4.1
	중구	3,049	1.9	양천구	5,778	3.6
	용산구	3,852	2.4	강서구	8,346	5.2
	성동구	4,333	2.7	구로구	5,938	3.7
	광진구	6,580	4.1	금천구	3,531	2.2
	동대문구	5,296	3.3	영등포구	6,420	4.0
	종랑구	5,296	3.3	동작구	7,062	4.4
	성북구	6,420	4.0	관악구	8,827	5.5
	강북구	4,494	2.8	서초구	8,025	5.0
	도봉구	4,654	2.9	강남구	15,408	9.6
	노원구	9,309	5.8	송파구	9,630	6.0
	은평구	6,259	3.9	강동구	6,901	4.3
	서대문구	4,815	3.0			

## (4)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조사 내용
반려동물 사육경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경험</li> <li>· 사육 반려동물(개, 고양이) 종류</li> <li>· 반려동물 사육 계기/배경</li> <li>· (반려동물 비사육자)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 경험이 없는 이유</li> <li>· (반려동물 비사육자)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li> <li>·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경험</li> </ul>
반려동물 사육자 실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li> <li>·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li> <li>· 반려동물 유기 충동 경험</li> <li>·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li> </ul>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인지정도</li> <li>· 외국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li> <li>·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역할이나 입장에 대한 인식</li> <li>·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방향</li> <li>·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li> <li>· 주변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시 태도</li> </ul>
표본 특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연령, 거주 지역,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득 수준, 학력, 직업, 가족 구성원 수 등</li> </ul>

## (5) 응답자 표본 특성

[부록 표 기] 응답자 표본 특성

구 분		사례 수	구성비(%)
전 체		1,014	100.0
반려동물 보유여부	보유자	507	50.0
	비보유자	507	50.0
성별	남성	503	49.6
	여성	511	50.4
연령	20대	245	24.2
	30대	283	27.9
	40대	266	26.2
	50대 이상	220	21.7
권역	도심권	68	6.7
	동북권	309	30.5
	서북권	131	12.9
	서남권	292	28.8
	동남권	214	21.1
자치구	종로구	29	2.9
	중구	15	1.5
	용산구	24	2.4
	성동구	33	3.3
	광진구	36	3.6
	동대문구	37	3.6
	종량구	38	3.7
	성북구	40	3.9
	강북구	28	2.8
	도봉구	32	3.2
	노원구	65	6.4
	은평구	54	5.3
	서대문구	32	3.2
	마포구	45	4.4
	양천구	39	3.8
	강서구	52	5.1
	구로구	39	3.8
	금천구	20	2.0
	영등포구	40	3.9
	동작구	38	3.7
	관악구	64	6.3
	서초구	47	4.6
	강남구	56	5.5
	송파구	74	7.3
	강동구	37	3.6

구 분		사례 수	구성비(%)
전 체		1,014	100.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8.3
	2인	168	16.6
	3인	282	27.8
	4인	390	38.5
	5인 이상	90	8.9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3.7
	단독/다가구	139	13.7
	연립/빌라/다세대	320	31.6
	기타	10	1.0
주택 규모	10평(33㎡) 미만	56	5.5
	10~20평(66㎡) 미만	190	18.7
	20~30평(99㎡) 미만	322	31.8
	30~40평(132㎡) 미만	318	31.4
	40~50평(165㎡) 미만	91	9.0
	50평(165㎡) 이상	37	3.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36	3.6
	100~199만 원	83	8.2
	200~299만 원	137	13.5
	300~399만 원	154	15.2
	400~499만 원	178	17.6
	500~599만 원	172	17.0
	600~699만 원	104	10.3
	700만 원 이상	150	14.8
직업	경영/관리직	48	4.7
	전문직	95	9.4
	사무직	438	43.2
	전문기술직	32	3.2
	판매/서비스직	42	4.1
	단순노무/생산/ 단순기술직	32	3.2
	자영업	70	6.9
	주부	132	13.0
	학생	92	9.1
	기타	33	3.3

## ※ 권역 구분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 세부 조사 결과

### (1) 반려동물 사육 경험 관련

#### ① 반려동물 사육 비율

- 질문 :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 비율<sup>78)</sup>은 20.4%로 5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있으나 현재 키우지 않고 있는 경우는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77.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 비율을 표본 특성별로 보면, 서초구 및 강남구, 송파구 등의 동남권 거주자 및 용산구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sup>78)</sup>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비율 도출을 위해 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대상자(N=1,553)까지 포함한 접촉 대상자 전체(N=2,567)를 모수로 하였으며, 서울시 인구통계 분포에 맞도록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도출된 결과임

[부록 표 8] 반려동물 사육 비율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경험			반려동물 사육 여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2,567	20.4	56.8	22.8	20.4	79.6
권역	도심권	134	21.8	48.8	29.4	21.8	78.2
	동북권	812	21.4	54.2	24.3	21.4	78.6
	서북권	295	17.3	57.7	25.0	17.3	82.7
	서남권	776	17.7	60.0	22.2	17.7	82.3
	동남권	550	23.9	57.3	18.8	23.9	76.1
자치구	종로구	41	21.4	44.0	34.5	21.4	78.6
	중구	33	18.0	52.5	29.5	18.0	82.0
	용산구	60	24.1	50.0	25.9	24.1	75.9
	성동구	77	18.6	51.4	30.0	18.6	81.4
	광진구	96	22.0	40.7	37.4	22.0	78.0
	동대문구	91	17.8	60.0	22.2	17.8	82.2
	종랑구	107	20.9	60.4	18.7	20.9	79.1
	성북구	120	18.9	49.5	31.5	18.9	81.1
	강북구	84	31.0	36.2	32.8	31.0	69.0
	도봉구	90	22.0	71.2	6.8	22.0	78.0
	노원구	147	21.3	60.3	18.4	21.3	78.7
	은평구	118	22.9	56.5	20.6	22.9	77.1
	서대문구	79	13.3	64.4	22.2	13.3	86.7
	마포구	98	13.8	53.7	32.5	13.8	86.2
	양천구	122	19.0	68.6	12.4	19.0	81.0
	강서구	144	16.3	49.6	34.1	16.3	83.7
	구로구	106	14.9	58.8	26.3	14.9	85.1
	금천구	62	11.4	47.1	41.4	11.4	88.6
	영등포구	102	21.3	64.8	13.9	21.3	78.7
	동작구	101	21.1	58.7	20.2	21.1	78.9
	관악구	139	18.1	67.5	14.5	18.1	81.9
	서초구	108	24.8	54.3	21.0	24.8	75.2
	강남구	145	25.4	53.2	21.4	25.4	74.6
	송파구	173	23.5	58.0	18.5	23.5	76.5
	강동구	124	22.1	63.7	14.2	22.1	77.9
성별	남성	1285	21.2	57.7	21.1	21.2	78.8
	여성	1282	19.6	55.9	24.6	19.6	80.4
연령	20대	550	25.9	43.3	30.8	25.9	74.1
	30대	733	21.1	57.0	21.9	21.1	78.9
	40대	660	17.7	63.0	19.3	17.7	82.3
	50대 이상	624	17.6	61.7	20.7	17.6	82.4

## ② 반려동물 사육자 특성

○ 질문 :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 가구 특성을 보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단독/다가구 거주자와 주택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도심권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30.6%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40평(132㎡) 이상 가구,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에서 반려동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9] 반려동물 사육자 비중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여부	
			사육자	비사육자
전 체		1,014	20.4	79.6
성별	남성	483	22.6	77.4
	여성	531	18.4	81.6
연령	20대	224	25.5	74.5
	30대	272	22.7	77.3
	40대	290	15.9	84.1
	50대 이상	228	18.4	81.6
권역	도심권	57	30.6	69.4
	동북권	316	19.3	80.7
	서북권	139	17.4	82.6
	서남권	297	19.5	80.5
	동남권	206	22.6	77.4
가족 구성원 수	1인	88	18.2	81.8
	2인	167	20.8	79.2
	3인	286	19.7	80.3
	4인	390	20.4	79.6
	5인 이상	84	24.3	75.7
주택형태	아파트	546	20.4	79.6
	단독/다가구	128	25.2	74.8
	연립/빌라	331	18.6	81.4
	기타	10	20.4	79.6
주택규모	20평(66㎡) 미만	270	15.6	84.4
	20~30평(99㎡) 미만	327	19.6	80.4
	30~40평(132㎡) 미만	304	23.0	77.0
	40평(132㎡) 이상	114	27.3	72.7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274	16.9	83.1
	300~499만 원	343	18.7	81.3
	500~699만 원	263	23.1	76.9
	700만 원 이상	135	26.7	73.3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③ 사육 반려동물 종류

- 질문 : 귀하께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에서 개를 사육하는 가구가 전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양이를 사육하는 경우는 26.6%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육가구 중에서 개만 사육하는 경우가 73.4%로 4가구 중 3가구 꼴로 나타났으며, 고양이만 사육하는 경우는 14.2%,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는 12.4%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30대 연령층에서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개만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1인 가구와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고양이만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와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0] 사육 반려동물 종류 및 현황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종류 (복수응답)		반려동물 사육 현황			X <sup>2</sup>
			개	고양이	개만 사육	고양이만 사육	개+고양이 사육	
전 체		507	85.8	26.6	73.4	14.2	12.4	
성별	남성	268	88.1	26.9	73.1	11.9	14.9	4.909
	여성	239	83.3	26.4	73.6	16.7	9.6	
연령	20대	140	86.4	27.9	72.1	13.6	14.3	14.700*
	30대	151	83.4	33.8	66.2	16.6	17.2	
	40대	113	82.3	26.5	73.5	17.7	8.8	
	50대 이상	103	92.2	14.6	85.4	7.8	6.8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64.1	38.5	61.5	35.9	2.6	36.041***
	2인	85	84.7	21.2	78.8	15.3	5.9	
	3인	138	89.1	23.9	76.1	10.9	13.0	
	4인	195	89.2	23.6	76.4	10.8	12.8	
	5인 이상	50	82.0	46.0	54.0	18.0	28.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86.4	27.9	72.1	13.6	14.3	11.627
	단독/다가구	79	88.6	24.1	75.9	11.4	12.7	
	연립/빌라	151	84.8	24.5	75.5	15.2	9.3	
	기타	5	40.0	60.0	40.0	6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81.4	23.0	77.0	18.6	4.4	15.132*
	300~499만 원	157	86.6	24.2	75.8	13.4	10.8	
	500~699만 원	149	89.3	29.5	70.5	10.7	18.8	
	700만 원 이상	88	84.1	30.7	69.3	15.9	14.8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lt;0.05, \*\* P&lt;0.01, \*\*\* P&lt;0.001

#### ④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

- 질문 :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어떤 계기로 키우게 되었습니까?
  -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이 ‘예쁘고 귀여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선물 등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17.0%,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 목적이나 외로움 해소 등의 구체적인 목적보다는 반려동물이 예쁘고 귀엽거나 우연한 기회로 사육하는 등 1차적 계기로 사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 ‘외로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40대 연령층 및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자녀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30대 연령층 및 3인 가구,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예쁘고 귀여워서’ 사육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 특성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계기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임

[부록 표 11]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단위 : %)						χ <sup>2</sup>
			예쁘고 귀여워서	선물을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으로	외로워서	유기견/ 동물들이 불쌍해서	기타	
전 체		507	53.3	17.0	14.8	12.8	1.2	1.0	
성별	남성	268	59.0	14.6	14.6	11.2	0.4	0.4	11.933
	여성	239	46.9	19.7	15.1	14.6	2.1	1.7	
연령	20대	140	56.4	17.9	2.9	21.4	0.7	0.7	58.299***
	30대	151	58.3	12.6	14.6	11.3	1.3	2.0	
	40대	113	53.1	10.6	24.8	8.0	2.7	0.9	
	50대 이상	103	41.7	29.1	20.4	8.7	0.0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41.0	15.4	2.6	38.5	2.6	0.0	65.663***
	2인	85	50.6	17.6	5.9	18.8	2.4	4.7	
	3인	138	60.9	10.9	16.7	10.1	1.4	0.0	
	4인	195	51.3	20.5	19.5	8.2	0.0	0.5	
	5인 이상	50	54.0	20.0	16.0	8.0	2.0	0.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48.9	15.8	21.7	12.1	0.7	0.7	31.340**
	단독/다가구	79	60.8	12.7	10.1	13.9	2.5	0.0	
	연립/빌라	151	56.3	21.9	5.3	13.2	1.3	2.0	
	기타	5	80.0	0.0	0.0	2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41.6	22.1	8.0	26.5	0.9	0.9	39.687***
	300~499만 원	157	53.5	16.6	14.0	13.4	1.3	1.3	
	500~699만 원	149	57.0	15.4	18.8	6.0	1.3	1.3	
	700만 원 이상	88	61.4	13.6	18.2	5.7	1.1	0.0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lt;0.05, \*\* P&lt;0.01, \*\*\* P&lt;0.001

## ⑤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 질문 :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현재 키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32.9%,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25.1%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반려동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및 ‘관리비용 부담’으로 사육을 중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

소득계층에서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하거나,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반려동물 사육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한편, 4인 이상 가구와 단독/다가구 거주자,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에서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 사육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2]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복수응답)(단위 : %)							
		주변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이상행동/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반려동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관리 비용이 부담 되어서	이웃이나 가족 구성원의 갈등	반려동물 가출/실종	기타
전 체	359	40.9	32.9	25.1	21.7	20.6	14.2	0.8	1.4
성별	남성	173	45.1	30.6	25.4	20.2	20.8	16.8	0.0
	여성	186	37.1	34.9	24.7	23.1	20.4	11.8	1.6
연령	20대	63	44.4	31.7	15.9	28.6	19.0	14.3	1.6
	30대	101	42.6	34.7	20.8	18.8	16.8	5.0	1.0
	40대	112	39.3	33.9	29.5	19.6	22.3	19.6	0.9
	50대 이상	83	38.6	30.1	31.3	22.9	24.1	18.1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2	46.9	31.3	21.9	28.1	6.3	6.3	0.0
	2인	69	39.1	43.5	15.9	13.0	13.0	7.2	0.0
	3인	98	40.8	35.7	22.4	23.5	25.5	14.3	1.0
	4인	134	40.3	25.4	30.6	24.6	23.9	20.9	1.5
	5인 이상	26	42.3	34.6	34.6	15.4	23.1	7.7	0.0
주택 형태	아파트	188	38.3	32.4	24.5	21.3	23.9	17.0	0.5
	단독/다가구	40	45.0	32.5	42.5	25.0	25.0	10.0	0.0
	연립/빌라	126	42.9	32.5	21.4	21.4	15.1	11.9	1.6
	기타	5	60.0	60.0	0.0	20.0	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92	48.9	29.3	20.7	19.6	20.7	9.8	2.2
	300~499만 원	128	39.8	29.7	25.8	21.9	23.4	14.1	0.0
	500~699만 원	92	38.0	41.3	25.0	18.5	16.3	14.1	1.1
	700만 원 이상	47	34.0	31.9	31.9	31.9	21.3	23.4	0.0

BASE : 반려동물 사육 중단자(N=359)

#### ⑥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

- 질문 : 귀하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32.4%, ‘사육비용이 부담되어

서' 28.4%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가족의 반대'나 '동물을 싫어해서'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20~3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사육비용 부담' 및 '반려동물 돌볼 시간 부족',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 부족' 등으로 사육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반면, 여성 및 40대 이상 연령층, 단독/다가구 거주자의 경우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육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표본 특성별로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임

[부록 표 13]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단위 : %)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 나빠져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사육 비용이 부담 되어서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이 없어서	동물을 싫어 해서	가족의 반대	기타
전 체	148	41.9	32.4	28.4	28.4	18.9	16.2	2.0	0.7
성별	남성	62	33.9	33.9	25.8	30.6	25.8	9.7	1.6
	여성	86	47.7	31.4	30.2	26.7	14.0	20.9	0.0
연령	20대	42	23.8	40.5	40.5	35.7	19.0	9.5	7.1
	30대	31	41.9	32.3	41.9	25.8	32.3	9.7	0.0
	40대	41	53.7	34.1	14.6	29.3	9.8	22.0	0.0
	50대 이상	34	50.0	20.6	17.6	20.6	17.6	23.5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13	30.8	38.5	38.5	15.4	38.5	23.1	0.0
	2인	14	42.9	21.4	21.4	28.6	14.3	50.0	0.0
	3인	46	43.5	37.0	21.7	30.4	23.9	6.5	4.3
	4인	61	45.9	29.5	29.5	21.3	8.2	18.0	1.6
주택 형태	5인 이상	14	28.6	35.7	42.9	64.3	35.7	0.0	0.0
	아파트	85	43.5	28.2	22.4	21.2	10.6	20.0	2.4
	단독/다가구	20	50.0	25.0	25.0	45.0	25.0	15.0	0.0
	연립/빌라	43	34.9	44.2	41.9	34.9	32.6	9.3	2.3
가구 소득	기타	44	38.6	36.4	36.4	36.4	36.4	15.9	0.0
	299만 원 이하	47	44.7	36.2	34.0	29.8	23.4	12.8	0.0
	300~499만 원	35	48.6	25.7	17.1	31.4	11.4	14.3	5.7
	500~699만 원	15	46.7	33.3	20.0	40.0	6.7	26.7	0.0
	700만 원 이상	47	34.0	31.9	31.9	31.9	21.3	23.4	0.0
									6.4

BASE : 반려동물 사육 비경험자(N=148)



## ⑦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 질문 :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가구 중에서 향후 반려동물을 사육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9.1%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보임

- 반면, 사육 의향이 없는 경우는 24.9%에 불과하여 향후 반려동물 사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 계층에서 반려동물 사육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4]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구 분	사례 수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전혀 의향이 없다	② 별로 의향이 없다	③ 보통 이다	④ 다소 의향이 있다	⑤ 매우 의향이 있다		
전 체	507	9.5	15.4	26.0	37.3	11.8	3.3	
성별	남성	235	8.5	11.1	28.5	41.3	10.6	3.3
	여성	272	10.3	19.1	23.9	33.8	12.9	3.2
연령	20대	105	2.9	8.6	21.9	41.0	25.7	3.8
	30대	132	8.3	14.4	22.7	43.2	11.4	3.3
	40대	153	11.1	16.3	30.7	31.4	10.5	3.1
	50대 이상	117	14.5	21.4	27.4	35.0	1.7	2.9
가족 구성원 수	1인	45	6.7	8.9	22.2	40.0	22.2	3.6
	2인	83	9.6	18.1	22.9	37.3	12.0	3.2
	3인	144	9.7	13.2	25.7	38.9	12.5	3.3
	4인	195	10.3	16.9	26.2	36.4	10.3	3.2
	5인 이상	40	7.5	17.5	37.5	32.5	5.0	3.1
주택 형태	아파트	273	10.3	16.8	25.3	39.2	8.4	3.2
	단독/다가구	60	3.3	16.7	33.3	35.0	11.7	3.4
	연립/빌라	169	10.7	13.0	24.9	34.9	16.6	3.3
	기타	5	0.0	0.0	20.0	40.0	40.0	4.2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43	11.2	12.6	25.9	35.7	14.7	3.3
	300~499만 원	175	9.7	16.0	27.4	34.9	12.0	3.2
	500~699만 원	127	7.9	18.9	27.6	34.6	11.0	3.2
	700만 원 이상	62	8.1	12.9	19.4	53.2	6.5	3.4

BASE : 반려동물 비사육자(N=507), \* P<0.05, \*\* P<0.01, \*\*\* P<0.001

## ⑧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

- 질문 :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웃이나 주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시끄러움’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소변으로 인한 오염’ 40.2%, ‘털이 날림’ 3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주로 4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다중이용 시설에서 함께 머무르기 불편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복수응답)(단위 : %)								
		시끄러웠다	대소변으로 오염을 시켰다	털이 날렸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함께 머무르기 불편	냄새가 심했다	물린 적이 있거나 위협을 가해 놀랐다	교통 사고를 냈거나 널 뻘 했다	기타	피해 경험 없음
전 체	1,014	43.5	40.2	37.3	23.5	22.5	20.3	3.6	0.2	16.1
사육 여부										
사육자	507	42.4	44.0	40.2	24.7	22.1	15.6	4.5	0.0	15.0
비사육자	507	43.8	39.3	36.5	21.9	23.9	21.5	3.4	0.2	16.4
성별										
남성	503	45.1	43.5	41.9	23.9	22.3	17.1	5.0	0.2	14.5
여성	511	41.1	39.7	34.8	22.7	23.7	20.0	2.9	0.0	16.8
연령										
20대	245	36.7	28.6	37.1	21.2	20.0	18.0	3.7	0.0	20.8
30대	283	42.0	38.9	32.2	18.7	24.4	18.0	4.2	0.0	15.5
40대	266	52.3	48.5	43.2	24.8	21.8	21.1	4.5	0.0	13.2
50대 이상	220	40.5	51.4	41.8	29.5	25.9	16.8	3.2	0.5	13.2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0.5	25.0	21.4	13.1	14.3	14.3	2.4	0.0	26.2
2인	168	47.0	41.1	33.9	19.6	21.4	17.9	3.0	0.0	12.5
3인	282	40.4	39.7	37.9	22.7	22.3	15.6	5.3	0.0	16.7
4인	390	45.6	46.7	42.6	24.9	25.9	21.8	4.1	0.3	14.1
5인 이상	90	35.6	42.2	45.6	34.4	23.3	18.9	2.2	0.0	15.6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5.3	45.3	42.4	26.8	23.9	19.1	4.2	0.2	13.6
단독/다가구	139	33.8	40.3	30.2	18.0	25.9	21.6	2.9	0.0	22.3
연립/빌라	320	42.8	36.3	35.3	19.7	20.9	16.3	4.1	0.0	16.6
기타	10	60.0	30.0	30.0	20.0	0.0	20.0	0.0	0.0	1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36.7	31.6	30.5	17.2	20.3	20.7	3.9	0.0	22.7
300~499만 원	332	47.0	38.9	41.9	19.9	23.8	16.0	4.2	0.0	12.7
500~699만 원	276	42.4	51.1	39.5	28.6	26.4	21.4	4.0	0.0	15.6
700만 원 이상	150	46.7	47.3	42.0	31.3	19.3	15.3	3.3	0.7	10.7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2) 반려동물 사육자 실태 관련

## ①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

- 질문 :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주기적인 예방접종과 질병 즉시 치료’가 74.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자주 목욕과 운동을 시켜준다’ 73.8%,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습성 교육과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54.2%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동물등록 및 허용된 장소 출입 등의 공중규범 준수’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자료/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여성 계층 및 50대 이상 연령층, 5인 이상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올바른 사육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

구 분		사례 수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복수응답)(단위 : %)					
			주기적인 예방접종 및 질병 즉시 치료	자주 목욕과 운동	남에게 피해 없도록 습성교육 및 소음을 줄이는 조치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먹이를 구해 먹임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자료와 자문 구함	동물등록, 허용된 장소 출입 등 공중 규범 준수
전 체		507	74.2	73.8	54.2	52.5	48.5	45.0
성별	남성	268	72.0	73.1	46.6	41.8	44.4	37.7
	여성	239	76.6	74.5	62.8	64.4	53.1	53.1
연령	20대	140	72.9	64.3	47.1	52.9	55.0	45.0
	30대	151	74.2	67.5	55.0	53.0	47.0	40.4
	40대	113	73.5	85.0	54.0	50.4	51.3	40.7
	50대 이상	103	76.7	83.5	63.1	53.4	38.8	56.3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76.9	48.7	51.3	56.4	69.2	35.9
	2인	85	71.8	75.3	55.3	55.3	50.6	44.7
	3인	138	73.2	75.4	57.2	53.6	47.8	50.0
	4인	195	70.8	72.8	52.8	45.1	44.1	39.0
	5인이상	50	92.0	90.0	52.0	70.0	48.0	62.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76.1	77.2	55.5	51.5	49.6	45.6
	단독/다가구	79	68.4	63.3	44.3	41.8	49.4	40.5
	연립/빌라	151	73.5	74.2	57.6	58.9	45.7	46.4
	기타	5	80.0	40.0	40.0	80.0	60.0	4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3.7	66.4	48.7	51.3	53.1	39.8
	300~499만 원	157	77.7	75.8	50.3	47.8	41.4	44.6
	500~699만 원	149	76.5	80.5	57.7	59.1	52.3	45.0
	700만 원 이상	88	77.3	68.2	62.5	51.1	48.9	5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②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

- 질문 :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관리비용 과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외출 시 맡길 시설 부족/비용 과다’ 57.6%, ‘이웃/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31.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반면, ‘반려동물의 이상행동/위생문제로 다루기 어렵다’거나 ‘주변 여건 문제로 계속 기르기 곤란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관리유지비용 및 시설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및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외출 시 맡길 시설 부족’을, 20대 연령층의 경우는 ‘주변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부록 표 17]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복수응답)(단위 : %)					
			반려동물 관리비용 많이 든다	여행, 외출이 어렵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고 비싸다	이웃/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다	주변여건 문제로 계속 기르기 곤란	이상행동/ 위생문제로 다루기 어렵다	기타
전 체	성별	507	64.9	57.6	31.0	24.9	23.7	0.4
	남성	268	62.7	51.1	32.8	26.1	27.6	0.4
연령	여성	239	67.4	64.9	28.9	23.4	19.2	0.4
	20대	140	66.4	46.4	32.1	30.7	20.7	1.4
	30대	151	65.6	55.6	34.4	27.8	24.5	0.0
	40대	113	62.8	58.4	29.2	23.9	32.7	0.0
	50대 이상	103	64.1	74.8	26.2	13.6	16.5	0.0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64.1	64.1	35.9	30.8	12.8	0.0
	2인	85	58.8	57.6	28.2	31.8	23.5	0.0
	3인	138	63.8	63.8	34.1	26.1	28.3	0.0
	4인	195	68.7	52.3	30.3	22.6	21.0	0.0
	5인 이상	50	64.0	56.0	26.0	14.0	30.0	4.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62.1	60.3	32.4	27.9	25.4	0.4
	단독/다가구	79	70.9	45.6	24.1	17.7	24.1	1.3
	연립/빌라	151	67.5	58.3	32.5	23.2	21.2	0.0
	기타	5	40.0	80.0	20.0	2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5.5	58.4	32.7	26.5	23.0	0.0
	300~499만 원	157	66.9	54.1	33.8	26.8	26.8	0.0
	500~699만 원	149	63.1	60.4	29.5	26.8	21.5	0.0
	700만 원 이상	88	63.6	58.0	26.1	15.9	22.7	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③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

- 질문 : 현재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보유를 포기하거나 유기하고픈 충동을 느낀 적 있습니까?
- 현재 반려동물 사육자 중 포기나 유기 총동 경험 비율은 42.6%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7.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10가구 중에서 4가구꼴로 반려동물 보유 포기/유기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남성 및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반려동물 보유 포기/유기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18]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포기/유기 총동 경험(단위 : %)			χ <sup>2</sup>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 체		507	57.4	40.6	2.0	
성별	남성	268	50.7	46.3	3.0	11.783**
	여성	239	64.9	34.3	0.8	
연령	20대	140	67.1	31.4	1.4	13.541*
	30대	151	57.6	41.7	0.7	
	40대	113	48.7	46.9	4.4	
	50대 이상	103	53.4	44.7	1.9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56.4	43.6	0.0	3.341
	2인	85	62.4	36.5	1.2	
	3인	138	57.2	40.6	2.2	
	4인	195	55.4	42.6	2.1	
	5인 이상	50	58.0	38.0	4.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51.1	47.1	1.8	10.791
	단독/다가구	79	65.8	32.9	1.3	
	연립/빌라	151	64.2	33.1	2.6	
	기타	5	60.0	4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61.9	36.3	1.8	1.577
	300~499만 원	157	57.3	40.8	1.9	
	500~699만 원	149	54.4	43.6	2.0	
	700만 원 이상	88	56.8	40.9	2.3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lt;0.05, \*\* P&lt;0.01, \*\*\* P&lt;0.001

## ④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 질문 :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 이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 사육자 중 새로운 반려동물을 사육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0%로 나타났으며,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5.1%에 불과해 향후 반려동물 새로운 사육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월평균 700만 원 이상 가구소득계층의 경우 반드시 다시 키우고 싶다는 강한 긍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 299만 원 이하 가구소득계층의 경우는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수준에 따른 의향의 차이를 보임

[부록 표 19]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구 분	사례 수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단위 : %)					$\chi^2$
		반드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다시 키우고 싶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다시 키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		
전 체	507	17.6	40.4	36.9	5.1		
성별	남성	268	19.4	39.9	36.6	4.1	2.321
	여성	239	15.5	41.0	37.2	6.3	
연령	20대	140	15.7	40.0	39.3	5.0	8.480
	30대	151	22.5	38.4	35.1	4.0	
	40대	113	15.9	46.0	34.5	3.5	
	50대 이상	103	14.6	37.9	38.8	8.7	
가족 구성원 수	1인	39	10.3	41.0	43.6	5.1	8.084
	2인	85	16.5	45.9	32.9	4.7	
	3인	138	17.4	41.3	35.5	5.8	
	4인	195	17.9	39.0	36.9	6.2	
	5인 이상	50	24.0	34.0	42.0	0.0	
주택 형태	아파트	272	15.8	41.9	37.1	5.1	22.303**
	단독/다가구	79	31.6	32.9	29.1	6.3	
	연립/빌라	151	13.9	43.0	38.4	4.6	
	기타	5	0.0	0.0	10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113	18.6	38.9	31.9	10.6	23.269**
	300~499만 원	157	10.2	45.9	39.5	4.5	
	500~699만 원	149	18.8	41.6	36.9	2.7	
	700만 원 이상	88	27.3	30.7	38.6	3.4	

BASE : 반려동물 사육자(N=507), \* P&lt;0.05, \*\* P&lt;0.01, \*\*\* P&lt;0.001

### (3)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정책 관련

#### ①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

- 질문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등의 구조나 포획,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8%로 절반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5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 특히,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3%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사육자의 경우는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나타나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반려동물 사육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그 밖에 성별,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주택형태,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부록 표 20]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

구 분		사례 수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단위 : %)			χ <sup>2</sup>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처음 들어 본다	
전 체		1,014	37.8	54.0	8.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51.3	45.4	3.4	37.700***
	비사육자	507	34.3	56.2	9.5	
성별	남성	503	40.2	54.5	5.4	5.987
	여성	511	45.4	47.2	7.4	
연령	20대	245	41.6	49.4	9.0	5.349
	30대	283	41.3	53.0	5.7	
	40대	266	46.2	48.9	4.9	
	50대 이상	220	41.8	51.8	6.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2.9	45.2	11.9	9.170
	2인	168	44.0	48.2	7.7	
	3인	282	39.4	54.6	6.0	
	4인	390	43.3	51.3	5.4	
	5인 이상	90	48.9	46.7	4.4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3.1	50.5	6.4	1.913
	단독/다가구	139	41.7	51.8	6.5	
	연립/빌라	320	42.2	51.6	6.3	
	기타	10	60.0	30.0	1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41.0	50.0	9.0	9.906
	300~499만 원	332	44.6	50.6	4.8	
	500~699만 원	276	45.3	50.4	4.3	
	700만 원 이상	150	37.3	53.3	9.3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와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② 외국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질문 : 외국과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폭넓은 역할의 동물복지지원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2.5%로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32.7%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폭넓은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강한 긍정의 태도를 보임
- 특히 사육자의 찬성 의견은 96.4%로 비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대 연령층, 1인 가구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1] 외국/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 수	서울시의 폭넓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찬성 정도 (단위 : %)				평균 (4점 척도)	T/F
			① 매우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다소 찬성	④ 매우 찬성		
전 체		1,014	4.6	2.8	59.8	32.7	3.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2	2.4	48.3	48.1	3.4	47.001***
	비사육자	507	5.5	3.0	62.7	28.8	3.1	
성별	남성	503	2.4	2.4	57.3	38.0	3.3	0.641
	여성	511	4.3	2.9	53.8	38.9	3.3	
연령	20대	245	0.4	0.4	57.6	41.6	3.4	5.532***
	30대	283	2.8	2.5	52.7	42.0	3.3	
	40대	266	4.9	3.0	56.8	35.3	3.2	
	50대 이상	220	5.5	5.0	55.5	34.1	3.2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1.2	0.0	48.8	50.0	3.5	3.913*
	2인	168	3.0	2.4	48.2	46.4	3.4	
	3인	282	2.8	3.5	54.6	39.0	3.3	
	4인	390	4.6	3.1	59.5	32.8	3.2	
	5인 이상	90	2.2	1.1	61.1	35.6	3.3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7	2.9	57.8	35.6	3.3	2.184
	단독/다가구	139	3.6	2.9	56.1	37.4	3.3	
	연립/빌라	320	2.8	2.2	51.9	43.1	3.4	
	기타	10	0.0	0.0	40.0	60.0	3.6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2.3	2.3	52.3	43.0	3.4	1.716
	300~499만 원	332	2.7	2.1	57.8	37.3	3.3	
	500~699만 원	276	3.6	2.9	57.2	36.2	3.3	
	700만 원 이상	150	6.0	4.0	52.7	37.3	3.2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③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역할에 대한 태도

- 질문 : 반려동물 사육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55.2%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0.6%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20~30대 연령층, 월평균 500~699만 원 가구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2]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복지의 관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5.3	10.9	28.6	41.0	14.2	3.5	
사육 여부								
사육자	507	3.6	5.1	20.7	40.8	29.8	3.9	63.015***
비사육자	507	5.7	12.4	30.6	41.0	10.3	3.4	
성별								
남성	503	5.8	11.1	23.9	43.1	16.1	3.5	9.689**
여성	511	3.5	6.5	27.4	38.7	23.9	3.7	
연령								
20대	245	2.9	7.3	23.7	42.4	23.7	3.8	7.087***
30대	283	3.2	5.7	26.5	44.2	20.5	3.7	
40대	266	5.6	7.9	26.7	39.5	20.3	3.6	
50대 이상	220	7.3	15.5	25.5	36.8	15.0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33.3	36.9	26.2	3.9	1.476
2인	168	4.8	12.5	22.0	39.9	20.8	3.6	
3인	282	6.0	4.6	27.3	41.8	20.2	3.7	
4인	390	4.9	11.0	23.8	43.1	17.2	3.6	
5인 이상	90	3.3	10.0	27.8	34.4	24.4	3.7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5	9.5	23.5	42.6	18.9	3.6	0.709
단독/다가구	139	3.6	8.6	28.8	41.7	17.3	3.6	
연립/빌라	320	3.4	7.8	27.8	38.8	22.2	3.7	
기타	10	10.0	0.0	30.0	10.0	50.0	3.9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5	9.0	29.3	34.8	21.5	3.6	2.624*
300~499만 원	332	4.5	8.7	25.0	45.5	16.3	3.6	
500~699만 원	276	2.5	7.2	24.6	41.7	23.9	3.8	
700만 원 이상	150	7.3	11.3	22.7	40.0	18.7	3.5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50.4%로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하는 경우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2.3%로 나타나, 정부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계층에서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3]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이 부족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0	11.9	35.7	38.5	11.9	3.5	
사육 여부								23.933***
	사육자	507	2.2	8.1	27.4	43.2	19.1	3.7
	비사육자	507	2.0	12.8	37.9	37.3	10.1	3.4
성별								4.298*
	남성	503	2.4	11.7	33.0	40.6	12.3	3.5
	여성	511	1.8	9.2	32.3	39.9	16.8	3.6
연령								0.787
	20대	245	2.4	9.8	35.9	32.7	19.2	3.6
	30대	283	1.8	8.8	34.6	40.3	14.5	3.6
	40대	266	2.3	8.6	30.8	45.1	13.2	3.6
	50대 이상	220	1.8	15.5	28.6	42.7	11.4	3.5
가족 구성원 수								0.408
	1인	84	0.0	10.7	34.5	33.3	21.4	3.7
	2인	168	1.8	13.7	33.3	33.9	17.3	3.5
	3인	282	3.5	9.9	25.5	49.3	11.7	3.6
	4인	390	1.5	10.8	34.9	39.0	13.8	3.5
	5인 이상	90	2.2	4.4	42.2	35.6	15.6	3.6
주택 형태								2.124
	아파트	545	2.8	11.4	31.6	42.0	12.3	3.5
	단독/다가구	139	1.4	9.4	34.5	37.4	17.3	3.6
	연립/빌라	320	1.3	9.4	34.4	38.4	16.6	3.6
	기타	10	0.0	10.0	10.0	40.0	40.0	4.1
가구 소득								1.311
	299만 원 이하	256	3.1	12.1	34.8	32.8	17.2	3.5
	300~499만 원	332	2.1	9.6	33.7	43.4	11.1	3.5
	500~699만 원	276	0.4	10.1	31.5	41.3	16.7	3.6
	700만 원 이상	150	3.3	10.0	28.7	44.0	14.0	3.6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정부/서울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60.1%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육자의 경우 ‘정부/서울시가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70.6%로 나타나, 서울시/정부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여성 계층, 1인 가구에서 서울시/정부 차원에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4] '정부/서울시가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중앙정부/서울시가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3.3	8.5	28.1	48.0	12.1	3.6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6	4.9	22.9	46.5	24.1	3.9	42.518***
비사육자	507	3.7	9.5	29.4	48.3	9.1	3.5	
성별								
남성	503	3.2	8.9	27.4	47.7	12.7	3.6	12.29***
여성	511	2.2	5.5	24.9	47.2	20.4	3.8	
연령								
20대	245	2.0	6.9	28.2	46.1	16.7	3.7	2.159
30대	283	1.4	6.0	24.7	51.2	16.6	3.8	
40대	266	3.0	6.8	23.7	50.0	16.5	3.7	
50대 이상	220	4.5	9.5	28.6	40.9	16.4	3.6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6.0	19.0	53.6	21.4	3.9	2.070*
2인	168	1.8	7.1	28.0	46.4	16.7	3.7	
3인	282	4.6	5.0	22.0	53.2	15.2	3.7	
4인	390	2.6	9.2	29.7	42.3	16.2	3.6	
5인 이상	90	1.1	6.7	26.7	47.8	17.8	3.7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7	7.9	26.1	45.1	17.2	3.6	0.928
단독/다가구	139	1.4	5.0	29.5	49.6	14.4	3.7	
연립/빌라	320	1.6	7.2	24.7	50.6	15.9	3.7	
기타	10	0.0	0.0	30.0	40.0	30.0	4.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2.7	7.0	25.0	47.7	17.6	3.7	0.502
300~499만 원	332	2.7	5.4	27.7	51.2	13.0	3.7	
500~699만 원	276	2.2	7.6	26.1	44.6	19.6	3.7	
700만 원 이상	150	3.3	10.7	24.7	44.0	17.3	3.6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80.9%로 상당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육자 및 비사육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할 만한 기능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여성 계층에서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부록 표 25]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차원에서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갈등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0.6	2.7	15.8	47.1	33.8	4.1	
사육 여부								
사육자	507	0.8	2.4	17.4	49.3	30.2	4.1	1.565
비사육자	507	0.6	2.8	15.4	46.5	34.7	4.1	
성별								
남성	503	0.8	3.4	18.7	47.3	29.8	4.0	7.380**
여성	511	0.6	1.8	14.1	48.5	35.0	4.2	
연령								
20대	245	0.4	2.9	20.8	45.3	30.6	4.0	0.694
30대	283	0.4	2.1	17.7	48.1	31.8	4.1	
40대	266	1.1	2.6	14.7	46.6	35.0	4.1	
50대 이상	220	0.9	2.7	11.8	52.3	32.3	4.1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19.0	38.1	39.3	4.1	0.548
2인	168	1.2	2.4	18.5	47.0	31.0	4.0	
3인	282	1.1	2.8	15.6	43.3	37.2	4.1	
4인	390	0.5	2.8	16.7	50.0	30.0	4.1	
5인 이상	90	0.0	0.0	11.1	64.4	24.4	4.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0.7	2.8	15.4	49.4	31.7	4.1	0.251
단독/다가구	139	0.7	0.7	18.0	48.9	31.7	4.1	
연립/빌라	320	0.6	3.1	17.5	45.0	33.8	4.1	
기타	10	0.0	0.0	10.0	50.0	40.0	4.3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6	3.1	21.9	41.4	32.0	4.0	1.893
300~499만 원	332	0.0	2.4	15.7	48.8	33.1	4.1	
500~699만 원	276	0.4	2.5	13.8	49.3	34.1	4.1	
700만 원 이상	150	1.3	2.0	13.3	54.7	28.7	4.1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전염병 관리, 피해상담 등)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75.9%로 상당수가 동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육자 및 비사육자 모두 동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할 만한 기능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여성 계층에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6]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 존재(전염병 관리, 피해 상담 등)'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소비자 피해상담, 전염병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0.8	3.0	20.4	49.5	26.4	4.0	
사육 여부								
사육자	507	0.8	2.2	19.7	45.6	31.8	4.1	3.433
비사육자	507	0.8	3.2	20.5	50.5	25.0	4.0	
성별								
남성	503	1.0	2.6	25.0	44.9	26.4	3.9	8.189**
여성	511	0.6	2.7	15.3	51.1	30.3	4.1	
연령								
20대	245	0.4	1.2	24.1	46.5	27.8	4.0	0.095
30대	283	0.7	2.8	18.4	51.9	26.1	4.0	
40대	266	1.1	3.0	19.5	47.7	28.6	4.0	
50대 이상	220	0.9	3.6	18.6	45.0	31.8	4.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3.6	21.4	41.7	33.3	4.0	1.106
2인	168	0.6	1.2	23.2	43.5	31.5	4.0	
3인	282	1.4	3.2	19.5	46.8	29.1	4.0	
4인	390	0.8	3.1	20.5	50.5	25.1	4.0	
5인 이상	90	0.0	1.1	13.3	55.6	30.0	4.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1.1	2.9	20.4	49.2	26.4	4.0	1.097
단독/다가구	139	0.7	2.9	17.3	45.3	33.8	4.1	
연립/빌라	320	0.3	2.2	20.9	47.5	29.1	4.0	
기타	10	0.0	0.0	20.0	40.0	40.0	4.2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6	3.1	23.0	44.1	28.1	3.9	0.799
300~499만 원	332	0.0	2.1	22.0	48.2	27.7	4.0	
500~699만 원	276	0.4	2.5	17.0	52.2	27.9	4.0	
700만 원 이상	150	2.0	3.3	16.7	46.7	31.3	4.0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는 비율은 41.2%이고, 보통이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역시 41.3%로 비슷한 비중을 보임
- 비사육자의 경우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44.2%로 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비사육자 및 4인 가구계층에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7]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시민복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3.3	14.1	41.3	28.2	13.0	3.3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0.1	18.3	41.8	21.5	8.3	3.0	45.576***
비사육자	507	1.6	13.0	41.2	30.0	14.2	3.4	
성별								
남성	503	4.2	14.7	43.5	25.8	11.7	3.3	2.700
여성	511	7.4	16.6	39.5	25.6	10.8	3.2	
연령								
20대	245	4.5	15.5	42.4	27.3	10.2	3.2	0.743
30대	283	6.0	13.4	47.3	26.5	6.7	3.1	
40대	266	6.4	17.7	39.5	22.6	13.9	3.2	
50대 이상	220	6.4	16.4	35.5	26.8	15.0	3.3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6.0	22.6	41.7	20.2	9.5	3.0	5.566**
2인	168	10.7	19.0	38.7	26.2	5.4	3.0	
3인	282	5.0	15.6	41.8	26.2	11.3	3.2	
4인	390	4.4	11.5	41.5	28.7	13.8	3.4	
5인 이상	90	5.6	21.1	45.6	15.6	12.2	3.1	
주택 형태								
아파트	545	6.1	11.9	42.8	25.7	13.6	3.3	2.573
단독/다가구	139	5.8	19.4	38.8	25.2	10.8	3.2	
연립/빌라	320	5.3	20.0	41.3	25.6	7.8	3.1	
기타	10	10.0	30.0	20.0	40.0	0.0	2.9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8.2	16.4	42.2	22.3	10.9	3.1	1.695
300~499만 원	332	3.3	17.5	43.4	27.4	8.4	3.2	
500~699만 원	276	6.2	13.0	44.9	23.2	12.7	3.2	
700만 원 이상	150	6.7	15.3	30.0	32.7	15.3	3.3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6.8%로 나타난 반면, 중립적 태도(36.7%)와 비동의 태도(16.5%)를 보인 경우는 합계 53.2%로 나타남. 중립적 의견을 감안하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육자의 경우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38.3%에 불과하여,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1~2인 가구, 연립/빌라 거주자에서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 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기능 이상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됨



[부록 표 28]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도 충분”(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비동의	② 다소 비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2	14.3	36.7	34.3	12.5	3.4	
사육 여부	사육자	507	7.9	20.1	33.7	29.4	8.9	3.1
	비사육자	507	0.8	12.8	37.5	35.5	13.4	3.5
성별	남성	503	2.8	15.7	37.4	32.6	11.5	3.3
	여성	511	5.9	17.2	33.9	32.3	10.8	3.2
연령	20대	245	3.7	15.5	37.6	33.5	9.8	3.3
	30대	283	5.7	17.3	37.8	29.0	10.2	3.2
	40대	266	4.5	17.3	34.2	33.1	10.9	3.3
	50대 이상	220	3.2	15.5	32.3	35.0	14.1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6.0	22.6	34.5	29.8	7.1	3.1
	2인	168	8.9	20.8	32.7	32.1	5.4	3.0
	3인	282	2.5	17.0	39.0	28.4	13.1	3.3
	4인	390	3.8	14.1	34.1	35.4	12.6	3.4
	5인 이상	90	2.2	11.1	37.8	35.6	13.3	3.5
주택 형태	아파트	545	2.4	15.6	37.2	31.7	13.0	3.4
	단독/다가구	139	2.9	18.0	27.3	40.3	11.5	3.4
	연립/빌라	320	7.8	17.5	36.6	30.6	7.5	3.1
	기타	10	20.0	10.0	30.0	20.0	20.0	3.1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7.4	16.4	31.6	34.4	10.2	3.2
	300~499만 원	332	2.1	16.3	38.9	34.3	8.4	3.3
	500~699만 원	276	3.6	18.1	37.3	27.9	13.0	3.3
	700만 원 이상	150	5.3	14.0	32.0	33.3	15.3	3.4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질문 :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4.9%로 나타난 반면,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17.2%로 나타나,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사육자의 경우에서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사육자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표본 특성별 분석

- 비사육자 및 2~4인 가구에서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9] ‘공공사업 추진시설은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사례 수	“공공사업 추진시설의 경우 민간시설/동물보호단체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매우 바동의	② 다소 바동의	③ 보통	④ 다소 동의	⑤ 매우 동의		
전 체	1,014	2.0	15.2	37.8	36.5	8.4	3.3	
사육 여부	사육자	507	5.9	17.0	39.3	31.2	6.7	3.2
	비사육자	507	1.0	14.8	37.5	37.9	8.9	3.4
성별	남성	503	3.2	13.1	42.1	34.4	7.2	3.3
	여성	511	3.7	18.6	34.6	34.6	8.4	3.3
연령	20대	245	2.9	19.2	41.2	30.6	6.1	3.2
	30대	283	4.2	15.9	38.5	34.3	7.1	3.2
	40대	266	3.8	15.8	35.7	37.6	7.1	3.3
	50대 이상	220	2.7	12.3	38.2	35.5	11.4	3.4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7.1	19.0	47.6	26.2	0.0	2.9
	2인	168	6.0	12.5	39.3	36.9	5.4	3.2
	3인	282	2.1	17.4	36.9	34.4	9.2	3.3
	4인	390	2.8	14.4	36.9	37.2	8.7	3.3
	5인 이상	90	2.2	21.1	38.9	26.7	11.1	3.2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1	15.4	38.2	34.1	9.2	3.3
	단독/다가구	139	2.2	12.9	38.1	39.6	7.2	3.4
	연립/빌라	320	4.1	18.4	39.1	32.5	5.9	3.2
	기타	10	20.0	0.0	30.0	50.0	0.0	3.1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1	16.8	38.7	31.6	7.8	3.2
	300~499만 원	332	3.3	14.2	43.7	32.2	6.6	3.2
	500~699만 원	276	2.2	18.8	33.3	36.6	9.1	3.3
	700만 원 이상	150	3.3	12.7	35.3	40.7	8.0	3.4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④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 질문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부(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31.6%

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사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는 사육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30대 연령층의 경우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비사육자 및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0]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구 분		사례 수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단위 : %)			X <sup>2</sup>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학대/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	
전 체		1014	44.6	31.6	23.8	
사육 여부	사육자	507	24.1	34.9	41.0	86.629***
	비사육자	507	49.9	30.8	19.3	
성별	남성	503	37.2	30.2	32.6	4.047
	여성	511	36.8	35.4	27.8	
연령	20대	245	29.0	35.9	35.1	29.411***
	30대	283	32.5	30.7	36.7	
	40대	266	39.8	33.1	27.1	
	50대 이상	220	48.2	31.8	20.0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41.7	25.0	33.3	4.449
	2인	168	35.7	34.5	29.8	
	3인	282	37.2	34.0	28.7	
	4인	390	36.2	34.1	29.7	
	5인 이상	90	37.8	27.8	34.4	
주택 형태	아파트	545	36.7	33.9	29.4	1.755
	단독/다가구	139	36.0	33.1	30.9	
	연립/빌라	320	37.5	31.3	31.3	
	기타	10	50.0	20.0	3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38.7	31.6	29.7	6.073
	300~499만 원	332	39.8	31.9	28.3	
	500~699만 원	276	34.4	36.2	29.3	
	700만 원 이상	150	32.7	30.7	36.7	

주 :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 질문 : 만약 서울시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지원시설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가 1순위 기준으로 31.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기본소양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정보 제공’ 29.2%, ‘구조(포획) 및 보호 동물 인수’ 20.9%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례시설’ 및 ‘사료나 용품 구입’, ‘소비자 피해상담’ 등은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20대 연령층 및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소양 교육 강화를 통한 정보 제공’을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 및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를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구 분		사례 수	서울시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1+2순위, 단위 : %)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	기본 소양 교육 강좌 통한 정보 제공	구조 (포획), 보호 동물 인수	반려 동물 훈련/ 습성화 교육	여행/ 장기 출타 시 반려 동물 관리	소비자 피해 상담	믿을 수 있는 사료/ 용품 구입	장려 시설	필요 사업 없다
전 체		1,014	31.7	29.2	20.9	5.1	4.5	4.1	1.2	0.4	2.7
사육 여부	사육자	507	61.3	43.4	42.6	16.2	18.7	4.1	8.3	3.4	0.8
	비사육자	507	57.8	43.4	41.6	17.9	12.8	14.2	3.6	1.8	3.2
성별	남성	503	60.2	45.1	41.2	17.3	14.5	8.7	5.4	2.2	2.6
	여성	511	58.9	41.7	43.1	16.8	17.0	9.6	6.5	2.9	1.4
연령	20대	245	52.2	48.2	49.0	15.1	17.1	6.5	8.2	0.8	0.8
	30대	283	60.8	41.0	41.7	19.8	16.3	9.5	5.7	2.5	1.1
	40대	266	61.7	43.2	38.7	20.3	14.7	10.5	4.1	1.5	2.6
	50대 이상	220	63.6	41.4	39.1	11.8	15.0	10.0	5.9	5.9	3.6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59.5	47.6	40.5	16.7	15.5	11.9	4.8	3.6	0.0
	2인	168	59.5	45.8	46.4	18.5	17.3	4.2	5.4	1.8	0.6
	3인	282	64.9	37.6	40.4	15.6	15.2	9.6	5.7	4.3	3.2
	4인	390	54.6	45.9	43.3	18.2	14.1	9.2	6.7	1.8	2.6
	5인 이상	90	64.4	42.2	35.6	14.4	22.2	14.4	5.6	1.1	0.0
주택 형태	아파트	545	58.3	42.6	40.4	17.2	16.3	9.9	5.9	2.9	2.9
	단독/다가구	139	63.3	46.8	40.3	18.7	14.4	7.2	5.8	1.4	0.7
	연립/빌라	320	59.1	43.8	45.9	16.6	15.6	8.4	5.9	2.5	0.9
	기타	10	90.0	30.0	40.0	0.0	10.0	20.0	10.0	0.0	0.0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59.4	41.8	42.6	17.2	15.2	9.4	7.0	3.5	1.6
	300~499만 원	332	61.7	41.3	42.8	14.5	16.0	8.7	6.3	2.1	3.0
	500~699만 원	276	57.6	48.2	41.7	19.9	13.8	9.1	5.1	2.2	1.1
	700만 원 이상	150	58.7	42.0	40.7	17.3	20.0	10.0	4.7	2.7	2.0

주: 1) BASE : 응답자 전체(N=1,014)

2)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 가구 기준의 사육 비율(20.4%)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⑥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태도

- 질문 : 거주하는 곳 인근에 외국 같은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는 의견이 34.2%로 10명 중 3~4명꼴로 찬성 의견을 보임
- 특히 사육자의 경우는 찬성 비율이 54.3%로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비사육자는 29.0%만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보임

- 비사육자의 경우는 중립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은 15.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인근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표본 특성별 분석

- 사육자 및 20~30대 연령층, 단독/다가구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32]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태도

구 분		사례 수	인근에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태도(단위 : %)					평균 (5점 척도)	T/F
			① 절대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중립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전 체		1,014	4.4	9.4	52.0	28.6	5.6	3.2	
사육 여부	사육자	507	1.6	4.7	39.4	36.9	17.4	3.6	99.273***
	비사육자	507	5.1	10.7	55.2	26.4	2.6	3.1	
성별	남성	503	2.6	9.3	48.9	31.6	7.6	3.3	3.136
	여성	511	4.1	6.1	45.8	31.7	12.3	3.4	
연령	20대	245	0.4	6.1	40.8	40.4	12.2	3.6	13.894***
	30대	283	1.1	4.6	50.9	31.8	11.7	3.5	
	40대	266	4.5	8.6	49.2	29.7	7.9	3.3	
	50대 이상	220	8.2	12.3	47.7	24.1	7.7	3.1	
가족 구성원 수	1인	84	0.0	7.1	50.0	25.0	17.9	3.5	1.466
	2인	168	0.6	7.7	52.4	29.8	9.5	3.4	
	3인	282	3.9	7.1	47.5	31.2	10.3	3.4	
	4인	390	4.6	8.7	45.9	32.8	7.9	3.3	
	5인 이상	90	4.4	5.6	41.1	37.8	11.1	3.5	
주택 형태	아파트	545	4.8	8.4	46.6	31.7	8.4	3.3	2.713*
	단독/다가구	139	2.2	6.5	45.3	35.3	10.8	3.5	
	연립/빌라	320	1.6	6.9	49.7	30.6	11.3	3.4	
	기타	10	0.0	10.0	40.0	10.0	40.0	3.8	
가구 소득	299만 원 이하	256	1.2	9.0	44.1	32.8	12.9	3.5	1.767
	300~499만 원	332	3.0	6.9	53.0	30.7	6.3	3.3	
	500~699만 원	276	4.7	7.2	46.4	29.7	12.0	3.4	
	700만 원 이상	150	5.3	8.0	42.0	35.3	9.3	3.4	

BASE : 응답자 전체(N=1,014), \* P<0.05, \*\* P<0.01, \*\*\* P<0.001

주 :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체가구 기준 사육 비율을 가중치(Weight)로 반영한 결과임

### 3\_설문조사 문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서울시민은 이미 다섯 가구당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보유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웃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심지어 기르던 동물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버려진 반려동물을 포획하여 보호하고 치료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도록 교육하고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받아 입양하는 등의 역할을 할 공적 처리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시 정부는 아무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도록 유도하고 동물로 인해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할 공적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씨서치플러스

#### ■ 응답자 기초사항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SQ3	거주 지역	① 종로구 ⑤ 광진구 ⑨ 강북구 ⑬ 서대문구 ⑰ 구로구 ⑲ 관악구 ㉓ 강동구	② 중 구 ⑥ 동대문구 ⑩ 도봉구 ⑭ 마포구 ⑱ 금천구 ㉒ 서초구	③ 용산구 ⑦ 중랑구 ⑪ 노원구 ⑮ 양천구 ⑲ 영등포구 ㉑ 강남구	④ 성동구 ⑧ 성북구 ⑫ 은평구 ⑯ 강서구 ㉒ 동작구 ㉔ 송파구

## Part A. 반려동물 사육 경험 관련

## ※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이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과거 불리던 “애완동물”을 대신하여 부르는 용어이며,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페럿, 햄스터, 새, 파충류, 물고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A1. 귀하께서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 A1-1번으로)
- ② 과거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고 있다 (☞ A2번으로)
- ③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 A3번으로)

A1-1. 귀하께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또는 ② 복수응답 가능)

- ① 개(강아지)                      ② 고양이
- ③ 기타 (토끼, 기니피그, 페럿, 햄스터, 새, 파충류, 물고기 등) (☞ 조사 중단)

※ 이후 질문에 대해서 반려동물로서 사람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일반적인 개(강아지)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을 어떤 계기로 키우게 되었습니까? (단수응답)

- 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 목적으로                      ② 예쁘고 귀여워서
- ③ 외로워서    ④ 선물을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 ⑤ 유기견/동물들이 불쌍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5번으로 이동)

A2.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다가 현재 키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예방접종, 질병치료, 사료구입 등 관리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②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이나 가족구성원의 갈등 때문에
- ③ 짖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이상행동, 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려워서
- ④ 공간 협소나 돌볼 시간 부족, 이사 등의 여건으로 계속 기르기 곤란해서
- ⑤ 여행이나 외출 등이 어렵고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 ⑥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음이 아파서                      ⑦ 반려동물 가출/실종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4번으로 이동)



A3. 귀하께서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 ② 반려동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털이 많이 뽀핍, 아기 알레르기 등)
- ③ 사육비용이 부담되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④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 ⑤ 반려동물을 키울 만한 공간이 없어서
- ⑥ 동물을 싫어해서
- ⑦ 가족의 반대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A4번으로 이동)

(☞ A1번에서 ②, ③ 응답자에게만 A4번 질문)

A4.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워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 ② 별로 의향이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의향이 있다
- ⑤ 매우 의향이 있다

(☞ A5번 모두에게 질문)

A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웃이나 주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해 경험이 있는 내용 **모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냄새가 심했다
- ② 털이 날렸다
- ③ 시끄러웠다
- ④ 대소변으로 오염을 시켰다
- ⑤ 물린 적이 있거나 위협을 가해 놀랐다
- ⑥ 교통사고를 냈거나 낼 뻔했다
- ⑦ 공원,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데려와 함께 머무르기가 불편했다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⑨ 피해를 본 적이 전혀 없다

## Part B. 반려동물 보유자 관련

(☞ Part B는 문A1번에서 ①번 반려동물 사육자에게만 질문)

B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반려동물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자료를 찾고, 자문을 구한다
- ②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질병은 즉시 치료한다
- ③ 자주 목욕과 운동을 시킨다
- ④ 건강에 좋고 균형 잡힌 먹이를 구해서 먹인다
- ⑤ 가족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습성교육을 시키고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한다
- ⑥ 동물등록, 허용된 장소 출입 등 공중규범을 준수한다.
- ⑦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B2.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예방접종, 질병치료, 사료구입 등 돈이 많이 든다
- ② 이웃이나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가족구성원과 갈등이 있다
- ③ 거칠거나 이상행동, 위생문제 등으로 다루기 어렵다
- ④ 경제력 감소, 공간 협소, 돌볼 시간 부족, 이사 등의 문제로 계속 기르기가 곤란하다
- ⑤ 여행, 외출 등이 어렵고 맡길 시설이 부족하고 비싸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B3.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의 보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고픈 충동을 느낀 적 있습니까? (단수응답)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B4. 현재 키우는 반려동물 이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습니까? (단수응답)

- ① 반드시 새로운 반려동물을 다시 키우고 싶다
- ②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다시 키울 가능성이 높다
- ③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④ 절대로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다

## Part C.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관련 정책

(※ Part C는 반려동물 보유자 및 비보유자 모두에게 질문)

C1.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동물을 뜻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등의 구조나 포획,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③ 처음 들어 본다

C2. 외국과 민간부문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보다 폭넓은 역할을 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기능 예시

- ✓ 서울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포획·보호·치료 등
- ✓ 서울 민간단체 : 유기동물 입양카페, 동물보호 교육 및 상담, 동물병원, 시민 커뮤니티센터 등
- ✓ 일본 동물애호상담센터 : 동물 인수·입양, 사육자 교육 및 상담, 전염병 통제관리센터 등
- ✓ 미국 ASPCA : 동물사육 상담, 포기동물 인수, 입양, 학대조사/감시, 동물병원(저소득층 할인)

-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③ 다소 반대                      ④ 매우 반대

C3.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입장이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비동의	다소 비동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시민 복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2) 현재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의 포획·보호) 기능만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1	2	3	4	5
3)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4) 반려동물이 늘면서 개 짖는 소리, 배설물 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5) 소비자 피해상담, 전염병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과 같이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시민복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7)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도로 충분하다	1	2	3	4	5
8)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시설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설치하지 말고 민간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 시설을 빌려 사용한다	1	2	3	4	5

C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부(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단수응답)

정부(공공)의 역할	주요 내용
① 반려동물 학대나 전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포기동물 인수, 학대동물 구조 등
② 반려동물을 편리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역할	반려동물의 번식 및 판매(분양), 치료, 사료, 보험, 교육 등 관련 업종 육성
③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이 주변의 반려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유기·길거리동물 포획·보호, 갈등 조정, 반려동물 등록 등

C5. 만약 서울시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지원시설이 **우선적으로 담당할 사업**을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① 반려동물을 잘 기르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강좌 등을 통한 정보제공 | ③ 전염병 예방 접종 및 사육 동물 치료 |
| ② 구조(포획), 보호 동물 인수                       | ⑤ 믿을 수 있는 사료나 용품 구입    |
| ④ 반려동물 훈련이나 습성화 교육                       | ⑦ 소비자 피해 상담            |
| ⑥ 여행이나 장기출타 시 반려동물 관리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 ⑧ 장례시설                                   |                        |
| ⑩ 필요 사업이 없다                              |                        |

C6. 거주하는 곳 인근에 **외국 같은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                      ② 다소 반대                      ③ 중립 (기능/역할을 보고 결정)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작성해 주신 통계 분류를 위한 응답자 특성 정보는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댁에서는 총 몇 분이 함께 살고 계신가요? 본인 포함 총 (      명)

DQ2. 귀댁의 주택형태는 무엇인가요?

- ① 아파트      ② 단독/다가구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④ 기타 (                      )

DQ3. 귀댁의 주택 건평(분양면적)은 몇 평입니까? (마당, 정원 등과 같은 건물 이외의 공간은 제외)

- ① 10평(33㎡) 미만                      ② 10평(33㎡) ~ 20평(66㎡) 미만  
③ 20평(66㎡) ~ 30평(99㎡) 미만                      ④ 30평(99㎡) ~ 40평(132㎡) 미만  
⑤ 40평(132㎡) ~ 50평(165㎡) 미만                      ⑥ 50평(165㎡) 이상

DQ4.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 원                      ⑥ 500~599만 원                      ⑦ 600~699만 원                      ⑧ 700만 원 이상

DQ5. 귀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전문기술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⑦ 자영업                      ⑧ 주부  
⑨ 학생                      ⑩ 기타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Abstract

---

### Basic Design for Seoul Animal Center(SAC)

Kee-Yong, Yoo · Jong-Chan Yi

In Seoul, 20.4% of households own companion animals. This number has been growing up over the last decade. However, animal abandonment is still occurring. Owners' awareness about responsible ownership remains low. Moreover there are insufficient public resources and programs to encourage animal care. We can learn how to play roles in animal care from overseas cases. For example, we can rescue and care animals in need, adopt and surrender animals. We can also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ing about animal car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only doing rescues by animal care centers in local districts was insufficient to manage animals successfully. Citizens also asked Seoul city government to act as a control tower of animal care by running similar animal care centers in foreign cities. It is expected that households that own companion animals will increase up to 29% soon and the number of citizens who demand the encompassing of animal care will also increase.

From this perspective, Seoul city government will run its own facilities, the so called Seoul Animal Center(SAC). This is estimated to bring benefit of 4.4 billion Korean won. Considering role allocation between City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llaboration with NGOs and functional overlap with markets, the roles of SAC are restricted to protect animals and encourage pet culture such as placement of surrendering animal, adoption, vet, education, consulting, R&D, and platform for community animators. The southwest area of Seoul with high population is expected to be the best site for the first facility. Three additional facilities might be followed if the first one works well.

## Contents

---

###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Research Methods

### 02 Ownership and Condition of Companion Animal in Seoul

- 1\_Statistics of Companion Animal Ownership
- 2\_Companion Animal Markets
- 3\_Problems
- 4\_Policy and Legal System

### 03 Case Survey on Animal Welfare Facilities

- 1\_Review of Domestic Animal Care Facilities: Public Sector
- 2\_Review of Domestic Animal Care Facilities: Private Sector
- 3\_Preceding Experiences of Foreign Cities

### 04 Roles and Benefits of Seoul Animal Center

- 1\_Needs Assessment of Animal Care Center
- 2\_Roles of Seoul Animal Center
- 3\_Benefit Evaluation of Seoul Animal Center

### 05 Project Implementation Plan: the first Facility

- 1\_Facility Siting
- 2\_Project Procedure
- 3\_Main Points

---

서울연 2016-PR-0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7월 1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40-8 9333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